줄 타는 무희 도로테

Dorothée, danseuse de cord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3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Dorothée, danseuse de corde » (1923)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Dorothée, danseuse de cord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별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달의 초승달 하나만 남아 있었다. 길가 풀밭 위에 멈춰 선 마차는 닫힌 창문과 팔처럼 늘어놓은 마구리 장대를 드러낸 채 잠들어 있었다.

가까운 도랑 그림자 속에서 말은 코를 골며 숨을 내쉬었다.

멀리, 검은 언덕 능선 너머로 희미한 빛줄기가 나타나 새벽의 도래를 알렸다. 교회 시계가 네 시를 쳤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깨어나 노래를 시작했다.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 안에서 여자의 비명이 터졌다.

“생탕탕! 생탕탕!”

지붕 처마 아래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여자의 고개가 고개를 내밀었다.

“맞아, 나도 의심했어! 그 도둑놈이 밤새 도망쳤어. 불쌍한 놈! 제대로 혼내줘야 해!”

다른 목소리들이 대답했다. 두세 분이 흘렀다.

그때 뒷문이 열렸고, 한 실루엣이 계단 오단계를 내려왔다. 옆창에서는 머리카락이 뒤틀린 두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로테! 어디 가니?”

“생트캥탱을 찾으러.” 도로테라고 불린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네가 산책하다 같이 돌아왔잖아. 내가 그 애가 자신의 자리에서 잠드는 걸 직접 봤어.”

“네가 봐도 자리에 없잖아, 카스토르.”

“그럼 어디 있단 말이야?”

“기다려 봐! 내가 귀를 잡고 데려올게.”

하지만 두 아이가 셔츠 차림으로 구름차에서 뛰어내리며 애원했다.

“아니야, 도로테 엄마… 밤에 혼자 가지 마. 위험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폴룩스? 위험하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녀는 그들을 때리고 발로 차며, 재빨리 차까지 쫓아냈다. 그들은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두 사람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에 꼭 붙인 뒤, 다정하게 입맞춤을 했다.

"화내지 마, 내 두 아이. 위험하다니? 반시간만 지나면, 나는 생캉탱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생캉탱이라니… 열여섯도 안 된 녀석이…"

"폴룩스와 카스토르는 둘이서 스무 살인데!" 도로테가 말했다.

"게다가, 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이 아니잖아… 그는 어디로 나가는 거지?"

"토끼를 올가미로 잡는 거요. 보시죠, 그리 큰일이 아닌걸요. 자, 수다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자정 시간이니 자러 갑시다. 그리고 특히, 카스토르와 폴룩스, 싸우지 마세요. 소음 금지요! 대위가 자고 계시거든. 대위는 깨어나는 걸 싫어하시니."

그녀는 물러났다. 도랑을 뛰어넘고 초원을 가로질렀다. 발은 물웅덩이에 푹푹 빠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녀는 머리를 약간 들어야 할 정도로 키가 작은 젊은 수풀 사이로 이어진 작은 길을 따라 달렸다. 전날 이미 친구 생탕탕과 함께 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두 번이나 따라갔던 터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전진했다.

두 개의 도로를 건너 강가에 도착했다. 강물은 고요했고, 바닥의 하얀 자갈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물에 들어갔다. 발자국을 지우려는 듯 상류로 거슬러 올랐다.

해가 뜨기 시작해 사물의 윤곽이 또렷해지자, 그녀는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가볍고 우아했다. 키는 작았지만,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맨다리는 힘차게 도약했다. 치마 뒤로는 다채로운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달렸다. 낙엽 사이로 피어 있는 초봄의 꽃들을 밟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흰 우산꽃, 보라색 데이지, 하얀 나르시스.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은 두 무더기로 나뉘어 날개를 치듯 흔들렸다. 미소 띤 얼굴, 살짝 벌린 입술, 파르르 떨리는 콧구멍, 반쯤 감힌 눈.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아침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기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오렌지색 실크 스카프로 묶은 회색 천 블라우스 목 사이로 길고 유연한 목이 드러났다. 그녀는 열다섯, 열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숲이 끝나자 두 절벽 사이로 계곡이 파고들었다. 길이 갑자기 꺾였다. 도로테가 발걸음을 딱 멈췄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그녀 맞은편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기둥이 있었다. 높이는 최대 서른 미터 정도였으며, 면은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 위에 성의 본체가 둥글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성 자체의 양식은 특별히 훌륭하지는 않았

다. 하지만 그 위치와 건물의 규모가 마치 영주의 저택 같은 위용을 풍기게 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계곡이 좁아져 협곡이 되었다. 마치 옛날의 해자처럼 성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도로테 앞쪽은 사정이 달랐다. 공간이 넓게 트여 있었다. 약간 구불거리는 완만한 경사면이었다. 무거운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시덤불 울타리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끝에는 기둥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끝을 맺고 있었다.

"다섯 시 사십오 분이군."

젊은 여자가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생캉탱이 곧 올 거야."

그녀는 뿌리째 뽑힌 거대한 나무 줄기 뒤에 웅크리고 앉아, 성벽과 그 아래를 받치는 암반의 경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1층 창문 바로 아래에는 그 경계를 따라 얇은 턱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좁은 턱 위에는 절벽의 가로 균열이 닿아 있는 곳이 있었다. 벽면에 생긴 금이 가듯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었다.

어젯날 산책 중 성토앙은 그 균열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곤 하지. 하지만 거기서 올라가 창문 하나쯤 여간해 들어가는 건 쉬워. 저기, 바로 저 창문이 반쯤 열려 있잖아. 부엌 창문이야.”

도로테는 이 등반 계획이 생트캥탱에게 이미 떠오른 아이디어였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곧바로 은밀한 출정을 감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들어간 방에는 아무도 없었을까? 그는 그곳의 구조도, 성 안 사람들의 습관도 알지 못한 채 탐험을 나섰으니, 혹시 발각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녀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계곡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생트캥탱이 내려올 때쯤 어떤 농부가 이 근처를 지나갈 수도 있었다. 내려가는 것은 등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 순간, 도로테가 몸을 떨었다.

그토록 큰 위기를 생각하자마자, 오히려 그 위기가 현실이 된 것만 같았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정문 쪽에서 오는 것이 분명했다. 도로테는 자신을 감춰 주던 나무 뿌리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긴 조끼를 입고 있었고, 회색의 높은 목도리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안감이 있는 낡은 장갑을 끼고, 팔 아래로 총을 끼고 있었다.

그는 아마 사냥꾼이겠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도적질하는 사냥꾼일 거야.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걸었으니까. 누군가 자신을 발견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를 취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벽 근처에서 멈춰 섰다. 생캉탱이 기어올랐던 곳으로부터 오십에서 육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땅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평평한 돌들을 피해 돌아다니며, 그 돌들 위에 몸을 숙여 무언가를 살폈다.

드디어 그는 결심했다. 가장 얇은 끝부분을 잡고 돌판을 들어 올린 뒤, 돌멘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렇게 하면 돌판이 남긴 구멍 한가운데에 구멍이 드러났다. 옆에는 곡괭이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내며 구멍을 넓혀 갔다.

몇 분 더 흘렀다. 도로테가 바라며 동시에 두려워하던 그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성-캉탱이 전날 뛰어넘었던 성채의 창문 양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높은 정장을 썼다. 멀리서 봐도 그 코트와 모자는 윤기가 나고, 더러우며, 기워 입은 것처럼 보였다.

성캉탱은 배를 벽에 대고 몸을 납작하게 붙인 채, 창문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간신히 두 발을 돌출된 석재 위에 올렸다.

그때 뒤쪽에 있던 도로테가 일어날 뻔했다.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흰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절벽에 달라붙은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를 이미 눈치챈 뒤였다. 그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곧장 파낸 구덩이 속으로 숨어들었다.

게다가 생캉탱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는 한 그걸 볼 수 없었고, 돌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아마 성에서 주워 온 듯한 밧줄을 풀더니, 창문 발코니에 감았다. 마치 밧줄이 도르레처럼 쓰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양끝은 절벽을 따라 똑같이 늘어뜨렸다.

이렇게 두 개의 밧줄을 이용하니, 내려가는 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도로테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 이상 흰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없자, 그녀는 불안에 떨며 굴렁쇠처럼 굴러 굴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다가가자 그녀는 입에 침을 삼켰다. 비명 한 번 지를 뻔했다.

구덩이 바닥, 마치 참호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남자가 총을 들어 올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총구를 앞의 흙더미 위에 겨누었다. 그리고 총구는 생캉탱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불러야 할까? 생캉탱에 알리라고?

그건 너무 성급한 처사였다. 자신의 존재를 자백하는 셈이 되고, 무장한 적과 불리한 싸움을 벌이게 될 테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다.

저쪽, 생캉탱이 절벽의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다. 마치 굴뚝 속으로 기어오르는 것처럼.

그의 검은 실루엣이 온전히 보였다. 마른 몸매에, 귀까지 깊숙이 눌러쓴 아코디언 모양의 모자.

남자는 어깨에 총을 얹고 조준을 오래했다.

도로테는 재빨리 뒤쪽의 바위 위로 뛰어올랐다. 온몸의 힘을 모아, 뻗은 두 팔로 바위를 밀었다. 바위는 균형을 잃고 곧장 아래로 쓰러졌다.

뚜껑을 덮듯 구덩이를 막아내린 바위는 총을 짓눌렀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를 가두었다. 도로테는 그 남자의 머리가 구덩이 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공격이 그저 미뤄진 것일 뿐, 적들이 곧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것임을 도로테는 직감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균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생캉탱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빨리… 빨리요… 도망쳐야 해요."

당황한 그는 로프의 한쪽 끝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뭐야? 대체 뭐라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그의 옷깃을 꽉 쥐었다.

"빨리 달아나, 바보야! 네가 누군가에게 목격됐어. 누군가 너를 향해 총을 겨누려고 했다고! 서둘러, 곧 쫓아올 거야."

"뭐라고? 쫓아온다고? 누가?"

"농부 차림의 남자가 있어. 저기 구덩이 속에 숨어 있잖아. 내가 돌덩이를 덮어치기 전까지, 그 남자는 총구로 너를 꿰뚫을 것처럼 노리고 있었어."

"내 말 들어, 미친놈. 밧줄을 가져가.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해."

두 사람은 돌덩이가 들어 올려지기 전에 계곡을 따라 도망쳤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재빨리 숲속으로 들어갔다.

스무 분 후, 그들은 강물에 들어섰다. 강물은 그들을 더 멀리, 자갈이 깔린 강가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그곳에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성캉탱은 화살처럼 재빨리 달아나고 있었지만, 도로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갑자기 터져 나온 웃음에 몸을 두 동강 내듯 구부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두 손은 가슴에 꽉 쥐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치아는 모두 드러나 있었다. 작고 고른, 하얗게 빛나는 치아들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헛간거리는 목소리로, 그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모자, 검은 양복, 맨발…… 너무 웃겨! 그 복장은 어디서 구한 거야? 신세지자, 너 정말 재미있어!"

그의 웃음은 신선하고 젊어 보였다.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고요함 속에서였다.

그녀 맞은편에는 생탕탕탱이 있었다. 키는 크고 다리가 길어 보였지만, 몸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한 듯했다.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금발이었으며, 입은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귀는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미로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검은 눈이 있었다. 그는 미소 짓으며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두려워하던 분노가 이 즐거운 소란으로 인해 자신에게서 돌이켜질 것 같아 기뻤다.

사실 그녀는 갑자기 동료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으로 그를 때리고, 탓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웃음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벌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었다.

"망할 녀석! 해적 같은 놈! 또 훔쳤지, 응? 선생님은 이제 무대 위의 돈벌이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나 봐요. 모자를 사입을 돈이나 보석이라도 더 챙겨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대체 무엇을 훔치셨어요, 도둑놈? 응? 말해 봐요!"

두들기고 웃기만 하던 그녀는 이제 분함을 다 쏟아낸 듯했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쑥스러운 표정이 된 생캉탱이 말더듬듯 입을 열었다.

"네게 말해 줄 게 뭐가 있어? 평소처럼 다 알아챘잖아."

"그래, 맞아. 어제 밤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갔지."

"그곳은 복도 끝, 지하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세면대였어. 아무도 없었지. 주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가는 계단을 따라 다른 복도로 들어갔어. 그곳은 둥글게 휘어진 복도였고, 모든 방의 문이 그 복도를 향해 열려 있었지. 내가 그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림이나 너무 큰 물건들뿐이었지."

"그래서 나는 작은 다락방에 숨었어. 그곳에서는 작은 안방이 보였는데, 그 안방은 가장 아름다운 방 중 하나였지. 사람들이 늦게까지 춤을 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어."

"정말 세련된 사람들이었지. 나는 천장에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볼 수 있었어. 여성들은 목을 드러낸 옷을 입고, 남성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

"결국 한 여성이 작은 안방으로 들어왔어. 그녀는 보석을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작은 금고에 넣었지. 금고는 그녀가 자물쇠의 세 글자를 소리 내어 말하며 열었어. 'R. O. B'."

"그녀가 안방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가자, 나는 그 세 글자만 있으면 되었지."

"그 후…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한 번 보여 줘." 그녀가 명했다.

그는 손바닥에 두 개의 귀걸이를 올려놓았다. 사파이어가 장식된 귀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들고 살펴봤다.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눈빛이 빛났다. 목이 말라 보이는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였다.

"사파이어라니, 정말 아름다워. 밤하늘이 가끔 그런 모습이거든. 빛이 가득한 짙은 남색으로."

그때 그들은 한쪽 구석에 거친 솜씨로 만든 허수아비가 서 있는 밭을 지나고 있었다. 허수아비는 바지만 걸치고 있었고, 팔 역할을 하는 빗자루 중 하나에는 조끼가 걸려 있었다. 바로 생캉탱의 조끼였다.

그는 전날 그 자리에 조끼를 두고,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인형의 긴 코트와 모자를 빌려 입었다. 그는 곧장 코트를 벗어 허수아미의 몸통에 입히고, 모자를 다시 써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조끼를 입어 도로테에게로 돌아갔다.

도로테는 여전히 찬탄하는 표정으로 다이아몬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곁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가져가, 도로테아. 네가 알다시피 난 도둑이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해 한 일이지. 네가 저것들을 보며, 만지며 기뻐했으면 해서. 네가 불쌍한 하녀처럼 고달프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 네가, 도로테아! 네가 줄타기를 하다니! 네가 부유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아, 도로테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뭐든 해줄 텐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다, 도로테아. 뭐든."

"그럼 솔직해지렴, 생캉탱."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소녀가 말을 이었다.

"정직하게 말해 봐, 생캉탱. 그게 내가 네게 바라는 전부야. 너와 말차 안의 다른 아이들은 내가 거둬 줬지. 우리 모두 전쟁 고아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어. 그리고 두 해 동안이나 함께 큰 길가를 떠돌았잖아. 불행보다는 행복이 많았고, 서로 장난도 치며 배부르게 먹었어.

하지만 오해는 없어야 해. 나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햇살처럼 빛나는 것만 좋아해. 너도 나와 같은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도둑질을 한 건 벌써 세 번째야. 이제 그만할 거야?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마. 아니라면 작별이야."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말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머리카락의 두 날개가 흔들리며 뛰노는 듯했다.

충격을 받은 생캉탱이 애원했다.

"당신은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래.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

"맹세할게요."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자. 네 말이 진실인 것 같아. 보석을 다시 가져가. 차 밑에 있는 큰 바구니 속에 숨겨. 다음 주에 우편으로 돌려보내. 샤니 성이 맞지?"

"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도 봤어요. 샤니 백작부인이라고."

그들은 손을 잡은 채 다시 길을 떠났다. 농부들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숨었고, 몇 번의繞回 끝에 드디어 차가 있는 곳 근처에 도착했다.

"들으세요," 생캉탱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싸우는 소리야. 늘 그렇듯 말이야. 그 무식한 놈들!"

그가 돌진했다.

"생캉탱!" 소녀가 외쳤다. "두들겨 패는 건 안 돼!"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잖아요!"

"응,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오히려 기쁨이야."

생캉탱에 가까워지자, 두 아이들은 나무 검으로 격투를 벌이던 것을 멈췄다. 그리고 함께 외치며 '공통의 적'을 향해 돌진했다.

"도로테야! 어머니 도로테! 생캉탱을 막아줘요. 이 녀석은 무식하거든요. 도와주세요!"

다음 순간, 혼쭐이 나는 소리와 함께 폭소가 터졌다. 아이들은 도로테에게 달려가 포옹을 나누었다.

"도로테, 먼저 안아주는 건 내 차례야!"

"아니, 내 차례야! 때려!"

그러자 도로테가 잔뜩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럼 대위는요? 혹시 깨웠어요?"

"대위? 그 녀석은 푹 자고 있어. 코골이 소리라도 들어봐."

도로 옆에서 두 아이들은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 놓았다. 철 삼발이에 매달린 냄비에서는 수프가 끓고 있었다. 네 사람은 뜨겁고 걸쭉한 수프에 빵과 치즈를 곁들여 먹으며, 커피 한 잔씩 마셨다.

도로테는 자신의 의자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의 세 친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사람 중 누가 먼저 일어나 그녀를 모실지, 누가 더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서로를 질투하며 경쟁할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공격할 정도였다.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싸움은 항상 도로테의 작은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뚱뚱하고 통통한 볼을 가진 두 소년은 같은 바지와 셔츠, 그리고 한쪽 어깨끈만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친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싸움을 벌였다.

도로테가 한 소년에게 너무 다정하게 말하거나, 다른 소년에게 지나치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다.

반면 성캉탱은 그들을 미워했다. 도로테가 그들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는 그들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도로테는 결코 성캉탱을 키스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고마운 동지로서의 정중한 우정, 신뢰에 기반한 따뜻한 정을 누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것은 친절한 악수나 행복한 미소로만 표현되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그런 것조차 자신의 같은 가엾은 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유일한 보상으로 여겼다. 성캉탱은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산수 시간이다." 도로테가 명령했다. "성캉탱, 의자에서 한 시간 자."

카스토르가 학급 책을 가져왔다. 폴룩스가 노트를 꺼냈다. 계산 수업이 끝난 뒤, 도로테가 메로빙거 왕조에 대해 강의를 했고, 이어 천문학 수업이 이어졌다.

두 아이는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였고, 성캉탱은 자신의 자리에서 잠들지 않으려 애썼다. 도로테가 가르치는 방식이 기발해서였다. 그녀는 결코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청중의 주의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스스로 배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지식과 식별력, 그리고 실용적인 지성의 유연함이 담겨 있었다.

열 시가 되자, 그 소녀는 말에 harness를 채우라고 명령했다. 인접한 마을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시청 앞의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면 제시간에 도착해야 했다.

“그리고 아직 밥도 안 먹은 대위까지요!” 카스토르가 외쳤다.

“좋아요. 선장은 늘 과식하거든요. 그 덕분에 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선장을 깨우면 기분이 엉망이 돼요. 그냥 자게 두는 게 낫죠.”

그들은 떠났다. 피-보르뉴라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늙어 빠졌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용감한 노새가 수레를 끌었다. 이 이름은 이 노새가 얼룩무늬 털에 한쪽 눈이 멀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수레는 무거웠고, 높은 바퀴 두 개 위에 올라타 흔들리며 쇳소리를 냈다. 상자들과 도구들, 사다리, 통들, 밧줄들로 가득 실린 채였다. 방금 새로 칠한 듯 깨끗한 외관에는 양쪽 면에 거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 도로테 서커스, 단장용 차량 ».

이 글씨를 보고 사람들은 뒤따르는 일행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짐꾼들과 장비들, 짐들과 맹수들이 몇 걸음 뒤따라 올 것 같았다.

생캉탱이 앞장섰다. 채찍을 든 채로. 도로테는 두 아이를 사이에 끼고 길가에서 꽃을 꺾으며, 그들과 행진곡을 부르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반시간이 지나자, 네거리 한복판에서 그녀가 명령했다.

"멈춰!"

"무슨 일이지?" 생캉탱이 묻는다. 그는 도로테가 안내판의 표지판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봐." 그녀가 말한다.

"볼 것도 없어. 곧장 가는 길이야. 우리 지도를 확인했거든."

"봐, 다시 봐. 샤니까지 2킬로미터."

"물론이지. 어제 성이 있던 마을이야. 다만, 우리는 그곳으로 갈 때 숲속의 지름길을 이용했지."

"너는 끝까지 읽지 않는구나. 샤니, 2킬로미터, 로보레 성."

그녀는 꽤 흥분한 기색이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로보레… 로보레."

"마을 이름이 샤니이고, 성 이름이 로보레일지도 모른다. 성티캉탱이 추측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너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어떤 우연이?"

"로보레라는 이름에 관해서야."

"그래?"

"음, 그 단어는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어. 특별한 상황에서 들었던 말이었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야, 도로테?"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설명했다.

"생트캥탱, 기억나지? 아버지가 전쟁 초기, 샤르트르 근처 병원에서 부상으로 돌아가셨잖아. 내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던 부상자 두 분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내내 한 마디를 반복하셨다고 했어. '로보레… 로보레…' 끝없이 이어지는 주문처럼, 무의식적으로 말이야.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로보레… 로보레'라고 중얼거리셨지."

"그래, 기억나. 네가 그 이야기를 해준 적 있어."

"그때부터 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죽는 순간 내 가엾은 아버지를 사로잡았던 그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공포였다. 도대체 왜였을까? 나는 결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 성-캉탱, 내 눈앞에 그 이름이 적혀 있

고,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겠지?”

성-캉탱이 놀라 물었다.

“뭐? 넌 거기 가려는 게 아니겠지?”

“왜 안 되지?”

“미친 짓이야, 도로테!”

젊은 소녀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성-캉탱은 그녀가 그 기묘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변명을 찾다가,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엄마, 트레일러 세 대가 나타나고 있어!”

그들은 실제로, 줄을 이어, 교차로 끝의 오목한 길에서 빠져나와 로보레 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학살 놀이’요, ‘소총 사격장’이요, ‘거북이 놀이’였다.

성 퀜탱과 도로테를 지나던 사격장 남자 중 한 명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기도 가시는 거야?”

“어디요?” 도로테가 물었다.

"성까지요. 마당에서 민속 축제가 열린대요. 자리 하나 잡아둘까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소녀가 답했다.

유흥상들이 사라졌다.

"왜 그래, 성 퀜탱?" 도로테가 속삭였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정말 왜 그래?" 그녀가 다시 물었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초췌해."

그는 더듬거렸다.

"헌병들이……"

같은 오목한 길로 두 기수가 교차로에 도착했다. 그들은 차갑게도 작은 무리 앞에서 행진하듯 지나쳤다.

"봐요, 도로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 우리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도 성으로 가는 길이야."

"당연하지. 파티가 열리고 있으니까. 경관 두 명이 있는 건 필수죠."

"아니면," 그가 비명처럼 탄식했다. "귀걸이 도난 사건이 밝혀져, 이미 헌병대에 전화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여자는 오늘 밤, 옷을 입으려 할 때야 비로소 잃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제발, 가지 맙시다." 가엾은 소년은 애원했다. "그건 함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구덩이 속에 있던 그 사람도 있고…"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만약 여기에 있다면? 나를 알아보면?"

"너는 변장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검은 양복에 모자를 쓴 가시밭 괴물을 잡아들이는 것뿐이지."

"이미 누군가에게 신고당하면 어떡해? 소조를 당하면? 그리고 귀걸이가 발견되면?"

"도착하자마자 공원 덤불 속에 던져버려. 내가 성주들에게 점쟁이를 가장해서 말을 걸 테고, 덕분에 그 부인은 자신의 귀걸이를 되찾게 될 거야. 우리 운명은 정해진 셈이지."

"하지만 만약 우연히…"

"젠장! 나도 가보고 싶다. 로보레이 성이라고 하는 저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그래도 나는 무서워… 너 때문에 두렵기도 해.”

“그럼 남아서.”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잘 가!”

그가 채찍을 쏘아 올리며 외쳤다.

제2장

성채는 도몽프 근처, 그림처럼 아름다운 오른 주(州)의 가장 척박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로보레'라는 이름은 18세기에 와서야 붙여졌다.

예전에는 이 성채와 그 옆에 모여든 마을 모두 '샤니 성'이라 불렀다. 마을의 광장은 사실 영주의 마당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철문이 열려 있으니 두 공간은 옛 해자를 메워 만든 넓은 광장 하나를 이룬다.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가파른 비탈길이 내려갔다.

안뜰은 원형으로 만들어졌고, 건물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뜰에는 돌고래와 인어 조각이 달린 오래된 분수가 멋스럽게 서 있었고, 고풍스럽지 못한 바위 더미 위에는 해시계가 세워져 있었다.

도로테 극단 악대가 앞장섰다. 즉,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두 대의 트럼펫을 불며 가능한 한 음을 빗겨 나갔다.

생캉탱은 검은 새틴 조끼를 입었고, 어깨에는 맹수들을 위압하는 삼지창을 메고 있었다. 또 다른 어깨에는 오후 세 시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도로테는 마차 천장 위에 서서 네 줄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마치 왕실 마차를 조종하듯 당당하게.

광장에는 이미 열 대 가량의 마차가 가득 찼다. 행상인들은 천막 막사나 놀이 시설인 그네, 회전목마 등을 급히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서커스단은 준비 작업 따위 하지 않았다. 단장은 신분증 직업란에 관할 시청의 도장을 받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고, 생캉탱은 말 '피-보르뉴'를 멍에서 풀어주었다. 두 음악가는 직업을 바꿔 치워 부엌일을 도왔다.

선장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정오가 넘어,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생캉탱과 카스토르, 폴룩스는 말차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테는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외출했다. 그녀는 계곡으로 내려가 돌판 아래 파인 구멍을 살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농부들이 모인 무리에 섞여들거나, 성 주변 정원이나 산책이 허락된 곳이라면 어디든 기웃거렸다.

생캉탱이 도로테가 돌아오자 물었다.

"그래? 네 조사는 어땠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성채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샤니-로보레 가문의 소유인데, 마지막 후계자인 옥타브 백작이 십이 년 전, 엄청난 부를 가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백작 부부는 전쟁 이후 성채를 보수하고 현대식으로 개조했죠. 어제 밤, 많은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밤늦게 모두 돌아갔고, 오늘이 바로 대중을 위한 개관식이랍니다."

"로보레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아무것도요. 아버지가 왜 그 이름을 발음했는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럼 공연이 끝나자마자 떠나자는 거야?"

생탕탕탱이 재촉하듯 물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고 싶어 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봐요. 이상한 게 몇 가지 눈에 띄거든요."

"그게 아버지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망설이듯 말했다.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어요. 어딘가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끝내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생탕캉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이다.

"들어봐. 나를 믿지? 결국 나는 아주 합리적이고 신중하다는 걸 알잖아. 직관도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좋은 눈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느껴.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는 걸."

"로보레라는 이름 때문에요?"

"이유가 있어서야. 다른 사정들도 내게 예상치 못한, 심지어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할지도 몰라. 그런 일이 생기면, 생캉탱, 너는 나를 따라야 해… 과감하게."

"말해 봐, 도로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한 마디만. 오늘 아침 너를 겨누었던 사람, 작업복 입은 남자가 여기 있어."

"뭐? 뭐라고? 여기 있다는 거야? 네가 본 거야? 헌병들과 함께?"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올 수도 있어. 그 반지들은 어디에 뒀어?"

"바구니 깊숙한 곳, 고무 마개가 달린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좋아. 공연이 끝나자마자, 울타리와 창고 사이에 있는 진달래 꽃밭에다 숨겨."

"그들이 사라진 걸 눈치챘나?"

"아직은 아니에요." 도로테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지시를 따르자면, 금고는 샤냐 백작부인의 부엌 옆 작은 거실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작부인 시녀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절도 사건 얘기는 전혀 없더랍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저기, 사격장에서 성 안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저쪽, 금발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그 아름다운 부인이 맞나요?"

"네. 맞아요."

"시녀들이 말하길, 그녀는 지극히 착하고 자선심이 풍부한 분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남편보다 더 그녀를 사랑한다고 해요. 남편은 별로 친근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누구 말인가요? 세 분이 계신데."

"가장 큰 놈이요. 온통 회색빛에 배는 유난히 불렀죠. 자, 총을 하나 들고 있네요. 카운트 양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먼 친척들이고요.

수염이 좀 회색으로 섞인 큰 키의 남자는 안경테가 거북등처럼 생겼어요. 그는 한 달째 성에 머물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가장 어린 놈이죠. 사냥용 벨벳 재킷에 부츠를 신고 있는데, 어제 막 도착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수염 난 남자는 특히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생캉탱이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녀가 바로 이를 억누르며 말했다.

"진정하세요, 생캉탱. 가까이 가 봅시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니까요."

군중은 사내의 재주를 구경하느라 그 막사 뒤로 몰려들었다. 그 사내가 명사수라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그가 쏜 열두 발의 총알은 과녁 중앙을 빙빙 돌며 명중했고, 군중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백작은 가식적인 겸손을 부리며 항의했다.

"아니, 아니요. 썩 좋지 않군요. 파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습관이 부족해서겠죠."

그 옆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냈다. 도로테가 맨 앞으로 쑥 들어와서, 안목 있는 사람이 내뱉는 듯한 작은 어조로 그 말을 던졌다. 듣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수염을 기른 신사는 그 여자를 백작과 백작부인에게 소개했다.

"도로테 여사입니다. 서커스 단장이지요."

옥타브 백작부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백작이 농담조로 물었다.

"서커스 단장으로서 과녁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취미로요."

"아! 여사님도 사격을 하시는군요?"

"때때로요."

"자칼을 향해?"

"아니, 파이프 머리 위에요."

"미스도 실수하지 않나요?"

"절대요."

"당연히 최상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명사수는 손에 잡히는 걸로 언제든 쏠 수 있죠. 이처럼 고장 난 기계조차요."

그녀는 낡은 권총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총알 여섯 발을 받아 들고, 샤니 백작이 쏘아놓아 찢겨진 과녁을 노렸다.

첫 번째 총알이 명중했다. 두 번째는 검은 원의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렸다. 세 번째는 또 명중했다.

샤니 백작은 깜짝 놀랐다.

"경이롭군요!… 저분은 조준할 시간조차 아끼시네요. 에스트레히에르 씨,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테가 '수염 기른 신사'라고 부르던 그 남자는 열광적인 표정으로 외쳤다.

"믿기 어렵습니다! 기적입니다. 미스, 당신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은 총알 세 발로 파이프 두 개를 부수고, 분수 끝에서 춤추는 달걀 껍데기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곧이어, 그를 감탄하게 만들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놀란 군중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도로테 서커스의 공연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사격 연습, 무용의 환상, 그리고 힘과 재주, 공중 곡예를 넘어선 모든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땅 위에서도, 말 위에서도, 하늘 위에서도요. 불꽃놀이, 레이스, 자동차 경주, 투우, 철도 습격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도로테는 오직 움직임,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환희로 가득 찼다. 생캉탱은 말차량 작은 문 앞에 철말뚝으로 지탱된 밧줄로 넓은 원을 그렸다. 성주들을 위해 의자를 마련한 이 서커스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들었다. 벤치에, 사다리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곳 어디에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도로테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먼저 두 기둥 사이에 팽팽하게 당긴 밧줄 위였다. 그녀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라켓에 맞고 더 높이 날아오르듯 튕겨 올랐다. 혹은 해먹에 누워 흔들리듯 몸을 낮추고, 앞뒤로 걸으며, 몸을 돌리고, 좌우로 인사를 건넸다.

그런 다음 그녀는 땅에 내려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은 모든 춤사위가 섞인 기적 같은 것이었다. 준비한 흔적도, 의도한 기색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동작과 자세가 무의식적이었다. 마치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런던의 댄싱 걸이 되기도 하고, 카스타네츠를 든 스페인 여인이 되기도 했다. 빙글빙글 돌며 뛰어오르는 러시아 무희가 되기도 했다. 성캉탱의 품에서는 바의 아가씨처럼 느리고 야성적인 탱고를 추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샬이나 머리모양을 살짝 바꾸는 작은 변화 하나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스페인인이 되

기도, 러시아인이 되기도, 영국인이 되기도, 아르헨티나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환상이었다. 우아함과 매력, 조화롭고 건강한 젊음, 그리고 관능과 정숙, 과잉과 절제가 어우러진 기쁨이 함께 빛났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낡은 북 위에 몸을 굽혔다. 두 사람은 손가락으로 낮고 둔한 멜로디 반주를 만들어 냈다.

관중은 말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며 감탄할 뿐이었다. 너무도 자유분방한 연기에, 그리고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모습에 모두 당황해 있었다.

그녀를 돌풍을 일으키며 피로하는 어린아이로 보던 찰나, 갑자기 긴 치마를 입은 숙녀로 변해 부채를 휘두르며 미뉴에트를 추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아이인가, 여자인가?

열다섯 살도 안 되었을까, 스무 살은 넘어섰을까?

그녀가 멈추고 말 그대로 차마 발 디딜 틈 없이 터져 나올 듯한 박수를 끊어 버렸다. 그녀는 놀이감 차 위에 뛰어올라, 엄격한 손짓으로 명령했다.

"조용히! 선장이 깨어나십니다."

좌석 뒤에는 긴 좁은 바구니가 있었다. 꼭 닫힌 작은 초소 같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바구니의 한쪽 끝을 들어 반쯤 들어 올리자 뚜껑이 살짝 열렸다.

"어때, 몬포콘 대위? 푹 잤어? 대위, 우리 연습 시간 좀 지각했잖아. 벌칙이야, 대위!"

그녀는 뚜껑을 완전히 열고 바구니를 세워 올렸다. 그러자 편안하게 만든 요람 같은 공간에서 일곱 여덟 살 먹은 꼬마가 보였다. 금발의 곱슬머리에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가진 아이였다. 아이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아이는 손을 뻗었다. 도로테가 아이를 끌어안아 가슴에 꼭 붙이고는 온 정성을 다해 키스했다.

"생탕탕탱 남작, 대위를 건네줄게요. 아침 식사 준비는 끝났나요? 그럼 대위 몬포콘을 데리고 연습을 계속 이어나가죠."

몬포콘 대위는 단골 코미디언이었다. 낡은 미국식 군복을 입은 그는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재킷과, 무릎까지 말아 올린 코르크 마개처럼 꼬인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옷차림은 너무 불편해서 열 걸음도 걷지 못하면 그대로 뉘여질 지경이었다.

몬포콘 대위의 코미디는 그 끊이지 않는 낙마와, 그 낙마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일어서는 모습에서 나왔다.

한 손에는 채찍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빵조각을 꼭 붙잡은 채, 입에는 잼이 잔뜩 묻은 채로 그는 '삐-본'을 해방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것은 곧장 폭소로 이어졌다.

"발 바꿔라."

"회전해… 폴카를 춰라. 일어서, 삐-본."

그는 '본'을 발음하지 못했다.

"이제 스페인 발걸음. 좋아, 삐-본… 완벽해."

말 이름이 '피-보르뉴'였던 이 말은 서커스 말로 승진한 듯,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원형을 돌며 trot을 계속했다. 사령관 역시 넘어지고, 떨어지고, 일어나고, 빵조각을 주워 들며 바쁘기만 했지, 따르라고 명령할 여유는커녕 스스로도 어쩔 줄 몰랐다.

작은 사령관의 태연함과 말의 흔들림 없는 행진이 너무도 재미있었다. 도로테는 그 광경을 보며 깔깔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관객들의 흥을 한층 더 돋워 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쇼였음에도, 젊은 소녀는 여전히 같은 열정과 유쾌함으로 이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훌륭해요, 사령관!"

그녀는 그를 격려하며 소리쳤다.

"정말 멋지군요! 이제부터는 집시 소녀 납치극을 해볼까요? 4바퀴로 끝나는 드라마예요. 생탕탕탱 남작님, 당신은 악명 높은 납치범이에요."

끔찍한 납치범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피-보르그의 등에 그녀를 눕히고 단단히 묶은 뒤, 자신도 말에 올라탔다. 짐에 짓눌린 말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성-캉탱 남작이 외쳤다.

"말을 부채질해! 배를 땅에 붙이고!"

한편 대위는 태연하게 장난감 총을 꺼내, 끔찍한 납치범을 향해 조준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성-캉탱 남작은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인은 고마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맞춤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도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참여한 다른 장면들이 이어졌다. 모든 공연은 같은 정신, 즉 과장된 풍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들을 즐겁게 하거나 매료시키는 것들의,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캐리커처였다. 거기서는 생동감 넘치는 상상력, 통찰력 있는 관찰력, 그리고 풍자와 희극을 알아보는 안목이 드러났다.

"카피탱 몬포콘, 가방 하나 들고 헌금을 걷어라. 카스토르와 폴룩스, 드럼 소리를 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맞춰라. 생캉탱 남작, 주머니 도둑 조심!"

카피탱은 군중 사이를 끌며 거대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 지저분한 동전과 지폐들이 그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마차 위에서 도로테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부 여러분, 도시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관대한 고장을 떠나는 일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가지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로테 여사(그녀가 고개를 숙였다)는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나 일류의 과시적 공연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지력과 초감각적 능력이라는 가장 드문 재능을 지닌 분입니다.

손금, 카드, 커피 찌꺼기, 필적 분석, 점성술.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걷어내고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그녀의 마법 지팡이 하나로 보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특히 그녀는 가장 깊은 곳, 오래된 성의 돌 틈새,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감옥의 깊은 구석에서, 아무도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환상적인 보물을 찾아냅니다.

이해하신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이미 세 소년들은 소품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생캉탱이 다가왔다.

"우리 곧 떠나자. 서둘러! 경감들이 내 눈치를 한 번도 놓지 않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내 마지막 연설을 듣지 못했나?"

"그리고?"

"그리고? 자, 이제 상담이 시작될 거야. 도로테, 초월적 통찰력을 가진 점쟁이 말이지. 어, 고객들이 오네. 그 신사랑 벨벳 옷 입은 남자. 그 벨벳 옷 남자가 마음에 들어. 정말 예의 바르고, 갈색 가죽 부츠를 신었는데 그건 전혀 허세 부리지 않아. 완벽한 신사 농부야."

수염 난 신사는 분개하여 화를 터뜨렸다. 그는 젊은 소녀를 지나친 칭찬으로 둘러싸면서도, 그녀를 불편할 정도로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했다.

"막심 드에슈트라이히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소개했다.

"라울 다베르누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트부인 백작부인의 명을 받아 도로테에게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다.

"혼자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 아닙니다." 라울 다베르누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반박했다. "우리 사촌이 당신의 모든 동료들을 직접 축하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미스?"

도로테는 약속했다. 잠시 분장을 하고 성으로 가겠다고.

"아니, 아니요. 분장은 필요 없어요!" 드에슈트라이히가 외쳤다. "지금 그대로가 최고예요… 조금 흐트러진 그 복장이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말 예쁘세요!"

도로테는 얼굴이 붉어졌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칭찬은 사양합니다, 선생님."

"칭찬이 아닙니다, 미스. 우스갯소리죠.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례일 뿐입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라울 다베르노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생캉탱, 조심해."

도로테이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남자, 조심해야 해."

"왜?"

"오늘 아침, 총으로 너를 쏘려던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생캉탱은 총알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정말?"

"다름아니죠. 다리를 조금 끌며 걷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들킨 걸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가 공연 중您在 뛰어노는 모습을 본 순간, 절벽 옆에서 곡예를 하던 '검은 악마'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본 그는 곧 저를 떠올렸죠. 제가 그의 머리 위에 돌덩이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니까요. 오후 내내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오만한 눈치였죠."

생탕탕이 격분했다.

"그럼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당신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내가 그를 알아봤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그가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당신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점을 봐주고, 재미를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무슨 목적에서요?"

"그들이 제게 말을 걸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나는 알 수 없어. 그들한테 물어봐야지."

"도둑맞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해? 우리를 심문하면?"

"생트캥탱, 대장의 나무총을 가져와. 유모차 앞에서 경호를 서. 기병대가 다가오면 쏴, 친구야!"

옷을 다 입은 그녀는 생트캥탱을 데리고 성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밤사이 벌인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들려주었다. 그 뒤로는 카

스토르와 폴룩스가 따라왔고, 그 뒤를 이어 대장이 따라왔다. 대장은 끈으로 작은 아이용 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수레는 아주 작은 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성의 큰 거실에서 환대를 받았다. 백작부인은 도로테가 말한 대로, 정말로 매력적이고 다정하며 아름다움과 매혹을 갖춘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잔뜩 챙겨주고, 젊은 소녀에게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도로테는 마차 위에서 그랬듯, 손님들 앞에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짧은 치마와 코르셋을 검은 큰 숄로 감싸고, 허리에 띠를 동여맸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 우아한 목소리, 올바른 어휘 사용(때때로 슬랭이 더해져 오히려 맛을 더했다), 그리고 활기찬 모습, 눈빛에 담긴 지혜로움. 이 모든 것이 백작부인을 경악하게 했고, 세 남자를 매료시켰다.

"미스, 만약 당신이 미래를 점칠 수 있다면, 저 역시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자신할 수 있소. 당신의 성공은 확실하오. 아, 만약 당신이 저에게 맡긴다면, 파리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소. 저는 모든 계층에 인맥이 있고,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미스, 제가 당신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겠소?"

"매력적이지도, 싫증 나지도 않아요. 당신을 모르니까요."

"알면 신뢰하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왜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뒤집어 펴고, 몸을 숙여 열린 손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탕함… 이익에 대한 집착… 양심 부재."

"하지만 저는 항의합니다, 자매님! 제게 양심 따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요!"

"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운이 없다고도 말하나요?"

"전혀 없습니다."

"뭐요! 저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군요."

"젠장! 그럼 내 장래는?"

“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몇 초면 끝납니다.”

“그럼 사고사라는 뜻인가요?”

“어떤 사고 말인가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를 보십시오. 검지 손가락 아래쪽요.”

“무슨 표시가 있죠?”

“ 교수형의 줄.”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드에슈트라이히는 기분이 좋았고, 옥타브 백작도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자매님. 이 늙은 방탕자에게 교수형을 보여주다니, 정말로 투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저하지 않고…”

그가 아내를 눈으로 물었고, 계속 말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왜 이 자리에 불렸는지 이유를 말해 주시오." 도로테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마무리했다.

백작이 반박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소, 소녀야. 당신을 초대했던 것은 단지 당신을 보고 싶어서였소."

"아마도 내 작은 마법 같은 재능을 좀 써보려는 욕심도 있었겠지요."

옥타브 백작부인이 끼어들었다.

"네, 맞소, 소녀야. 당신의 마지막 선언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소.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 그저 호기심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을 뿐이오."

"부인, 제 작은 재능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건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은 풀어 드릴게요."

"어떻게요?"

"단순히 당신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암시도, 최면 수면도 전혀 없단 말이오?"

"아니요, 마담. 적어도 지금은요. 나중에는 다시 봐야죠."

도로테는 산트캉틴만 곁에 두고 아이들을 밖으로 놀러 보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들으시죠, 마담."

"그렇게 간단히? 다른 절차는 없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마들모아젤."

백작 부인은 가볍게, 하지만 그 가벼움이 꼭 진실인 것만은 아닌 듯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가씨, 당신도 알 수 없는 감옥과 낡은 돌벽, 그리고 숨겨진 보물에 대해 말씀하셨죠. 로보레 성은 수백 년 된 유서 깊은 곳이라, 과거에는 다양한 모험과 비극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성의 누군가가 우연히 작은 구석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설적인 보물을 남겨두지는 않았을까요?"

도로테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비례해, 더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만약 의심이 섞여 있거나, 질문이 제대로 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떤 의심이요? 아가씨, 저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다.

"당신은 마치 갑자기 들린 호기심에 사로잡힌 듯, 실체 있는 근거 따위 없이 저를 질문하셨네요.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 성에서는 이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옥타브 백작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수십 년 전,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절의 일이겠지."

"아닙니다. 최근의 발굴입니다." 도로테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에 산 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아니 몇 시간의 문제죠."

백작 부인이 재빨리 입을 열었다.

"내 딸, 당신에게 확언하건대, 우리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사를 한 것이군요."

"누구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로테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마담. 제게는 별 상관도 없는 일에 간섭한 점요. 이건 제 단점 중 하나랍니다. 생트캥탱이 늘 그러죠. '네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파고드는 버릇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당할 거야'라고요."

"하지만 어쨌든요.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공연 시작 시간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거닐며 구경도 하고, 눈여겨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백작과 손님들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도로테는 계속했다.

"저는 안뜰에 있는 아름다운 고대 분수를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수대의 물을 받는 대리석 받침대 주변에 흙이 파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 파인 자국들 아래로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탐사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흙은 다시 덮여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땅이 부풀어 오른 흔적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백작과 손님들은 다시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도 받침대를 수리했거나, 배관 공사를 했거나…"

"아닙니다." 백작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이 분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젊은 아가씨가 이와 비슷한 다른 흔적들도 찾아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같은 작업이 조금 더 아래쪽에서도 있었어요. 해시계를 받치는 조약돌 기단 밑쪽이요. 거기서는 그 조약돌 사이로 구멍을 뚫는 시추 작업도 했죠. 철제 막대 하나도 부러졌는데,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왜요?" 백작부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왜 하필 그 두 군데인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지? 단서라도 있는가?"

대답은 바로 나왔다. 도로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자신의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했다.

"이 조사의 단서는 분수 대리석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 보시겠어요? 기둥 주위에 인어들이 둘러싸고 있죠? 맞죠? 그런데 그 기둥의 받침돌 한 면에 글자가…… 거의 지워진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백작부인이 외쳤다.

"글자는 분명히 있어요. 마모되어 대리석의 균열과 섞여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한 번 눈치채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 말입니다."

"무슨 단어죠?"

"포르투나(Fortuna)라는 단어입니다."

세 음절이 경악한 침묵 속에 길게 울려 퍼졌다. 백작이 이를 갈며 단어를 되뇌었다. 그의 시선은 도로테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도로테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 '포르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해시계 기둥 위에도 적혀 있어요. 글씨가 더 희미해서, 읽기보다는 추측에 가깝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각 글자가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작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 이미 밖으로 나간 그는 열린 창문을 통해 분수 쪽으로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시 분수를 훑어보고는 해시계를 지나 급히 돌아왔다.

"소녀가 말한 것은 모두 정확한 사실입니다. 두 곳을 모두 뒤졌죠…… 그리고 제가 처음 보고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포르투나'라는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수색의 이유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았고…… 어쩌면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소녀가 차분하게 단언했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이 드에슈트뢰허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 소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뜻밖의 이 대결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

그는 시선으로 그녀를 도발하며, 샤니 경이 던진 질문을 그대로 되물었다.

"그래,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담대하게도 도로테는 그 도발을 받아들였다.

수색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성벽 아래 계곡에는 절벽에서 떨어진 돌들 사이에 오래된 판석이 하나 있다. 분명히 무너진 건물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판석 밑바닥에도 '포르투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 판석을 치우면 된다. 그러면 아주 새로 파낸 구덩이가 나올 것이다. 손으로 문질러 지운 발자국 자국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이 마지막 한 방에 샹니 부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잠시 동안 낮은 목소리로 에슈트뢰허와 라울 다베르누아 형제와 의논했다.

성캉탱은 골짜기 사건과 점퍼를 입은 남자의 은신처 이야기가 꺼져 나오자, 큰 안락의자 쿠션들 사이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도로테가 미쳐가고 있었다! 점퍼를 입은 남자의 행방을 가리키는 것은 곧 도로테와 성캉탱 자신들의 발자취를 가리키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가!

그런데 도로테는 주변의 소동과 불안 속에서도 매우 평온했다. 그녀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듯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에서 발을 헛디디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자, 미스." 백작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 주셨죠. 경고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뿐입니다." 그녀가 답했다.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백작부가 인정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도움을 더 넓혀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알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방식으로요?"

백작부가 미소 지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작은 마녀의 재능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당신은 믿지 않으셨죠, 마담."

"하지만 지금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테가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시도해 봅시다."

"좋아요.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너그러운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생탕탕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앞에 두르고는 단단히 동여맸다.

"초능력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맹인이어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일수록 더 잘 보이는 법이죠."

그리고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덧붙였다.

"질문해 주세요, 마담. 최선을 다해 대답하겠습니다."

"여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녀는 두 팔꿈치를 책상 위에 괴고, 이마를 두 손으로 감쌌다. 자작부인은 곧장 물었다.

"누가 파냈습니까? 분수 아래, 그리고 해시계 아래에서 발굴 작업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분이 흘렀다.

그녀는 온 힘을 모아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주변的一切을 떨쳐내고 고요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점술가의 신비로운 어조도, 몽유병자의 몽롱함도 섞이지 않은, 오직 생각에 잠긴 목소리였다.

"광장 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쪽은 이미 며칠 전부터 덮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협곡 쪽은…"

"협곡?" 백작부가 물었다.

"돌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삽으로 파고 있죠."

"남자요? 누구예요? 생김새는?"

"아주 긴 앞치마를 입고…"

"얼굴은?"

"목도리가 모자 챙까지 덮고 있어요. 눈은 아예 안 보여요."

"그가 일을 멈추면, 돌판을 다시 덮고 삽을 들고 떠납니다."

"다른 건 없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걸 확신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럼 그는 어디로 향합니까?"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성의 철문 앞에 도착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어요!"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아침이에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오렌지 온실 쪽으로 향해요. 거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정원사가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 말이에요."

"그 남자는 삽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어 벽의 못에 걸어두죠."

"그건 정원사가 될 수 없어요!" 백작부가 외쳤다. "얼굴은요?…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그럼 옷차림은요?…"

"옷차림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멀어지고… 사라져요."

소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온 신경을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사라져 가는, 마치 유령 같은 실루엣 말이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성의 현관 계단이에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리고 계단이 나와요. 작은 창문 몇 개로만 희미하게 밝은 긴 복도요. 그런데 벽에 그림이 있네요. 말들이 질주하고 있고, 붉은 옷을 입은 사냥꾼들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네요. 자물쇠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확실히 하인일 거예요." 백작부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도에 그림이 있으니, 1층 방이겠죠. 그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셔터가 닫혀 있더군요. 남자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벽난로 위에는 달력이 있고…… 오늘이 수요일이더군요. 그리고 금기둥이 달린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제 소파실의 시계예요." 백작부가 속삭였다.

"시계는 다섯 시 사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바로 반대편으로 비추더니, 쌍문이 달린 자단나무 가구를 비췄죠. 남자가 그 문을 열고 금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도로테를 듣는 이들은 긴장감에 휩싸여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얼굴마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젊은 여자가 이 모든 광경을 묘사해 내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성 안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소파실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묘사하는 것들은 그녀라면 알 수 없어야 할 사물들이었다.

부인은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금고가 잠겨 있었어요. 확신합니다. 보석을 치운 뒤 제가 직접 잠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 아직도 선명히 들리는 것 같아요."

"잠겨 있었죠. 하지만 열쇠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자물쇠의 숫자를 엉망으로 맞춰뒀으니까요."

"아닙니다. 열쇠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열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가요? 어디에?"

"뚜렷이 보입니다. R, O, B. 바로 '로보레'의 앞 세 글자입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네요. 누군가 손을 넣더니… 집어 듭니다."

"뭐요? 뭐요? 무엇을 집어 든 거예요?"

"귀걸이 두 개입니다."

"사파이어 두 개, 맞죠? 사파이어 두 개요?"

"네, 부인. 사파이어 두 개입니다."

심각하게 걱정하는 표정, 경직된 동작으로 백작 부인은 재빨리 문을 나섰다. 남편과 라울 다베르누아도 그 뒤를 따랐다.

도로테는 오크타브 백작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베르누아씨. 이 초능력 사례는 정말 기이한 게 맞소."

"정말 기이하죠."

동반자였던 드에스트라이허가 되풀이했다. 그는 부인들을 따라 문밖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 안으로 몇 걸음 되돌아왔다. 분명한 의도로, 그는 젊은 소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도로테는 스카프를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온 사람처럼 눈을 비볐다. 수염 기른 신사와 도로테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망설이다가, 신사는 다시 문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 도로테를 향해 돌아선 그는 두꺼운 수염을 오래도록 쓰다듬더니, 끝내 기쁜 미소를 터뜨렸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도로테도 수염 기른 신사와 똑같이 웃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물었다.

"당신이 웃으니까 저도 웃어요. 하지만 왜 웃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소녀야. 나는 이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는 거야."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죠?"

드에슈트라이커는 두세 걸음 더 다가서며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슬래브 아래를 파고든 자와 이 밤에 성에 침입해 보석을 훔친 자를 한 인물로 동일시한다는 발상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젊은 여자가 물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탕탕 씨가 저지른 도둑질을 미리…."

"생드레슈 씨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지." 도로테가 말을 이어받았다.

수염 기른 신사는 찌푸렸지만 항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 창문을 통해 검은 실루엣이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머리에 슬래브를 맞은 한 신사를 본 거죠."

"완벽하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을 서로 연결 지으려 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 아주 위험한 짓이죠."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공격에는 반드시 반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각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두 개의 귀걸이 절도 사건을 제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도 각오하신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호, 그럼 제가 이 귀걸이가 당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서둘러 증명해야겠군요?"

"서둘러 보세요."

그가 다시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럼 우리는 적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적이죠."

"왜요? 당신은 나를 아직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당신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막심 드 에슈트라이크 경입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당신도 사촌들이 모르게 몰래, 자신이 찾아서는 안 될 것을 찾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떤 자격으로 묻느냐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손을 저었다. 화인가, 경멸인가.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누르며 투덜거렸다.

"당신에게 불행이 닥치길 바랍니다. 생캉탱에게도요. 곧 봐요."

그는 더 이상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자취를 감췄다.

이토록 거칠고 격렬한 몸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로테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장난기 어린 본능이 발동한 듯 그녀는 코를 찌르고 피에로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행동과 일의 진행에 만족한 듯, 유리를 든 진열장을 열었다. 그녀는 소금병을 하나 집어 들고 성-캉탱이 앉아 있는 안락의자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 좀 쉬세요, 친구."

그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재채기를 하며 비틀거렸다.

"우린 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캉탱. 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해?"

"그 녀석이 우리를 고발할 거야."

"물론이지. 그는 우리를 의심하며 수사를 이끌겠지. 하지만 고발까지 하겠느냐? 오늘 아침 그가 본 것을 말하겠느냐? 그는 용기가 없어. 안 그래?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하면 되지."

"도레테, 보석 도난 사실을 알리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었어?"

"언젠가 들킬 일이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의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잖아."

"그건 우리한테 의심이 몰리는 거야, 도레테."

"그럼 그 수염 난 신사를 고발하면 되지."

"증거가 필요해."

"그건 내가 마련할게."

"정말 네가 그를 미워하는구나!"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를 무너뜨리고 싶을 뿐이야. 생탕탕탱은 위험한 인간이야. 직감이 그래. 그리고 내 직감은 잘 맞거든. 그는 모든 악덕을 가졌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이지. 샤니의 사촌들을 배신한 적도 있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그 악당에게서 구해내고 싶어."

생탕탕탱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정말 놀랍군. 너는 조합하고, 계산하고, 행동하고, 예측해.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전혀 근거가 없어, 친구. 그냥 내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운에 맡겨 결정하지."

"그런데도…"

"목표는 분명해. 그게 전부야. 내 앞에 네 사람이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공통된 비밀로 묶여 있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로보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나는 그 그룹에 아버지도 있었는지, 있다면 그 딸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생겼지."

"지금까지 네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나를 밀어냈어. 그들의 신뢰를 먼저 얻고, 다음엔 그들의 비밀을 꺼내보려고 불가능한 시도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영하."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갑자기 그 미소 짓는 귀여운 소녀의 얼굴에서, 숨겨졌던 에너지와 결의가 드러났다.

"성공할 거야, 생캉탱. 내게 맹세할게. 난 아직 모든 걸 다 말한 게 아니야. 한 가지 더 밝혀내면, 그들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몰라."

"무슨 말이지, 도로테?"

"나도 잘 알아, 친구."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시선은 열린 창밖으로 향했다. 창가에서는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싸우고 있었다.

성당 안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람의 외침이 들려왔다. 하인이 뜰을 가로질러 달렸고, 대문을 닫았다. 덕분에 성 안에는 군중의 일부와 세 네 대의 마차, 그중에는 도로테의 서커스 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헌병들이요… 헌병들이요…" 생탕탕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기요… 저들이 사격장 막사를 뒤지고 있어요."

"에스테르헤르도 그들과 함께 있군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오, 도로테, 네가 뭘 한 거야?"

"전 다 괜찮아요." 도로테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 사람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 그 비밀이 내 것도 같아. 내가 그걸 알고 싶어. 혼란과 반전, 모든 게 내 편이야."

"하지만…"

"젠장, 생탕탕탱. 내 인생이 오늘 결정나. 떨지 말고 기뻐해… 폭스트롯 한 판이야, 친구."

그녀는 그의 허리를 감싸 쥐고, 다리가 축 늘어진 인형처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를 강제로 빙글빙글 돌렸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몬포콘 대위가 창문을 넘어 들어섰다. 그들은 그 부부 주변을 에워싸고서는 '카푸신'의 선율을 따라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롱에서, 이어 넓은 현관으로까지 춤사위가 퍼져 나갔다.

하지만 생캉탱의 또 다른 기절이 춤꾼들의 기세를 끊어놓았다.

도로테는 성이 났다.

"또 뭐야?"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면서 물었다.

그는 말더듬듯 말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 난 네가 이렇게 겁쟁이인 줄 몰랐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보석들이요…"

"미친놈! 네가 그걸 덤불 속에 던져버렸잖아."

"네가 던진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지시하신 대로 쓰레기통을 뒤졌죠. 제가 직접 넣었던 자리였는데,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작은 종이 상자도 사라졌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도로테의 표정이 굳어졌다. 위기가 눈앞에 닥쳤음을 깨달은 것이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두려워서요. 당신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아, 생탕탕탱. 너 정말 바보 같구나, 내 아들아."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귀걸이를 쓰레기통에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곳, 유람차 안 어딘가에 둔 게 틀림없어요. 온갖 곳을 뒤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찾을 거예요. 그들, 즉 헌병들이요…"

소녀는 절망에 빠졌다. 귀걸이를 손에 쥔 채, 도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체포와 투옥은 불보듯 뻔했다.

"저를 버리세요. 빌어요, 생트캉탱이 중얼거렸다. '전 그냥 바보일 뿐이에요. 범죄자요. 저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저에게 뒤집어씌우세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때 현관문 입구에 가드랑의 중사가 나타났다. 성의 하인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말하지 마. 도로테이가 속삭였다. '절대 입을 열지 마.'"

중사가 다가왔다.

"도로테이 양…"

"전입니다. 중사님. 무엇을 원하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크타브 백작 부인이 남편과 라울 다베르노와 함께 달려왔다.

"아니요, 아니에요, 병장님!" 그녀가 소리쳤다. "저는 그 어떤 행동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이 미스에게 불신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면요. 이건 오해예요."

라울 다브르노와도 동조하며 항의했다. 하지만 옥타브 백작이 입을 열었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이건 단순한 형식일 뿐입니다. 병장이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치예요. 도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도둑 사건은 미스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미스께서 지난 한 시간 동안 우리에 대해 꾸며지는 음모를 모두 미리 경고해 주셨잖아요."

"왜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녀를 심문하지 않습니까?"

앞서 드 에스트레슈가 말했듯이, 귀금속이 금고에서 훔쳐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로테가 무의식적으로 귀걸이를 끼고 나갔다가, 밖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주워 갔을 수도 있고요.

간수들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백작과 백부인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당황해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로테가 그들을 구해 주었다.

"백작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역할이 의심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마녀의 재능으로 예지력을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백작부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다.

"수색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마담. 그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곡예사들에게는 각오해야 할 위험 중 하나죠. 하지만 그걸 보시면 마음이 상하실 테니까요. 다만 제가 심문을 받을 때쯤이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하시게 되실 테니 그 때 저희에게 합류해 주실 수 있나요?"

"약속할게요."

"명령대로 하죠, 병장."

그녀는 네 명의 동료들과 여단장 한 명을 데리고 떠났다. 생캉탱은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초췌해 보였다.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손목에는 끈을 동여맨 몬포콘 대위는 짐 싣마차를 끌며 미국 노래를 흥얼거렸다. 모든 작은 사건은 결국 잘 끝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내처럼 여유로웠다.

마당 끝, 열린 대문 너머로 마지막 농부들이 떠나고 있었다. 문 근처에는 순경이 서 있었다.

야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막사 주위에 모여 있었고, 둘째 여단원은 오렌지나무 온실에서 그들의 서류를 검사하고 있었다.

자신의 유목차 앞에 다다랐을 때, 도로테는 드에슈트뢰이커가 하인 두 명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당신께서 수색을 지휘하시는 거죠?"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마들모아젤……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는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럼 결과에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그녀는 병장에 말을 돌렸다.

"열쇠는 없습니다. 도로테씨 서커스에는 자물쇠가 없어요. 문은 모두 열려 있고요. 손에는 아무것도,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장은 이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하인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수색했고, 에스테라이히도 거리낌 없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마들모아젤." 그는 소녀를 따로 불러냈다. "당신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이든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군요." 그녀가 비꼬듯 말했다.

"어떤 뜻이죠?"

"음, 우리 대화 기억나시죠? 범인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당신입니다."

드에슈트라이히는 이 소녀를 무시할 수 없는 적수로 여겼고, 그녀의 협박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우 친절했고, 심지어 우아했으며, 그녀와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수색은 끝없이 치열했다.

그의 손짓에 하인들이 바구니와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상자에 담긴 초라한 옷가지들을 꺼냈다. 그 옷들은 소녀가 자신을 꾸미기

위해 즐겨 입었던, 빛나는 색채의 스카프와 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유람차의 벽과 천장, 매트리스, 말인 피에보르그의 Harness, 귀리 자루, 식량까지 모두 샅샅이 뒤졌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네 명의 소년들을 뒤졌고, 하녀 한 명이 도로테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모든 수색은 헛수고였다. 귀걸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건 뭐야?" 그가 큰 바구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바구니는 차 아래에서 흔들리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도로테가 발끝으로 살며시 성토를 차올랐다. 성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도망치자." 그가 더듬거렸다.

"너 미쳤어. 고리가 이미 없잖아."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너 정말 미쳤어. 그런 경우엔 잘못 볼 일이 없지."

"그럼 상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네 눈이 멀었니?"

"너도 보이는 거야?"

"물론이지. 네 코가 얼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차 안에?"

"바닥이야. 너로부터 열 걸음쯤 떨어진 곳, 수염 남자의 다리 사이."

그녀는 시선으로 몽퐁공 대위의 수레를 가리켰다. 아이는 팽이 놀이에 빠져 그 수레를 방치한 채였다. 수레 위에는 작은 소포와 여행용 가방, 미니 트렁크, 끈으로 단단히 묶인 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데스트레히의 발치 근처,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소포들 중 하나가 바로 종이 상자였다. 안에는 버클들이 들어 있었다. 몽퐁공 대위는 그 오후, 자신이 부르는 '견인 장비'에 이 상자를 추가해 놓았던 것이다.

도토레는 뜻밖의 발견을 생트캥탱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과 맞서 싸우는 남자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수였다.

데스트라이셔가 망원경 너머로 노리고 있던 것은 도토레가 아니었다. 그의 표적은 도토레의 동료, 생트캥탱이었다. 데스트라이셔는 곧장 그 남자의 불안과 흔들림을 간파해냈다.

반면 도토레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생트캥탱이 언젠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말지는 않을 것인가?

그렇게 되었다.

작은 붉은 고무 상자를 보고, 생탕탕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모래 위에 굴러다니는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누가 쉽게 뜯어보겠는가. 손이 가는 대로 아무나 집어 들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에스테르레는 의심 없이 그 상자를 여러 번 발로 건드리며, 바퀴에 걸려 넘어지듯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대위는 그를 향해 거친 목소리로 꾸짖었다.

"야, 그 사람아. 네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들이받았다고 해. 그러면 너 뭐라고 하겠어?"

생캉탱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뒤스트레슈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다. 귀걸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우연의 보호와, 모르고 동조한 대위의 도움 속에.

하지만 어느 상자에 들어 있었을까? 종이 상자 하나가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 뒤스트레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재빨리 몸을 숙여 상자를 집어 들었다. 일어서자마자 그는 은밀한 손짓으로 상자를 열었

고, 하얀 작은 돌들과 조개들 사이에 두 개의 사파이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도로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창백해져 있었다.

제4장

"도망갑시다." 생캉탱이 다시 말했다. 그는 박스 위에 주저앉아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도로테가 속삭였다. "피에보르네를 매고, 우리 다섯 모두 마차 안에 숨어요. 그리고 벨기에 국경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거죠."

그녀는 적을 결코 눈에서 떼지 못했다. 자신은 이미 진 것이라고 느꼈다. 그 남자는 말 한마디면 그녀를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했던 모든 위협은 무의미해져 버릴 터였다. 도둑의 고발이 무슨 소용이랴?

상자를 든 그는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몸을 기우리며, 냉소적인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굴복하여 빌어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는 도전과 도발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양이었다.

"말하면 넌 끝장이다."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 모든 장면을 보지 못한 병장에게 말을 건넸다.

"병장, 다 끝났으니 축하합시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미스에게 유리한 결과였죠. 천하에 귀찮은 일이라니!"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죠."

샤니 백작 부인이 다가와 말했다. 백작과 라울 다베르노이도 함께였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친애하는 사촌님. 당신 남편과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의문을 풀어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옥타브 백작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말입니다. 다만 몽포송 씨가 가지고 놀던, 다로테 미스가 기꺼이 저에게 건네준 아주 기묘한 작은 물건 하나 있을 뿐이죠. 맞죠, 미스?"

"네."

다로테가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맞춰 고쳐 입힌 고무줄이 감긴 종이 상자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백작부인에게 건넸다.

"내일 아침까지 이걸 맡아 주실 수 있겠어요, 친애하는 친구여?"

"왜 제가 맡아야 하죠? 당신이 맡으면 안 되나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가 말했다. "이 상자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의 인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열어볼 때까지요."

"그렇게까지 고집하시나요?"

"네… 다른 생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좋아요." 드 샤니가 결론을 내렸다. "만약 이 아가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부인." 도로테가 대답했다. 위기가 내일로 미뤄졌음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상자 안에는 별 볼일 없는 것들, 흰 돌조각과 조개 껍데기밖에 들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분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고, 게다가 그 분이 확인을 원하시는 거라면, 이 작은 만족쯤은 들어드려야죠."

하지만 브리가디에르에게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었다. 신원 확인 서류를 검토하고, 소지품을 수색하며, 규

정을 철저히 지키는 일. 이 부분만큼은 그에게 장난이 될 수 없는 엄숙한 문제였다.

한편, 도로테는 샤니 가문과 그 사촌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반면 로보레의 손님들은 몇 시간 전부터 자신들을 지배하고 동요하게 만든 그 낯선 인물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진정한 이름은 무엇일까?

정교하고 지혜로우며, 유창한 사고와 우아한 매너를 지닌 이 여성이 어찌 네 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길을 떠돌고 있었단 말인가?

도로테는 유레트 서랍에서 등록부 덮개를 꺼내 팔 아래 끼고 있었다. 모두가 빈 오렌지하우스 대강당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덮개에서 서명으로 가득 차고 도장이 여러 군데 찍힌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병장에게 내밀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병장이 잠시 후 물었다.

"부족한 건가요? 오늘 아침 시청에서 비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시청에서는 뭐든 다 좋다고 하죠." 병장이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럼 이 이름들은 대체 뭐죠?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니, 누가 그렇게 이

름을 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생캉탱 남작, 곡예사'라니요!"

도로테가 미소 지었다.

"그가 바로 그 이름이고 직업입니다."

"생캉탱 남작?"

"그는 생트캉탱에 사는 플롬비에(배관공) 바론의 아들이었소."

"그렇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겠소?"

"불가능하오."

"왜요?"

"아버지는 점령 기간 중 사망하셨다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소. 가족은 아무도 없었소. 영국군이 그 아이를 입양했죠. 전쟁이 끝물쯤에는 바르르뒤크의 한 병원에서 부조리(부조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였죠. 제가 그 아이를 거두었소."

소대장은 중얼거리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를 계속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1918년, 독일군이 샤를르를 향해 돌진할 때, 그들은 폭풍처럼 몰아친 전장에 휩쓸렸어요. 프랑스 군인들이 도로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별명을 지어주었죠.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형제인지, 서로를 알았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아!" 부사장이 당황한 듯 말했다.

그리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장난기 어린 어조로 읽었다.

"이제 몬포송 씨가 남았군요. 미군 대위, 전쟁십자장을 받으셨다고요."

"예!" 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몬포송은 군인처럼 몸을 딱딱하게 세웠다. 발꿈치를 붙이고, 큰 바지 옆구리 선에 새끼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도로테가 그를 무릎 위에 올려 앉히고는, 강하게 포옹하며 입맞췄다.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꼬마였지. 네 살 때, 그는 미국 군인 열두 명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모피 주머니를 요람 삼아 그에게 만들어 주었어. 큰 공격이 있던 날, 열두 명 중 한 명이 그를 등에 업고 전진했어. 그런데 앞으로 나아간 이들 중 그 군인이 가장 멀리까지 갔고, 다음 날 그의 시체가 몽파나크 봉우리 근처에서 발견되었지. 모

피 주머니 옆에서 아이는 가볍게 다친 채로 잠들고 있었어. 전장에서 대령은 그에게 전쟁십자를 수여했고, 미국군 '캡틴 몽파나크'라고 이름 지어 주었어. 나중에 그가 후송된 병원에서 내가 그를 치료할 기회가 있었지. 삼 달 뒤, 대령은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어. 하지만 몽파나크는 거절했지. 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를 데려왔어."

도로테는 약간 낮은 목소리로, 그 안에 연민이 섞인 어조로 이 이야기를 전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백작부인은 속삭였다.

"당신이 한 일은 정말 훌륭해요, 마들모아젤. 정말로 잘했어요. 다만, 그 일로 양육해야 할 고아들이 네 명이 생겼죠. 무슨 수로 그들을 먹였나요?"

도로테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네, 몽포콘 덕분에요. 그가 떠나기 전, 대령이 그에게 이 프랑을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유모차와 늙은 말 한 마리를 샀죠. '도로테 서커스'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그 일은 배움이 필요한 어려운 직업이었나요?"

"배우는 과정은 한 노장교의 지도 아래 진행됐어요. 그는 전직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우리한테 이 일의 모든 요령과 재롱을 가르쳐 줬죠. 게다가 그건 제 피에 흐르고 있었어요. 줄타기와 춤은 이미 수년간 익힌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구석구석을 돌며 여행을 시작했어요. 삶은 좀 고달팠지만 건강은 완벽했고, 결코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결국 '도로테이 서커스'는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그건 규정과 일치합니까?" 단장이 물었다. 그는 규정 준수에 대한 집념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동정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덧붙였다. "이 서류는 단지 참고용일 뿐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당신의 직업 증명서입니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

"누가 발급했나요?"

"샤를르주 경찰청입니다. 제가 태어난 데파르트망의 중심 도시죠."

"보여주세요."

젊은 여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크타브 백작과 백작부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심문 과정을 두 사람이 목격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둔 답변을 확인하기를 두 사람에게 간청한 바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되자, 그녀는 뒤늦게 후회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물러날까요?" 백작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녀가 재촉하듯 말했다. "오히려 두 분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는요?" 라울 다베르누아이가 물었다.

"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여기 두 분께 알려야 할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요."

그녀는 노트에서 모서리가 찢겨 더러워진 신원 증명서를 꺼냈다.

"여기요."

병장이 그 명찰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듯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당신 성이 아니군요. 전쟁 중의 가명일 테고, 젊은 동지들처럼요?"

"아닙니다, 병장님."

"제발, 그런 말로 저를 속이지는 마세요."

"이것 보세요, 병장님. 아르곤 시의 도장이 찍힌 출생 증명서입니다."

샤니 백성이 외쳤다.

"뭐? 당신은 아르곤 마을 출신이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일입니다. 백성님. 아르곤이라는 작은 마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전체 아르곤 지방의 이름이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마을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아… 그렇군. 알아요." 백성이 말했다. "우리도 그곳에 친구가 있었소. 혹은 친척이요. 에스테리히 씨 말이지?"

"장 다르곤이요?" 그녀가 물었다.

"정말요. 장 드 아르곤, 샤르트르 병원에서 부상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곤 공작 후작이요. 그분을 아셨나요?"

"네, 알았어요."

"어디서요? 언제였죠? 어떤 사정이었나요?"

"음, 그다지 특별한 사정은 아니에요. 제게 가까운 사람을 아는 보통의 경우였죠."

"그렇다면, 장 드 아르곤과 당신이… 혈연관계였다는 말씀이군요?"

"매우 가까운 사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죠."

"당신의 아버지, 장 드 아르곤? 무슨 말씀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 그쪽 딸 이름이 요란드였잖아요."

"요란드-이자벨-도로테."

백작은 하사가 빙글빙글 돌려보던 명함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소리 내어 읽었다.

"요란드-이자벨-도로테, 아르곤 공작 부인."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마르스코 백작부인, 라에트르 여남작, 보그르발 여남작,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작위."

백부도 출생 증명서를 집어 들었다. 음절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당혹스러움이 점점 깊어지는 그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다.

"요란드-이사벨-도로테. 아르곤 공작가 출신. 1900년 10월 14일 아르곤에서 태어남. 장 마르스코 아르곤 공작과 제시 바르네의 적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소녀가 주장하는 신분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었다. 게다가 뜻밖의 진실이 도로테의 행동과 외모에서 그동안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던 모든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기에, 그 누구도 이 증명서를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백작부인은 감격에 겨워 몸을 맡겼다.

"요란드? 당신은 장 드 아르곤이 그렇게도 정겹게 이야기하던 그 작은 요란드군요!"

"그가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소녀가 말했다. "원하면 늘 함께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죠. 하지만 저는 매일 그를 본 것처럼 사랑했어요."

"그렇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 백작부인이 말했다. "저는 평생 두 번만 그를 봤지. 첫 번째는 전쟁이 시작되던 해 파리에서였어. 그런데도 그에게서 남다른 인상을 받았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지. 바로 너와 똑같아, 도로테! 사실 너를 보니 그가 떠오르더라고. 특히 눈매와 미소가."

도로테는 서류 더미에서 두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의 초상화입니다. 아가씨, 아시겠어요?"

"물론이지! 저기 있는 그 여성은?"

"제 어머니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분이죠."

"네, 알아요. 그녀가 예전에 연극을 했었죠, 맞나요? 기억나네요. 다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삶과, 당신을 그런 삶으로 내몰았던 시련들까지요. 먼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왜?"

도로테는 우연히 안내판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며 반복하던 '로보레'라는 단어를 보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옥타브 백작이 말을 끊었다.

그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상황의 무게를 최대한으로 느껴야 했다. 자신의 출생과 부가 그에게 부여한 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형식상 그는 두 사촌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듣지도 않았다. 그는 대위에게 위풍당당한 영주의 태도로 하직을 고하며 쫓아냈다.

생탕탕탱과 세 아이들도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두 여성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는 등 뒤에 손을 모은 채 그들 앞에서 천천히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로테는 기뻤다. 그녀는 승리했다. 원하던 말을 하도록 손님들을 내몰았으니 말이다.

샤니 백작은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라울은 한낱 친구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다만 한구석에는 적대적이고 무서운 존재가 있었다. 수염을 기른 신사였다. 그의 차가운 눈은 단 한 순간도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싸움을 받아들이고, 담대하며,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는 끔찍한 위기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언제든 그녀를 짓눌러 버릴 수 있는 그 위기에 말이다.

"자네, 장 드 아르곤의 딸이오. 내 사촌들과 내가 생각한 바가 있소. 고인이셨던 우리 조부 장 드 아르곤께서 알려주지 못한 사건들이 있거

든. 만약 조부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오. 심지어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는 자신의 서두가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거창한 어조와 격식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문법 규칙을 지키려 애썼고, 가법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이 모녀분.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한 가지 확신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문에 막대한 부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떤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그 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이는 바로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으로 샤니 백작 가문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진 터라, 그 희망은 더없이 달콤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확신은 대체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샤니 가문의 François, Dominique, Gaspard는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모호한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전설은 부의 성격이나 그것이 나타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보레'라는 이름을 언급한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 전설이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은 본래 '샤니'라 불렸다가, 루이 16세 시대 들어서야 비로소 '샤니-로보레'로 이름

을 바꿨으니까요. 이 이름 때문에 예로부터 이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이 로보레 성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은 이제 사냥터로만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최근 샤니 백작과 결혼한 저로서는, 그 소위 '막대한 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무방했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가문을 빛내게 된 비결을 은근히 암시하며 미소를 띠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쟁 중 오크타브 드 샤니 백분이 프랑스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했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1915년, 저는 보병 중위로 파리에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빚어낸 여러 우연한 일들이 저를 낯선 세 사람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들과 샤니-로보레 가문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첫째는 라울의 아버지인 조르주 다베르누아 대령이었습니다. 둘째는 막심 드에슈트뢰슈, 셋째는 장 다르곤이었습니다.

우리는 네 사촌 모두였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사이였습니다. 모두 휴가 중이거나 병상에서 회복 중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수다를 떨다 보니, 놀랍게도 우리 네 가족 모두에게 같은 전설이 대물림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르주 다베르누아, 드에슈트뢰슈, 장 다르곤은 모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막대한 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갚지 못한 빚이 생겼지만, 그 부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죠.

물론 우리 네 사촌 모두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단서 하나 없었습니다. 증거도, 힌트도 없었죠.

카운트는 다시금 잠시 멈춰 서서 효과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단서 하나만 더 있습니다."

장 다르곤은 아버지가 옛날에 중요성을 일러주었던 금메달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며칠 뒤 사냥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메달에 대한 자세한 말은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장 다르곤은 그 메달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득 그 글자 중 하나가 '로보레'라는 단어임을 떠올렸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을 모으고 있는 핵심이었다.

장 다르곤은 곧장 1914년 8월, 자신의 성이 약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다가 바르르뒤크의 창고에 숨겨둔 약 20개의 트렁크를 뒤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네 명 모두 중요한 약속을 나누었다. 만약 그 유명한 보물을 찾게 된다면, 모든 발견은 네 명이 함께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하느님이 그 보물을 내려주신다면, 그것은 이미 네 명의 것이었다. 그리고 장 다르곤의 병가가 끝나자, 그는 우리를 떠나갔다.

"1915년 말이었죠, 맞나요?" 도로테가 물었다. "우린 함께 여덟 날을 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1915년 말이었죠." 샤니 백작이 확인했다. "한 달 뒤, 북부에서 부상을 입은 장 다르곤이 샤르트르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우리에게 긴 편지를 하나 썼죠……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어요."

샤니 백작이 손짓을 했다. 부인이 남편의 말에 반대한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요, 그 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작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샤니 부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마담?" 도로테가 물었다.

"당신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도로테. 이 페이지의 끝부분에는 당신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작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지갑에서 편지를 꺼내 펼쳤다. 적십자 마크가 찍힌 편지였다. 도로테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백작부인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라울 다베르누아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로테는 불안한 표정으로 편지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편지가 어떻게 끝날지 추측하는 데 더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먼저 상처에 대해 안심시켜 드립니다. 별것 아닙니다. 합병증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저녁이 되면 열이 조금 오르지만, 그것은 대위도 당황하게 할 뿐입니다. 다 지나갈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바로 바르르뒤크로의 여행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크타브,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곧장 말씀드리죠. 인내심 있게 찾아낸 결과, 도망갈 때 가져가는 쓸모없는 물건 더미와 부츠 더미 사이에서 그 귀중한 메달을 찾아냈습니다.

회복기가 끝나는 대로 파리를 들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쪽 면에 새겨진 글자는 비밀로 하고, 다른 쪽 면에는 라틴어 세 단어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요.

'In robore fortuna'라. 이 말은 '용기 안에 운이 있다'는 뜻이지만, 'robore'라는 단어 때문에 철자 차이는 있더라도 로보레 성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전설에 나오는 그 부르는 곳도 바로 로보레 성일 테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오귀스트 형제, 진리의 길로 한 걸음 내딛은 셈이군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바로 제가 얼마 전 함께 보낸 날들이 행복 그 자체였던 한 젊은 여인의 도움까지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 사랑하는 요란드 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아시다시피 저는 종종 아버지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요란드의 어머니에 대한 열정,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후 이어진 방황의 세월. 이런 것들이 저를 멀리 떨어뜨렸죠. 당신이 '영지'라 부르는 그 소박한 농장, 아니 사실은 이미 무너진 성채 말입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제게는 그저 무너진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 무렵 요란드는 농부들의 보호 아래 자랐다. 스스로를 돌보며, 신부나 학교 선생에게서 배웠고, 무엇보다 자연을 스승 삼았다. 동물들을 사랑했고, 꽃을 가꾸었다. 활달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가진 소녀였다.

내가 아르곤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나를 놀라게 했다. 실용적인 감각과 총명함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바르르듀의 구급차 안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스스로를 간호 보조원으로 정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겨우 열다섯 살이었지만,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성숙한 사람처럼 사건을 판단했다. 자신의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사물 본연의 모습을 항상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시야가 또렷하군요. 어둠 속을 유유히 거닐고 있는 고양이 같은 눈매를 가졌어요."

"친애하는 옥타브여, 전쟁이 끝나면 요란드를 데리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라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백작은 말을 멈췄다. 도로테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정과 존경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녀가 물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맞아요?"

"편지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백작이 말했다. "1916년 1월 15일자로 썼지만, 실제로 발송한 건 30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정으로 그로부터 삼 주나 지나서야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장 다르곤이 바로 그 1월 15일 밤, 의사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고열을 앓았습니다. 그 열은 아버지가 죽은 상처에 갑작스러운 감염이 닥쳤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소녀가 물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그 상처에 감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백작이 낮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로테가 외쳤다. “아버지가 상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샤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도대체 그는 무엇으로 죽었단 말인가? 네가 하려는 말이 뭐냐? 네가 추측하는 바가 뭐냐?”

제5장

백작은 입을 다물었다.

도로테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떤 말을 입에 담아야 할지 몰라 떨리는 그 불안감 속에서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군가 죽였다니… 제 아버지를 죽였다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독약이었습니다."

그 말은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백작이 그녀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읽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고열과 환각 사이에서 간신히 의식을 유지할 때, 이 마지막 페이지들을 필사적으로 긁어냈을 겁니다. 돌아가신 뒤 구급대 사무국에서는 준비된 편지와 봉투를 발견하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저에게 전달하더군요. 끝부분을 보십시오. 환자 특유의 필체입니다. 연필이 무작정 굴러가듯, 그리고 의지가 순간순간 무너지는 대로 쓰여진 글입니다."

도로테는 눈물을 닦았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고 싶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정말 꿈이었을까?

저녁에 본 것들이 악몽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른 부상자들, 우리 옆방 사람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히 남자 둘이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이었지. 그들은 정원에서, 아래쪽 창문 옆에서 낮게 수군거렸다.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것이다. 더위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창문이 밀려났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야 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한 사람이 팔을 창문 너머로 내밀려 했다. 하지만 창문이 침대 옆 탁자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재킷을 벗어야 했다. 그럼에도 셔츠 소매가 걸려서, 맨살이 드러난 팔만 통과했다.

팔 앞에는 내 쪽, 서랍 쪽을 더듬는 손이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메달이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외치고 싶었지만, 목이 조여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일이었다. 그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내가 마셔야 할 약과 함께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손이 병에서 몇 방울을 물 잔에 떨어뜨렸다. 끔찍했다. 아마 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약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절대 마시지 않겠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 손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메달을 훔쳐가는 순간, 나는 맨팔 위에 적힌 글자를 보았다. 팔뚝 위, 팔꿈치 근처에 새겨진 글자를.

도로테는 글씨가 너무 떨려서 읽기 힘들어질 때까지 몸을 굽혔다. 한 음절 한 음절, 간신히 decipher했다.

"세 단어가 적혀 있군…… 문신처럼…… 선원들처럼…… 세 단어…… 아, 주님, 이 세 단어…… 메달의 글귀…… 'In robore fortuna'....."

그게 전부였다. 완성되지 않은 페이지에는 더 이상 일관성 없는 기호들만 남아 있었다. 도로테는 그것들을 해석하려 들지도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굽은 채로 서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상황, 즉 가장 합리적인 추정으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그녀의 슬픔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백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열이 다시 치솟고, 혼란에 빠진 그가 무의식중 독약을 마셨을 것이다. 적어도 그 추측은 타당하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의 손이 잔에 무엇을 부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때 나는 즉시 드에슈트뢰이 씨와 라울의 아버지를 불러냈다. 우리는 함께 샤르트르로 향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병원 행정부와 병장, 그리고 두 간호사는 이미 교체된 뒤였다. 나는 결국 죽음을 '감염 합병증'으로 처리한 공식 문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었을까?

그것은 내 두 사촌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아니었다.

"범죄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한 환자가 자신이 꾸었던 악몽을 몇 줄 적어놓았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진가요, 미스?"

도로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샤니 경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내며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이미

입증된 사실, 즉 '사실'이라는 그 한계선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네 명, 아니 세 명이었지. 다행히 아르곤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밖의 네 번째 인물이 우리가 풀려던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게다가 그 녀석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한 명의 라이벌이자 적수가 나타난 셈이었죠."

"그 적수가 누구란 말인가?"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더 이상 따질 수 없었고, 당신을 만나려던 뜻도 이루지 못했다. 바르르뒤크로 보낸 두 통의 편지에는 답장이 없었다.

월일이 흘러갔다. 조르주 다베르노이는 베르됭에서 전사했고, 드에슈트뢰크는 아르투아에서 부상을 입었다. 나는 살로니크로 파견되었고, 휴전 이후에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듬해부터 이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개회식은 어제 있었고, 우연히 오늘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연이어 알게 된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몰래 땅을 파는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발굴 장소의 이름이 '포르투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포르투나'라는 단어가, 당신의 아버지가 두 번이나 읽었던 비문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금화 위에도, 그 금화를 훔쳐간 남자의 팔에도 새겨져 있던 비문이요."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통찰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커져서, 샤니 백작과 라울 다베르누아는 당신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샤니 백작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직관과 식견이 빛을 발했죠. 우리가 당신을 믿은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추천한 이 '요란드 드 아르곤'이라는 인물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신의 협력을 부탁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망인 님. 당신은 장 다르곤의 자리를, 라울 다브르누아는 조르주 다브르누아의 자리를 대신한 셈입니다. 저희의 연대는 계속됩니다."

샤니 백작은 자신의 연설과 너그러워 보이는 제안을 들으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로테는 완고하게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백작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백작이 자신의 친척인 다르곤의 딸을 찾아내고, 그녀가 겪고 있던 삶에서 구해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여겼을까?

아니면, 귀걸이 도난 사건으로 모욕을 당했던 일에 대해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을까?

샤니 백작은 부드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도레테, 어떻게 된 일이오? 편지 한 장에 당신의 표정이 완전히 어둡게 변했소.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오?"

"네," 도레테가 잠시 침묵하다 낮고 탁한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당신도 누군가 죽였다고 생각하오?"

"물론이죠. 만약 살해가 아니라면, 메달이 발견되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 몇 페이지의 내용은 명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소. 우리가 힘을 보태주겠소. 안심하시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혼자 행동할 거예요. 그게 더 낫죠. 범인을 찾아내고, 그를 처벌할 거예요. 아버지께 그걸 약속했어요. 그분께 맹세한다고요."

그녀는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조금씩 내밀며 그 말을 꺼냈다.

"당신이 가려면 우리가 도와주겠소, 도로테.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 믿으니까. 여기가 바로 당신의 집이오."

도로테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마담."

"선량이 아니오. 애정이오. 당신은 처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소. 그래서 당신의 우정을 구하는 것이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마담. 온전히요. 하지만…"

"무슨 말인가? 거절한다는 것이오?" 샤니 경이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사촌 장 다르곤의 딸인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과 혈통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있소. 그런데 당신은 그 비참한 삶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비참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제 아이 네 명과 저는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들의 건강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작부인은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자, 말이 안 되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요."

"적어도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겠어요, 마담. 부끄러움 없이 말하지만, 저는 결혼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도 등록부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르곤에서 차지한 지위 덕분에, 등록 절차가 조정되어 제 출생일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이후로 기록되었죠."

"변명일 뿐이야! 어린애 장난이지!" 샤니 백작이 소리쳤다. "당신의 세심함을 칭찬할 만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소. 아니, 적어도 며칠은 머물러야 하오. 오늘 밤부터 성에서 저녁을 먹고 주무시오."

"제발요, 마담. 조금 피곤해서요…… 혼자 있고 싶어요."

사실 그녀는 갑자기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침울하고 긴장된 얼굴에서 미소가 피어날 리 없다는 듯했다.

샤니 부인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럼 내일까지 결정은 미루자. 오늘 저녁 네 아이들을 저녁 식사로 보내줘. 우리가 그 애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아껴주면 기쁠 테니까. 내일까지 생각해 봐.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우리 의견이 맞지?"

도로테는 일어섰다. 샤니 부부와 함께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턱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비록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몇 시간 전부터 그녀에게 드러난 그 신비한 사건은, 그녀 자신도 모르게 계

속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어둠 속에 첫 번째 빛을 비추었다.

"정말 우리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땅속에 묻혔거나 숨겨진 보물이 분명 있고, 언젠가는 이 금동전, 즉 제 아버지가 빼앗긴 그 금동전을 지닌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 아버지를 제외하고 이 금동전이 전설에 등장한다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라울 다베르노이가 대답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들레느."

"열흘쯤 전, 제가 함께 사는 빈데의 마뉴오뷔트 성에서 할아버지가 큰 금화를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내 보석함에 다시 넣으셨어요. 분명히 저 눈길을 피하려는 의도였죠."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면 너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마. 이미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어.'"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보레에 도착하자마자 샹니와 에슈트라이히에 사는 사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7월 말에 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때 제 발견을 들려주려 합니다."

"그게 다요?"

"네, 마들렌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설을 잘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적이 분명히 여러 개 존재하죠."

"네… 네… 틀림없어요." 소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부적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라울 다베르노이가 반문했다. "적어도 그 부적이 도둑맞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요? 왜 하필이면 불필요한 살인까지 저질러야 했을까요?"

"동전 하나를 유념해 주십시오. 그 동전에는 몇 가지 단서가 담겨 있죠. 아버지를 없앰으로써,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부를 나누어 가질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다른 범죄도 이미 저질러졌거나, 앞으로 저질러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른 범죄요? 그렇다면 할아버님도 위험에 처한 건가요?"

"네, monsieur."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백작은 불안에 떨면서도 웃는 체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군요, mademoiselle. 로보레의 땅에서 최근의 삽질 자국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네, monsieur 백작."

"그러면 경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샤니 백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요? 어떤 수단으로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테가 말했다. "내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대화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던 드에슈트뢰커가 한 걸음 나섰다.

"미스, 우리는 이 약속에 특히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야 할 사소한 부수 문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종이 상자에 관한 것이죠. 잊으셨나요?"

"전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작은 일과 다른 일들, 특히 귀걸이 도난 사건까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 나갔다.

해가 저물어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철제 울타리가 다시 열렸고, 놀이공간의 사람들은 짐을 풀고 모두 떠났다. 도로테이는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던 생캉탱을 만나고, 불을 피우던 아이들 셋도 보냈다.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을 성으로 보내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두꺼운 수프와 과일, 그것이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저녁이 깊어 아이들을 기다리며, 그녀는 어둠 속을 걸어 계곡을 내려다보는 난간 쪽으로 갔다. 두 팔을 난간에 기대고 몸을 기댔다.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을 떠다니는 얇은 구름들은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큰 고요함을 귀 기울여 들었다. 맨머리로, 그녀는 뜨거운 이마와 맥박치는 머리카락으로 저녁의 서늘함을 받아들였다.

"도로테이……"

그녀의 이름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녀가 듣지 못하도록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그녀는 몸이 오싹해졌다.

에스트리히르의 실체를 알아채기도 전에, 그녀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난간이 더 낮았고, 계곡이 더 깊지 않았다면 그녀는 도망쳤을 것이다. 그 남자가 그녀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를 이겨내려 몸을 굳혔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샤그니 부부와 부인께서도 제가 쉬고자 하는 바람에 정중히 응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내일 성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뜻이 결코 아니니, 그 점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당신에게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에게 우정과 존경, 그리고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이나 행동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닌 그 소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그 여성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의 말은 모욕일 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했다. 그의 본성상 부드러움이나 존중이라는 태도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느껴졌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해 주십시오."

"나는 장황한 수사는 싫소. 필요하면 조금 거칠게라도 핵심만 짚어 말하겠소. 당신을 실망시킬 각오는 되어 있소."

"이렇습니다. 운명처럼 당신을 제 일인 양 이 사건에 던져 넣었소. 이 사건은 명백히 제 것이라 할 수 있소."

"주변에는 쓸모없는 구경꾼들이 많소. 때가 되면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작정이오. 다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바보들이오."

"샤니는 허영심 많은 우스꽝스러운 놈이고, 다브르노이는 시골뜨기에 불과하오. 둘 다 우리가 끌고 다닐 무거운 짐에 불과하오."

"그럼 왜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게 어떻소? 당신과 제가 파트너가 되어, 친구가 되어!"

"제 에너지와 힘을 당신의 지성과 통찰력 앞에 바치겠소.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드리겠소."

"문제를 제가 알고 있소! 당신이 몇 주를 들여서야 찾아낼 문제, 아마도 영원히 찾지 못할 문제를 제가 지배하고 있소."

"진실의 거의 모든 단서를 제 손에 쥐고 있소. 몇 가지만 더 모으면 완벽하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찾아봅시다. 그러면 부와 천문학적 유산, 무한한 권력이 우리 것이 될 것이오."

"원하시오? 원하시오?"

그는 소녀 쪽으로 너무 깊게 몸을 기울였다. 손가락이 그녀가 두른 숄에 살짝 스쳤다.

도로테는 적의 숨은 생각을 엿보려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접촉에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가세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친구라고요? 당신? 당신이라고요!"

도로테가 그에게 느낀 혐오감은 그를 격분시켰다. 그는 분노에 몸이 떨리며 말했다.

"그렇군… 그렇군. 거절하는 거야? 내가 목격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일에 불구하고도?"

"자, 생각해 봐. 훔친 귀걸이는 생트캉탱 사건만은 아니야. 너는 그 골짜기에 숨어 그 일행을 감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방금 전에는 동범자처럼 그를 보호했잖아. 증거는 끔찍할 정도로 확실해. 그 상자는 백작 부인의 손아귀에 들어갔어. 그리고 너, 도둑놈이면서 감히!"

그가 팔을 뻗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도로테는 몸을 숙여 난간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때였다. 그는 갑자기 손을 놓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빛줄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난간 위에 올라선 몬포송이 전기 램프의 빛을 그의 정면으로 쏘아붙이고 있었다.

드레스트레르가 물러났다.

그는 여전히 빛에 쫓기고 있었다. 마치 능숙하게 조준한 투사체처럼 빛이 그를 뒤쫓았다.

"빌어먹을 꼬마야!"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내게 다시 걸려들게 해두마. 너도 마찬가지야, 아이야. 내일 오후 두 시, 성에서 네가 도망치지 않으면, 헌병들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겠다. 네가 선택해라, 꼬마야."

그는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 세 시쯤, 차내의 창살문이 열렸다. 전날 아침과 마찬가지로, 차 안을 바라보던 그 창살문이었다. 한 손이 밖으로 나와 담요에 덮여 자던 생캉탱을 흔들었다.

"일어나. 옷을 입어. 소음은 금지."

생캉탱이 항의했다.

“도로테, 네가 하려는 건 말이 안 돼.”

“아이고.”

생캉탱은 순종했다.

밖에서 도로테는 이미 준비를 마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름달 빛에 비친 그녀의 어깨에는 천으로 만든 작은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밧줄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성벽 난간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그곳은 입구 철문의 울타리에 바로 닿아 있었다. 그들은 밧줄을 철창 중 하나에 단단히 매고 몸을 맡겨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 생캉탱이 다시 광장으로 올라가 밧줄을 풀었다.

그들은 경사로를 따라 협곡으로 내려갔고, 절벽을 따라 어제 생캉탱이 올랐던 틈새까지 걸어갔다.

“올라갑시다.” 도로테가 말했다. “밧줄을 풀면서 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등반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고, 도로테가 손전등을 켰다.

“구석에 있는 그 작은 사다리를 가져가시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생탕캉은 다시금 반대했다.

“말도 안 돼. 미친 짓이야. 우리는 늑대의 입으로 뛰어드는 거야.”

“일단 해 봐.”

“하지만 도레, 도레!”

그때 그의 명치에 주먹이 먹혔다.

“够了. 대답해. 드에슈트르슈의 방이 왼쪽 복도 끝방이 맞지?”

“물론이죠. 당신의 지시에 따라 어제 저녁 식사 후, 집사들을 상대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준 가루를 그의 커피 잔에 넣었지?”

“네, 드에슈트르슈는 단단히 잠들었어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길을 나서다가 작은 문 앞에 멈춰 섰다. 바로 백작부인의 부엌 옆에 붙은 물품 창고였다.

생탕캉은 사다리를 세우고 환풍구로 안으로 들어갔다.

삼 분 후, 그가 다시 돌아왔다.

“상자, 찾았어?” 도로테가 물었다.

"응, 테이블 위에 있었어. 귀걸이를 꺼내고,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고무줄 채로 다시 넣어뒀지."

그들은 계속 움직였다.

각 방마다 세면장과 옷장 겸용 다용도실이 딸려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천창 앞에 멈춰 섰다. 생캥탱이 천창을 가볍게 넘었고, 도로테를 위해 세면장 문을 열어주었다.

세면장과 침실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도로테가 문틈을 살짝 벌리고 조심스럽게 빛줄기를 던졌다.

"자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큰 손수건을 꺼내 작은 클로로포름 병의 마개를 풀고, 손수건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드 에슈트뢰크는 온몸에 옷을 걸친 채 침대 위에 엎드린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치 졸음에 짓눌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 깊이가 어떤지, 젊은 여자는 주저 없이 전등을 켰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클로로포름이 스민 천을 그의 얼굴에 덮어주었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몸부림쳤지만,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생트캥탱과 도로테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각각 올가미에 넣었다. 밧줄의 양끝은 침대 철제 받침대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제 더 이상 거

리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재빨리 이불과 담요를 잡아 그의 다리와 몸통을 감쌌다. 그리고 식탁 위의 카펫과 커튼 고리를 이용해 단단히 묶어 버렸다.

이때 드 에슈트뢰크가 눈을 떴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로테는 곧장 수건으로 그의 입과 턱을 감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샤니 백부부와 라울 다베르누아는 성의 큰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달려와 알렸다.

새벽이 밝자, 도로테 서커스의 단장이 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곧바로 유람차가 떠났다는 것이었다. 단장은 샤니 백작에게 편지를 남겼다.

세 사람은 샤니 백작 부인의 작은 서재로 올라갔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사촌 형님."

백작은 화가 난 듯 몸을 뒤로 젖히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사촌 형님, 저는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지켰습니다. 성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남자, 그리고 어젯밤 귀걸이를 훔친 남자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5년 전 제게서 메달을 훔치고 제 아버지를 독살한 자요."

"그 사람을 당신 손으로 법정에 넘깁니다. 정의가 그 본분을 다하도록 두십시오."

"도로테, 아르곤 공작의 공주."

샤니 부부와 그의 사촌은 경악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범인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어디서 그녀를 손에 넣은 것일까?

"드에슈트뢰허가 아직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군. 안타깝군." 샤니가 말했다. "그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야."

백작 부인은 벽난로 위에 놓인 종이상자를 들어 올렸다. 드에슈트뢰허가 그녀에게 맡긴 상자였다. 그녀는 주저 없이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도로테가 말한 그대로, 하얀 돌멩이와 조개껍질들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드에슈트뢰허는 이 발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까?

부엌 옆 작은 방 문이 살며시 두드려졌다. 샤니의 신임을 받는 집사 도미니크였다.

"무슨 일인가, 도미니크?"

"백작 각하, 오늘 밤 성 안으로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샤니 백작은 단호하게 말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도 한복판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스트리셔 씨 아파트 앞이었죠. 그리고 옷장 창문도 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화장실로 침입해 무언가를 한 뒤, 복도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을?"

"모르겠습니다, 각하. 더 이상 조사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샤니 백작은 주머니에서 백 프랑 지폐를 꺼내 들었다.

"이 일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도미니크. 복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라울과 그의 아내가 뒤따랐다. 화장실과 드에슈트뢰슈 부인의 침실을 잇는 문도 열려 있었다. 방 안은 클로로포름 냄새로 가득 찼다.

백성이 비명을 질렀다.

침대 위, 드에슈트뢰슈 부인이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입에는 행주 같은 것을 물려 묶었고, 몸은 단단히 결박당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고, 신음소리만 터져 나왔다.

그 옆에는 도로테가 말한 목도리가 놓여 있었다. 그 남자가 수색을 할 때 입었던 것이라던 목도리였다.

탁자 위, 시야에 잘 띄는 곳에는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놀랍고도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 다르곤에게 자행된 범죄와 메달 도난 사건의 확실한 증거였다.

오른팔이 맨 채로 침대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손목만 묶여 있었다.

그 팔에는 세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In robore fortuna.'

제6장

매일 아침, '삐-보르뉴'라는 말의 느릿한 걸음이나 게으른 trot으로, 도로테씨 서커스는 이동했다. 낮에는 공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들을 유유자적 거닐며 보냈다. 젊은 여배우는 그곳의 그림 같은 매력을 깊이 사랑했다. 도몽, 모르탕, 아브랑슈, 푸제르, 비트레. 중세 성곽 도시들이었다. 여기저기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도 있고, 고대의 망루가 우뚝 선 곳도 있었다.

도로테는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 도시들을 하나둘 방문했다.

그녀는 혼자 그들을 방문했다. 큰 길에서 혼자 걷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분명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며, 엄마에게 시선을 구걸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게 일 주일이 흘렀다. 아이들에게는 어둡고 침울한 일주일이었다.

창백한 생캉탱은 피에보르네를 모는 데 온 신경을 쏟았다. 마치 관을 실은 마차를 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캡틴은 자신의 교과서에 몰두했다. 더하기와 빼기를 반복하며 정신을 집중했다. 도레트가 이 무리의 선생님으로서 이런 집중력 있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도레트의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새벽부터 첫 마을에 닿자마자, 그녀는 신문을 사서 눈으로 훑어보곤 했다. 그러곤 짜증 섞인 제스처로 종이를 뭉개 버렸다. 기다리던 기사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캉탱은 그 신문을 곧장 주워들었다. 자신도 차례로 페이지를 넘겼다.

없었다. 그녀가 몇 마디로 요약해 들려준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는 커녕, 둘이서 함께 그의 침대에서 묶어둔 악명 높은 드에슈트라이히의 체포 소식조차 없었다.

드디어 여덟째 날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오르자, 미소가 다시 찾아왔다.

이것에 대한 외부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삶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소녀의 마음은 먼 과거, 아버지가 숨진 비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가벼운 기운과 넘치는 에너지, 다정함으로 가득한 도로테가 되었다.

카스토르, 폴룩스, 몽포공을 볼에 꼭 안아주고, 생캉탱은 잔뜩 주먹으로 등을 두드리며 악수를 나누었다. 비트레 성벽 아래에서 열린 공연에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경쾌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관객들이 모두 떠난 뒤, 그녀는 네 동료들을 쑤셔대며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던 광란의 원을 돌기 시작했다.

생캉탱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너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왜 안 사랑해, 내 네 아이들아?"

"너는 공주잖아."

"그전엔 공주가 아니었어, 바보야."

그녀는 그를 데리고 구비구비한 비뜨레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거친 슬레이트로 덮인 목조 가옥들이 어지럽게 모여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늘 행복했다. 제약이나 가난, 혹은 억압 같은 것을 겪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본능을 꺾고, 자연스러운 성격을 왜곡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에게서 배울 때는 오직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골라 배웠다. 아르곤의 신부에게서는 라틴어를 조금 배웠지만, 교리 질문은 내버려 뒀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많은 것을 배웠고, 빌려준 책들 속에서도 수많은 지식을 얻었다. 부모님이 맡겨둔 노부부 농부 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은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새나 풀, 나무가 무엇인지, 실제 사물들이 가진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생캉탱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줄타기 춤을 추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잖아."

"춤은 내 안에 있어요. 그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어머니는 극장 안의 고급 여배우가 아니었어요. 그저 정직한 작은 무희였죠. 음악당이나 영국 원형 극장 같은 곳에서 일하던 '댄싱 걸'이었어요."

어머니는 방황하며 자랐어요. 지도자도 조언자도 없었죠. 눈에 비친 본보기라곤 부모의 가볍고 피상적인 삶뿐이었지만, 그녀는 굳건한 도덕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민감하게 느꼈죠.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착한 사람들과 마음이 통할 때만 행복해요. 나는 착한 여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했어요. 생캉탱은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세상에!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넌 늘 나를 놀라게 하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걸 알아맞히는 거야? 그전 로보레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로 아무것도."

"아, 그건 또 다른 문제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조합하고, 조직하고, 지휘하려는 욕구였죠. 무언가를 시도하고 성취하려는 충동이요. 어릴 적 나는 마을 아이들을 모두 모아서 무리를 짓곤 했어요. 가난한 부인네에게서 훔쳐간 양이나 오리를 찾아내거나, 악당들을 색출해 내는 식이었죠. 아니면 직접 수사를 벌이기도 했고요.

수사라니, 그게 내 특기였어요. 헌병들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사건을 정리해 버렸으니까요. 그 덕분에 근처 농부들이 13, 14살 먹은 꼬마 내게 찾아와 상담을 하곤 했죠.

"정말 작은 마녀 같구나."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마마, 아닙니다!" 내가 말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생캉탱. 내가 가끔 점쟁이나 타로 카드 읽는 흉내를 낸다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사실들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이에요. 말해야 할 것 같네요. 그건 또한 특이한 직관력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 직관은 남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물의 다른 면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예, 저는 이해하기 전에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일도 제게는 처음부터 매우 단순해 보이죠. 저는 늘 의아합니다. 사실의 전부를 담고 있는 어딘가의 단서를 사람들이 왜 간과하는지 말입니다."

생캉탱은 압도된 듯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당신 눈은 빠르고 생각은 깊어요. 그걸로 결정이 났군요. 귀걸이는 생캉탱이 아니라 드에슈트뢰가 훔쳤어요. 감옥에 갈 사람도 생캉탱이 아니라 드에슈트뢰가 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의는 내 뜻에 굴복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신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로보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비참한 자는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도 없는 거야?"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라울 다브르누아를 통해서요."

"그럼 그를 만나러 가는 거야?"

"편지를 보냈어요."

"로보르로?"

"그가 답장을 보냈어?"

"응. 공연 전에 우체국에서 받아 온 전보야."

"그럼 우리랑 합류한다는 뜻이야?"

"그래. 로보레이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트레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지금 세 시잖아."

그들은 마을의 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초원과 숲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도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저기 봐.” 그녀가 말했다. “그의 자동차가 곧 나타날 거야. 바로 그 도로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착한 젊은이가 나를 다시 볼 기회를 놓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캉탱은 늘 조금 질투가 많고 쉽게 걱정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들 친절하고, 너무 열심이지.”

그들은 몇 분을 기다렸다. 차 한 대가 양옆의 나무들 사이로 나타나더니, 그들은 차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차 가까스로 다가가게 되었다.

잠시 후, 차는 경사를 올라가며 한쪽 코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라울 다베르노이가 운전하고 있었다. 도로테이는 그를 향해 달려가며, 내리려는 그의 손을 막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야? 체포된 거야?"

"누가? 드에슈트라이히?" 라울은 이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소 당황하며 말했다.

"물론이지, 드에슈트라이히… 우리가 그를 넘겨준 거잖아? 그는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럼?" 도로테이가 물었다.

"그는 탈출했어."

이 대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드에슈트라이히, 자유로워!…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야!… 아, 이건 끔찍해."

그리고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세상에, 세상에! 왜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 탈출을 막았을 텐데.”

하지만 한탄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었다. 도로테는 오랫동안 슬퍼할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주저 없이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왜 성에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때문이에요. 드에슈트뢰커 때문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가 탈출한 지 한 시간 뒤면 떠났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요?”

"당신의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로보레에서 이미 경고했잖아요."

라울 다베르노이가 반박했다.

"일단 저는 할아버지에게 경계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가 당할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꼭 필요한 보물, 즉 금메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드에슈트뢰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부적은 에스트라이허도 가지고 있어요. 아드니언이 아버지를 죽인 날, 금메달을 훔쳐갔으니까요."

젊은이는 차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꽉 쥐고 라울이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재촉하는 어조로 그에게 말했다.

"제발 가주십시오. 물론 이 사건의 전모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메달을 가지고 있는 드에슈트뢰가 또 다른 메달을 훔치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서 훔쳐간 메달을 동료가 다시 빼앗아간 걸까요? 저는 아직 그 무엇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싸움터는 그곳, 바로 당신 곁이라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도로 지도가 있습니다. 클리송 근처의 마노오뷔트. 거기까지 백오십 킬로미터. 유레트에는 여덟 단계의 여정이 필요하죠. 당신이라면 오늘 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흘 후면 그곳에 있을 테니."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먼저 해야 했네요. 게다가 오늘 밤은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십니다."

"혼자?"

"네. 하인들은 모두 축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 명이 인근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죠."

그녀가 놀라 자랐다.

"드 에슈트라이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을 거예요. 로보레이에 머물던 중 그에게 이 축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언제 도망쳤나요?"

"그저께요."

"그렇다면 그저께부터?"

그녀는 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곧장 말차량 쪽으로 달려가더니, 곧 작은 가방과 옷가지를 들고 다시 나왔다.

"저도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저와 함께 가요. 시간을 끌 수 없어요."

그녀는 직접 엔진을 시동시키며 명령을 내렸다.

"생캉탱, 이 말차량과 아이들 세 명을 네게 맡겨. 지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대로 가. 하루 두 배로 이동하고, 공연은 하지 마. 이五天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다베르누아 옆에 앉았다. 차가 이미 출발하려고 할 때, 그는 팔을 벌린 대위에게 다가가 그를 잡았다. 그는 대위를 뒷좌석의 짐과 가방 더미 속에 던져 넣었다.

"여기… 움직이지 마… 안녕, 생캉탱. 카스토르와 폴룩스, 싸우지 마라."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전체 장면은 삼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라울 다베르누아의 차는 흔히 '낡은 차'라고 부르는那种 차였다. 그래서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고, 라울은 이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와 기뻐했다. 그녀는 그의 사촌이었고,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라울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 데스트뢰셔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의 구금 중 발생한 사건들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를 구한 건 첫날 밤, 줄을 풀며 몸부림치다 침대 철제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생긴 깊은 상처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죠. 고열이 올라온 겁니다."

"그때 당신 사촌인 샤니 씨가 나왔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매우 소심한 성품이죠. 그는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군.'"

"'시간요? 무슨 시간을?'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요. 이 일이 엄청난 스캔들로 번질 거란 걸 당신은 잘 알죠. 우리兩家의 명예를 위해 이걸 막을 수도 있을 테니까.'"

나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다. 즉시 헌병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샤니는 집에 있었고, 그는 결정을 내리는 데 망설였다. 며칠이 지나갔다.

도로테가 물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interrogation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 말했나요? 나를 비난하려 했나요?"

"아니요. 그는 열과 고통으로 지친 사람인 척했다. 그 사이 샤니는 파리에서 그에게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의 사촌과의 관계는 1915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전, 전보가 도착했다."

"매우 위험한 인물. 경찰이 수배 중. 편지 뒤따름."

그 말을 듣고 샤니는 결심했다. 그제 아침, 헌병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기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드에슈트뢰에르가 계곡으로 통하는 부엌 창문을 통해 도망친 뒤였다.

"자, 정보는 어땠소?"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앙투안 드 에슈트뢰슈는 전직 해군 장교였지만, 강도 혐의로 제명당했습니다. 이후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도망갔습니다. 오늘 현재, 이미 수사가 개시된 지 열다섯 날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가 전쟁 기간 중 이미 수년 전 사망한 친척의 신분을 도용해 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막심 드 에슈트뢰슈'라는 이름이 바로 그 위장 신분이죠."

도로테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참으로 아쉽군요. 그런 악당들이야말로 손에 넣어야 할 텐데, 어떻게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를 다시 찾아낼 겁니다."

"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요."

라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마을들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고, 도시의 포장도로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다. 밤이 오기 전에 나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름을 사야 했기에 잠시 멈춰야 했다.

"한 시간만 더 걸리면 돼요." 라울이 말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마노오뷔트 성의 정확한 지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과수원을 통해 본가로 이어지는 길의 방향, 현관과 계단의 위치를 물었다. 또한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 노인의 나이(칠십오 세), 그리고 그의 개 골리앗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했다. 골리앗은 무서운 외모에 짖는 소리가 거칠었지만, 무해했고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

클리송의 큰 마을에 들어서자 곧 바르드 지역이었다. 라울은 들러서 하인들을 태우려 했다. 두 농부 하인을 데려오면 좋았을 텐데.

도로테이는 반대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모두요. 그 남자를 말입니다. 우리는 초를 아끼지 못해요."

그들은 큰길에서 벗어나,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깊게 패인 자국만 남은 흙길이었다.

"저기요." 라울이 말했다. "방 창문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곧장 멈춰 섰다.

높은 담장이 둘린 저택 앞, 오래된 시대의 흔적이 남은 뾰족한 탑이 달린 철문이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라울이 문을 열려는 사이, 엔진의 둔탁한 소리를 뚫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울은 그 소리의 성질을 듣고는 곧 결론을 내렸다.

"골리앗은 저택 안이 아니라, 계단 아래 밖에 있어요. 그리고 문을 앞에 두고 짖고 있죠."

"그래요? 문 좀 열어봐요." 도로테가 소리쳤다.

라울이 재촉하며 돌아왔다.

"정말 이상해요. 문고리에 빗장을 걸었고, 열쇠도 돌렸더군요."

"그런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남이 그랬죠. 그리고 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른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쩌려고? 아니,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그녀는 핸들을 잡고 차를 몰아 담장 옆으로 가져갔다. 정문 오른쪽, 조금 더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가죽 쿠션 네 개를 겹겹이 쌓아 올렸다. 그 위에 서서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몽포콩!"

그녀가 이름을 불렀다.

대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의 동작으로 무릎을 꿇더니, 이어 도로테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 그의 손끝은 이제 담장 꼭대기에 닿을 수 있었다.

그는 도로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매달린 채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가 철제 난간 위에 네 발로 엎드린 자세를 잡자, 라울은 그에게 밧줄을 던졌다. 라울은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동여매고, 도로테는 밧줄의 한쪽 끝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땅에 닿았다. 라울이 아직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물쇠가 삐걱거리고 빗장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울이 과수원으로 돌진했다.

그를 뒤따르던 도로테는 몬포공에게 말했다.

"집 둘레를 돌아봐. 벽에 기대어 있는 사다리가 보이면 바로 떨어뜨려."

그들은 현관 앞 골리앗을 발견했다. 닫힌 문을 발로 긁으며 짖고 있던 개였다. 그들은 개를 조용히 시키고, 고요한 가운데 위쪽에서 싸움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젊은 남자는 공격자를 놀라게 하려 총을 한 발 쐈다. 그러고는 열쇠로 문을 열고,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앞쪽 방 중 하나에는 등불 두 개가 켜져 있었다. 라울의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쉰 목소리로 작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라울은 무릎을 꿇고 달려갔다. 도로테는 등불 하나를 들고 복도 반대편에 있는 방으로 달렸다. 그곳은 문이 열려 있던 곳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사다리의 팔 부분이 삐져나와 보였다.

도로테가 몸을 내밀었다.

"몽포콩!"

"여기 있어요, 엄마." 아이가 대답했다.

"누군가 내려가 도망가는 것을 봤니?"

"멀리서요, 엄마. 제가 막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를 알아봤니?"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 두 명이었어?"

"네… 다른 한 명도 있었고, 더러운 아저씨도 있었죠."

라울의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심지어 죽을 위기도 아니었다.

싸움의 흔적들을 보면, 드에슈트뢰이커가 노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며 비밀을 털어놓게 하고, 아마도 금화를 건네게 하려 했다고 생각할 만했다. 특히 목에는 누군가가 꽉 쥐었던 자국이 선명했다.

그 강도와 동조자가 마지막 순간에 성공했을까?

가사들이 돌아오자마자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별다른 합병증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낮 동안 상황은 달라졌다. 노인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만 반복할 뿐이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고통. 그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제7장

평평한 땅에 자리한 곳, 푸른 풀잎 아래 숨겨진 '만누아로뷔트' 성. 마인 강이 파놓은 깊은 계곡이 성의 목초지, 과수원, 건물들을 한 바퀴 감싸 안고 있다. 성 안쪽으로는 바위가 튀어나온 언덕들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고, 소나무들이 그 위를 뒤덮고 있다. 마인 강에서 뻗어 나온 지류가 이 언덕들을 분리하며 작은 호수를 만들었는데, 호수에는 어두운 돌담과 분홍빛 벽돌, 그리고 고대 저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비친다.

하지만 지금 이 곳은 농장이다.

지하실은 와이너리와 창고로 쓰이고 있으며, 예전에는 더 크고 번성했던 농장이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라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곳은 매우 쇠락해졌다.

그를 '노령 자작'이라 불렀다. 본래 작위와 성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그의 영지는 아베르누아 자작령이었다.

노령 자작은 사냥과 음주를 즐긴 미남子了. 여성을 좋아했지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아들, 곧 라울의 아버지도 이런 태만한 습관을 물려받았다.

"전 군 제대 뒤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라울이 젊은 소녀에게 털어놓았다. "이곳에 다시 풍요를 되찾아주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한결같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바로 당신도 아시다시피 전설 속의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자가 될 테니, 왜 지금부터 절약하겠는가?'"

"그들은 정말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빚은 모두 사채업자가 사들였고, 저는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로보레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죠. 기한은 단 여섯 주입니다."

그는 용감한 소년이었다. 머리는 좀 둔했지만, 행동은 조금 어색할 뿐 본성은 곧고 진지하며 신중했다.

도로테의 우아함은 그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는 타고난 부끄러움 때문에 가장 뜨거운 감정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존경심과 동요를 숨기지 않았다.

그가 시키는 일은 모두 곧 이루어졌다.

그의 조언에 따라 그는 할아버지가 당한 습격 사건을 털어놓았고, 미상인에 대한 고소를 접수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액의 재산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인 금화 한 닢을 찾기 위해 벌이고 있는 수색 작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했다.

마침내, 그는 도로테의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과 그녀가 먼 친척 사이라는 사실은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젊은 소녀가 마뉴아르 저택으로 이끌려 온 이유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흘 뒤, 상탕탕은 피에-보르뉴에게 두 배의 행군을 강요하며, 카스토르와 폴룩스와 함께 도착했다. 도로테는 자기 사랑스러운 오두막집 말고는 다른 거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두막집은 마당 한가운데에 설치되었고, 다섯 동료들 사이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행복하고 느긋한 삶이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덜 격렬하게 싸웠다. 상탕탕은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 항상 위엄을 떨치던 대위는 노령의 남작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골리앗에게 하듯 끝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로테는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남에게 내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몇 시간씩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연습을 지휘하곤 했다. 그러다 노바론 남작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충직한 개를 데리고 온 남작은 다리가 떨리고 눈빛이 멍한 채, 과수원의 나무 한 그루에 기대앉으려 했다. 도로테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엿보았다. 그것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지 가려내려 했다.

여러 날 동안, 그녀는 다락방의 다락방에서 지냈다. 그곳에는 몇 개의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지난 세기에 인쇄된 잡지들과 소책자들이 쌓여 있었다. 지역사, 지방 보고서, 교구 기록들.

"음, 어떻게 되지?" 라울이 웃으며 물었다.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네 눈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부정할 생각은 없어."

도로테의 눈. 그녀의 얼굴을 구성하는 여러 아름다운 요소들 중에서도, 사람들은 특히 그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라울은 이제 다른 건 보지 않았다. 오직 그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눈이 전달하는 감정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 도로테도 그 시선을 받으며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겪어온 건 탐욕스러운 시선과 거친 찬사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소년은 다르다. 그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 점이 도로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도로테는 그를 작은 보트에 태워 호수 옆에 묶어두었다. 보트는 물결에 실려 흘러갔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뭐가?" 라울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 단서가 암시해 온 바로 그 날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라울. 당신은 바론의 손에서 가족의 전통이 모두 응축된 듯한 금메달을 본 그날, 잘못 보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불쌍한 사람은 당신이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말았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던 실이 끊겨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달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방을 물론이고 옷가지,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과수원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수께끼의 열쇠를 숨겨둘 리가 없어요. 이성이 죽었어도 본능은 살아남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다져진 본능이라니요. 분명 그 조각은 손이나 눈이 닿는 곳에 둔 거예요. 제때에 무의식적인 동작이 진실을 드러내 줄 거예요."

라울이 반박했다.

"만약 드에슈트뢰가 그 메달을 빼앗아 갔다면요?"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님은 끝까지 저항하셨고, 오직 우리들이 나타난 순간에야 드에슈트뢰가 도망친 거죠."

"아, 그 강도야! 내가 잡으면!" 라울이 외쳤다.

배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다. 도로테가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요. 그가 우리를 듣고 있어요."

"뭐? 뭐라고요?"

"그가 여기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라울은 깜짝 놀랐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죠."

"어디서요?"

"뷔트 지역 어딘가에서요. 저는 항상 '뷔트 성'이라는 이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은신처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된 책 한 권에서 그 증거를 찾았죠. 그 책에는 베데 전쟁 당시 베데인들이 숨어 지내던 은신처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티파즈와 클리송 근처에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그곳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공격을 당한 날, 할아버지는 혼자였거나 혼자라고 생각했죠. 뷔트 쇼몽 공원을 산책하다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드에슈트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그 비열한 자는 그 곳을 은신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가리켰다.

"지형을 보십시오. 땅이 울퉁불퉁하고 패여 있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사방 어디든 바위 속에 작은 감시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래, 즉 영지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죠. 드에슈트뢰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수사를 감시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그 금화 조각을 원하죠. 제가 그보다 먼저 찾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라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아직이야. 굴에는 여러 개의 출구가 있고, 그중 일부는 아마 강 아래로 이어져 있을 거야. 만약 그 도적에게 경보를 울리면 그는 도망쳐 버릴 거야."

"그럼,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굴에서 쫓아내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지."

"어떻게? 언제?"

"가능한 한 빨리. 저는 이자업자, 보이랭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매매 증서를 보여줬죠. 7월 31일 오후 5시, 평생을 바라며 부지런히 기다려 온 '만요뷔트 저택'을 손에 넣으려던 보이랭 씨가 30만 프랑의 현금이나 국가 채권을 받지 못하면, 그 저택은 그의 것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한 달 만에 내가 부자가 될 이유는 없으니까."

"있죠. 할아버지를 항상 지탱해 온 그 이유요."

"베르랭, 기뻐하지 마라. 7월 31일 날짜에, 나는 네게 손톱 위의 보석처럼 확실하게 돈을 주겠노라."

"라울,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마주한 건요. 지금까지는 말과 모호한 전통만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약속된 부를 둘러싼 모든 전설이 7월의 어느 날로 정확히 수렴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뱃줄이 해변에 닿았다. 도로테가 가볍게 뛰어내리며 주저함 없이 외쳤다.

"라울, 오늘은 6월 27일이에요. 몇 주 뒤면 당신도 나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레셔는 제가 예언한 대로 목이 끊어질 거예요."

하루의 끝자락, 밤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소녀는 저택을 빠져나와 울타리가 높게 둘러진 길을 따라 숨죽이며 걸었다. 한 시간쯤 걸을까,

그녀는 작은 정원에 도착했다. 정원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로테의 독자적인 조사는 한 노부인의 이름을 밝혀냈다. 줄리엣 아시르라는 이 여인은, 세간의 소문으로는 남작의 옛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남작이 병들기 전까지, 그녀는 귀가 멀고 몸이 약하며 정신도 다소 흐릿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작은 그녀를 자주 찾았다.

게다가, 성-캉탱이 심문한 하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에 따르면, 줄리엣 아시르는 저택에서 찾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메달을 가지고 있었다.

소녀의 생각은 간단했다. 하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는 틈을 타 문을 두르고, 줄리엣 아시르에게 정면으로 물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다. 자물쇠는 열려 있었다. 도로테가 안락하고 아늑한 거실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녀는 노부인이 램프 불빛 아래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부인의 머리는 자수가 놓인 캔버스 위에 푹 숙여져 있었다.

'내가 찾아볼까?' 도로테는 생각했다. '물어봐야 소용이 없잖아. 아마 대답도 안 해줄 텐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판화, 유리 덮개가 씌어진 시계, 그리고 촛대들을 꼼꼼히 살폈다.

더 멀리 계단이 있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문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단서 하나 없었음에도, 데스트라이허가 곧 나타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가 자신을 뒤쫓아 온 걸까. 아니면 어떤 꾀를 부려 이곳으로 유인한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계단으로 갈까, 1층 방으로 갈까. 시간이 없었다.

곁에 유리문이 있는 문이 보였다. 아마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겠지. 그곳을 통해 어딘가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가 문 안으로 들어섰지만, 곧바로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어두운 다락방 같은 곳이었다. 오히려 찬장 같았다. 문을 닫으려면 나무 판자에 몸을 붙이고 엎드려야 했다.

그녀는 갇혀 버렸다.

그때, 메인 문이 아주 살며시 밀려났다.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한 명이 속삭였다.

"할머니는 자고 있네."

찢어진 천으로 가려진 유리창 너머로, 도로테는 쉽게 그를 알아봤다. 칼을 세우고 턱 아래에서 모자 끈을 매고 있는 데스트라이셔였다. 그의 동행자도 손수건으로 얼굴 반쯤을 감추고 있었다.

"저 여자 때문에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 데스트라이셔가 투덜거렸다. "단순히 감시할 뿐이지."

"헛소리야. 넌 계속 그 여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 정신이 나간 거야… 언젠가 그녀가 네 정신을 완전히 잃게 만들 때까지."

"나는 반대하지 않네. 로보레에서 이미 거의 성공했어. 하지만 그녀가 필요해."

"왜?"

"메달 때문이야.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그녀뿐이거든."

"하지만 여기는 아니야. 이미 두 번이나 이 집을 수색했는데."

"잘 못했지. 그럼 그녀도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어. 하녀의 수군거림을 들은 게 분명해.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있는 날을 골랐겠지."

"아, 그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데스트리셰르가 낮게 말했다. "그녀가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그 아가씨가 당장 잊지 못할 일을 해줄 테니까."

도로테는 몸이 떨렸다.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함께 격렬한 욕망이 섞여 있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이제 조용해졌다. 문 뒤로 숨어 귀를 기울였다.

몇 분이 흘렀다. 줄리에트 아시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고개가 점점 더 작업물 쪽으로 기울어졌다.

마침내 에슈트라이히가 속삭였다.

"그녀는 오지 않을 거야. 도중에서 생각이 바뀐 거겠지."

"그럼 우리가 떠나는 게 좋겠군." 동조자가 제안했다.

"너무 급하지는 않은가?"

"의지가 있어. 메달을 찾아내는 거지."

"하지만 이미 두 번이나……."

"우리가 방법을 잘못 썼어. 방식을 바꿔야 해. 늙은 여자는 어쩔 수 없지!"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줄리에트 아시르를 깨울 뻔했다.

"결국 말이야,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하녀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 집에 메달이 하나 있어. 마노르에서 찾는那种那种 것과 비슷한 거.' 그러니 이 기회를 살피자고. 바론에게는 실패했지만, 오늘 밤은 달라질 수도 있어."

"뭐? 너는……?"

"말을 빼내자는 거야. 바론에게 했던 것처럼. 다만, 상대가 여자라는 점이 다를 뿐이지."

드에슈트라이커는 모자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흉악하고 야만적인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 가서 자물쇠를 두 번 돌려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하녀가 잠들어 있는 안락의자 쪽으로 돌아왔다. 잠시 그녀를 응시하던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덮쳐 목을 조르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게 했다.

동조자는 비웃듯 웃었다.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너무 꽉 쥐면 그 불쌍한 여자가 죽어!"

드에슈트라이커는 손가락을 조금 벌렸다. 노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말해." 드에슈트라이커가 명령했다. "남작이 너에게 메달을 맡겼지. 어디다 숨겼어?"

줄리엣 아시르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몸부림쳤다. 격분한 그는 그녀를 흔들었다.

"말 좀 해보지 그래! 그 메달, 네 옛 연인이 준 그 메달은 어디 있니? 그가 너에게 줬지, 그렇지? 부정하지 마. 늙은 뼈다귀야. 네 하녀가 원하면 누구에게든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 자, 말해. 안 그러면…"

그는 벽난로 바닥의 타일에서 구리 공이 달린 철제 화격자 하나를 집어 들고는, 외치며 휘둘렀다.

"하나… 둘… 셋… 스무까지 세면 네 머리를 박살 내!"

제8장

도로테가 숨어 있던 문짝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살짝 밀어 열자, 줄리엣 아시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온전히 목격하고 들을 수 있었다.

강도의 협박이 도로테를 크게 걱정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임을 그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스테리히는 스무까지 세어 보았지만, 노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그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그는 철덩어리를 치워 버리고는 줄리엣 아시르의 손을 잡더니 힘껏 비틀었다. 노파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 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군. 이제야 대답할지도 모르겠어… 그 메달은 어디 있느냐?"

노파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또 한 번 힘을 주었다.

노파는 무릎을 꿇고서는 엉뚱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그를 빌었다.

"말해! 말해!" 그가 외쳤다. "네가 입을 열 때까지 나는 계속 돌릴 거야…"

그녀는 몇 음절을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야? 더 또렷하게 말해 봐, 알았지? 내가 다시 돌려야 해?"

"아니요… 아니요…" 그녀가 간청했다. "이제 말해 드릴게요… 마르누아르 성에서요… 강물 속에…"

"강물 속에? 장난이 심하네. 그걸 강에 던졌다고? 나를 장난감으로 아는 거야?"

그는 그녀를 제압하고 있었다. 한 무릎을 불쌍한 여자의 가슴에 올린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곳에서 도로테는 그 광경을 끔찍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두 남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럼 내가 돌리겠지? 알았지?" 갱단이 으름장을 놓았다. "말하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나 봐? 내가 돌릴까?"

그는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 충격에 줄리에트 아시르가 비명을 지르며 떨었다.

순간,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낸 채 입술을 떨었고, 겨우 말을 잇기 시작했다.

"장롱…… 장롱…… 타일……"

입술은 여전히 경련처럼 떨렸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끔찍하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차츰 진정되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다. 행복해지고, 미소까지 띠었다.

그리고 갑자기 줄리에트 아시르가 폭소했다.

bruised 손목의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떨지 않고 부드럽게 웃었다. 얼굴에는 극락의 평화가 가득했다.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운이 없군." 동조자가 농담조로 말했다. "사람들을 협박하려 하면 항상 엉망이 돼. 남작은 미쳤고, 그의 애인도 정신이 나갔어. 넌 잘될 거야."

화난 드에슈트라이히는 노파를 밀쳤다. 노파는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안락의자 뒤로 넘어졌고, 도로테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드에슈트라이히는 분노에 차 외쳤다.

"운이 없대? 그 말 맞지. 하지만 이번엔 단서를 잡을 수도 있어. 그녀석이 미치기 전에 옷장과 타일에 대해 말했거든. 어느 옷장일까? 저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다 타일로 깔려 있어."

그는 번갈아 가며 도로테가 숨어 있던 작은 방과 벽난로 왼쪽에 있는 옷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옷장부터 시작하지. 저쪽은 네가 알아봐… 아니, 잠깐. 도와주게. 이쪽은 빨리 끝내자."

그는 벽난로 곁에 쪼그려 앉았다. 찬장 문을 열고, 쇠 막대기로 도막 사이의 홈을 파기 시작했다. 공범자는 이미 한쪽 도막을 들어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테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곧 자신의 찬장 쪽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도망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옆에 누운 노파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다. 남자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이었다.

안락의자 뒤로 숨어 있던 도로테는 소리도 내지 않고 팔을 뻗었다. 줄리엣 아시르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레이스 모자를 벗어 자신의 머리에 썼다. 이어 안경을 쓰고, 스카프를 잡아당겨 어깨에 두른 뒤, 검은 serge 원단의 넓은 앞치마로 자신의 허리선과 치마를 완벽하게 가렸다.

그때 줄리엣이 입을 다물자, 도로테가 똑같고 경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두 남자는 더 애를 썼다. 도로테는 일어나고, 허리를 굽혀 노파처럼 보이며 방 안을 웃음꽃을 피우며 뛰어다녔다.

드에슈트뢰에가 중얼거렸다.

"저 미친년, 뭐 하는 거야? 도망가지나 않게 해, 알았지?"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데." 동조자가 말했다.

"창문 쪽?"

"너무나도 높은 곳이야. 게다가 그 애는 오두막을 떠나고 싶지 않아."

소녀는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창틀은 그녀 눈높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창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곤 잠시 멈춰 섰다.

창문을 활짝 열면 밖의 공기와 소리가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그것은 동맹자들에게 경보를 알리는 결과가 될 터였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움직임을 계산하고 분해했다. 자신감에 차고, 놀라운 유연함을 믿으며, 그녀는 적들이 있는 쪽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는 전술적인 실수나 망설임 없이, 창문을 완전히 열어 창틀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정원 안으로 뛰어내렸다.

뒤에서 두 번의 비명이 들렸다. 분노에 찬 외침들이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살펴보고, 진짜 줄리엣의 시체에 부딪혔다.

그 사이 소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원과 울타리를 통해 도망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집 주변을 돌아 절벽을 넘었고, 장미덩굴에 찔려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지만 결국 들판으로 빠져나갔다.

그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드에슈트뢰허와 그의 동료가 어둠 속의 흐릿한 그림자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쏘고 있었다.

도로테가 라울과 아이들을 만나자, 그들은 그녀의 부재에 불안해하며 트레일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험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정확히 일주일 후, 최종 결전이 벌어질 거야."

이 며칠은 두 젊은이에게 매우 달콤한 시간이었다.

라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에 점점 더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내면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테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끼며, 기쁨에 차서 마음껏 자신을 맡겼다.

반면 생탕탕과 그의 동료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도로테, 난 저 녀석이 저 추한 아저씨보다 더 마음에 안 든다. 내 말을 듣는 게 좋겠어."

"우리 뭐 할 거야, 내 사랑?"

"'피-보른'을 끌어내고, 바로 도망치는 거지."

"그럼 보물은?"

도로테는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이잖아."

"보물은 바로 너야, 엄마. 그리고 내가 두려운 건, 그들이 너를 빼앗아 갈까 봐."

"걱정 마, 내 아들. 내 네 아이들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우선이야."

하지만 네 아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위험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마노로보트 성의 담장 사이, 울타리 안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공기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위험은 라울에게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것에서도 왔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뚜렷해져 갔다. 저녁마다 두 번이나, 그들 앞에 부시나무 사이를 기어 다니는 그림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6월 30일, 그녀는 라울에게 내일 모든 하인을 쉬게 하라고 명했다. 내일은 클리송 마을에서 큰 종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하인들 중 가장 튼튼한 세 명을 골라, 오후 4시에 몰래 돌아와서 마뉴에서 500미터 떨어진 작은 여관, 마송 여관 근처에 모여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 세 명은 총을 들고 있었다.

다음 날 도로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그녀는 마당에서 지그를 추고, 영어 노래를 불렀다.

라울을 자신의 작은 배로 끌고 들어가서는 더 이상한 짓을 일삼았다. 배가 몇 번이나 뒤집힐 뻔할 정도였다.

그녀는 손목의 산호 팔찌 세 개를 던지며 놀다가, 그중 하나를 물속으로 떨어뜨렸다. 팔찌를 건지려다 맨손으로 물속을 더듬었고, 팔꿈치까지 물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연못 깊은 곳에서 어떤 광경을 지켜보는 듯했다.

"무슨 일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라울이 물었다.

"비가 온 지 오래됐어. 수위가 내려가서 바닥의 돌과 자갈이 더 또렷이 보여. 그런데 난 이미 그 돌들 중 몇 개가 특정한 순서로 놓여 있다는 걸 눈치챘어. 봐."

"맞아요." 그가 말했다. "정교하게 다듬은 돌들이군요. 마치 거대한 글자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글자들은 단어를 이루고 있어. 'In robore fortuna'라고 읽을 수 있어. 시청에서 오래된 지형도를 참고했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예전에는 오목한 정원의 주된 잔디밭이었어. 그리고 그 잔디밭 한가운데에, 네 조상 중 한 명이 이 모토를 돌 블록으로 새겨 넣었지. 이후 메인 강물의 물이 이곳으로 끌려왔어. 연못이 잔디밭을 대체했고, 모토는 이제 그 아래에 가려져 있는 거야."

도로테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 inscription 아래에 적힌 몇 마디와 숫자도요. 아직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게 바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소. 하지만 흐릿하게."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서 있거든요. 위쪽에서 내려다봐야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그럼 부두 위로 올라가 보자고."

"아니요. 비스듬히 보면 물결에 이미지가 왜곡될 거예요."

"그럼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비행기를 타러 가시죠."

점심 시간, 그들은 헤어졌다. 라울은 식사를 마친 뒤, 마나의 모든 직원들을 클리송으로 데려가는 벤치 의자 달린 마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연못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도로테의 작은 무리가 강가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연못 위 약 삼사 미터 높이에 굵은 철사가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다. 한쪽은 창고의 끝벽에 고정되었고, 다른 쪽은 뷕트 지역의 바위에 박힌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다.

"디블!", 라울이 말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서커스 연습 같은데?"

"맞아요", 그녀가 가볍게 대답했다. "비행기가 없어서, 공중 곡예로 대신하려고요."

"뭐라고?", 그가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 하지만 추락은 피할 수 없어요."

"수영은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 반대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당신에게는 추摇摆추(추)조차 없소."

"추摇摆추요?" 그녀는 몸을 피하며 물었다. "그게 또 뭐요? 안전망이라도? 구조용 밧줄이라도?"

그녀는 마구간 안쪽 계단을 올라와 지붕 가장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중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선보일 때처럼,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흰색과 붉은색의 넓은 줄무늬가 있는 천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진홍색 실크 스카프는 가슴 위에서 교차되어 있었다.

라울은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대위가 그에게 다가왔다.

"도로테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줄 생각이야?" 그는 친밀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이지."

"그럼, 가보시죠, 선생."

도로테는 그러나 한 발을 내디뎠다. 발가락 사이로 천이 갈라진 샌들 속에 맨발이었던 그녀의 발은, 수영장이 물속의 차가움을 더듬듯 철사를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빠르게 철 위를 걸었다. 미끄러지며 몇 발짝을 나간 뒤 멈췄다.

그녀는 양옆으로 인사를 했다. 많은 관객이 있는 줄 알리려는 듯이. 다시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다리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몸통과 팔을 흔들어 새가 날갯짓하듯 그녀를 받쳐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연못 위까지 도달했다. 철사는 덜 팽팽해져 그녀의 무게에 굽었다. 그녀를 다시 공중으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췄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선을 단단히 고정해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눈앞의 공허함을 의지할 안정적인 곳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흔들리고 반짝이는 물결을 내려다보며, 햇살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반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글자와 숫자를 읽어야 했다.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 시도해야 했고, 한순간 공중으로 기울어질 듯할 때 다시 몸을 일으켰다.

두어 분간, 정말로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두 팔을 조화롭게 펼치는 인사로 그 순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마자,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라울은 연못 끝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이미 건넜다. 그녀가 철사 끝이 닿는, 일종의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의 떨리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럼요?" 그가 물었다.

"그럼요. 우리는 날짜로 강조된, 우리가 해독하지 못했던 그 연호를 분명히 읽었어요. 1921년 7월 12일."

"그래서 올해 7월 12일이 바로 오랫동안 예고되어 온 그 큰 날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도로테는 생탕탕을 불러 낮게 몇 마디 속삭였다. 잠시 후, 생탕탕이 말차에서 나와서 역도 선수용 마우스를 입고 돌아왔다.

그는 도로테와 함께 배에 올랐다. 도로테는 그를 연못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생탕탕은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맡겼다. 잠겼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배 안으로 꽤 무거운 물건을 던졌다. 도로테가 그것을 재빨리 받아 들고, 그들이 다시 부두에 닿자 라울에게 건넸다.

그것은 금속 원반이었다. 녹슨 철이나 구리 같았다. 접시만 했고, 거대한 시계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두 장의 판이 붙어 만들어졌을 것 같았지만, 가장자리가 용접되어 있어 열 수 없는 상태였다.

도로테는 동전의 한쪽 면을 문질렀다. 그리고 손으로 라울에게 거칠게 새겨진 한 단어를 보여 주었다.

'포르투나'.

"제 잘못이 아니에요." 도로테가 말했다. "옛날 줄리엣 아시르가 먼저 강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남 중 한 번에서 남작이 이 금속 상자에 금화를 넣어서 던졌겠죠. 연못 바닥보다 더 좋은 은신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금화를 사용해야 할 그 날까지 숨겨둘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아무 아이나 그걸 건져 올렸을 테니까요."

그녀는 기쁨에 넘쳐 동전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리고 돌멩이 세 개와 함께 공중에서 동전을 받아내며 주사위 던지기를 하듯 놀았다.

그러나 대위가 지적했다. 클리송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일행은 재빨리 마너로 내려갔다. 생탕탕은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라울은 차를 시동 걸어 차고에서 빼냈다. 세 소년이 차에 오르는 사이, 라울은 테라스에 앉아 작은 테이블 앞에 앉은 도로테에게로 다가갔다.

"우리 안 따라오나요?"

그날 하루 종일, 라울은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들이 완벽한 순서로 이어졌고, 그 논리와 정확함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완벽했다. 현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정밀함이었다.

물론 그는 도로테의 속내를 다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향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즉 데스트레슈를 체포하는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계략으로 가능했던 걸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그러니 손짓도 하지 마시고, 항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녀는 탁자 위의 원반을 돌리며 장난치듯 놀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평온한 어조로, 자신의 계획과 작전 중 일부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이렇게요. 며칠 전 제 이름으로 공판검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경찰이 뒤쫓고 있는 에스트리히르 씨가, 다베르노이 남작과 줄리엣 아시르 부인에게 살인 미수를 저지른 죄목으로 오늘 뷔트 도메인에 있을 것이라고 알린 거죠. 그리고 당신을 찾아와서 오후 네 시에 마송 여관에 있게 하라고 경찰관 두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은 네 시 사십 분이잖아요. 가요, 라울. 당신의 하인 세 명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형사와 하인 세 명을 데리고 다시 여기로 올 거야. 하지만 직행로는 피하고, 생탕탕탱과 그의 동료가 알려줄 오솔길을 이용해야 해. 그 길에는 이미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어. 너는 그 사다리를 벽에 기대어 세우기만 하면 돼. 데스트레슈와 그 공범자는 이미 그곳에 있을 거야. 총으로 그들을 제압해 두고, 형사들이 와서 체포하게 하면 돼."

"데스트레슈가 꼭 부트(Buttes)에서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설령 부트가 그의 은신처라 하더라도요."

"물론이지. 이 메달을 봐. 그가 이 메달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제 곧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다시 이 메달을 되찾지 않겠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의 모든 위협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에도,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정신력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바로 그때, 충실한 종인 골리야스를 따르며 노령의 남작이 그들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그녀는, 곧장 라울에게 자신의 관찰 결과를 전했다.

"할아버지가 최근 며칠 동안 유난히 초조해하지 않으세요? 그분도 깊은 직관으로 사건의 임박함을 느끼고 계세요. 행동하고 싶어 안달이 나시지만,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과 맞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라울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를 단둘이 데스트리슈 형제와 마주하게 내버려두는 생각은 그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오늘 밤 모든 걸 준비해 뒀군. 경찰도 알렸고, 하인들도 지시했지. 만남 시간도 정해졌어. 그래. 그런데…"

그가 멈춰 서서 물었다.

"네가 어떻게 알았지? 이 원반이 발견되는 게, 정확히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일 줄은 어떻게 알았어?"

"라울, 내 말 들어.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야. 모두 급히 돌아와. 데스트레슈가 여기 나타나는 건 단순히 메달을 노려서가 아니야.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

"바로 나야, 라울."

이 말에 젊은이의 결심이 굳어졌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과수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생캉탱이 큰 대문을 열자, 차가 지나간 뒤 문은 다시 닫혔다.

도로테는 혼자였다.

그녀는 최소 12분에서 많아야 15분까지,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남아야 했다.

그녀는 등받이를 바위에 기대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손으로 디스크를 만지며 용접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사람처럼, 아

주 바쁜 듯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의 비밀이나 약점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전하는 소리나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다.

확신과 의심이 그녀를 번갈아 지배했다. 한순간 흔들림 없는 확신이 그녀를 받쳐주면, 다음 순간에는 의심과 낙담이 몰려왔다.

에스트라이커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오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 동전은 그에게 미끼처럼 작용했고, 그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는 경계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작은 꾀는 정말로 유치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보석 상자, 그 메달, 그리고 라울과 아이들의 떠남. 그리고 빈 농장에 혼자 남은 나.'

'내 유일한 임무는 오히려 내 발견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인데.'

'사실 이 모든 게 너무 인위적이야. '다스트레르' 같은 늙은 여우라면 함정을 피할 거야.'

그리고 곧장 문제의 다른 측면이 떠올랐다.

‘그는 올 거야. 어쩌면 이미 굴을 빠져나왔을지도 몰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 물론 그는 위험을 눈치챌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을 때 말이야.’

‘지금 이 순간, 그는 행동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없어. 그는 복종하고 있을 뿐이야.’

이처럼 도로테는 또 한 번,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건을 꿰뚫어 보는 강렬한 직관에 따라 움직였다.

사실들은 그녀의 머리속에서 논리적인 순서와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들이 아직 형성 단계에 불과할 때, 이미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는 언제나 그녀에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직관이 그 실체를 보여주고, 날카로운 지성이 즉각적으로 상황에 맞춰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했듯, 드에슈트뢰커의 유혹은 두 가지였다.

그녀가 메달의 함정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하든 도로테 그 자체라는, 놀랍도록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못 옆을 건너는 나무 다리를 누군가 걷고 있는 모양이었다.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그녀의 오른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어 왼쪽에서도 소리가 났다. 데슈트뢰에는 동조자 두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녀는 포위당했다.

그녀의 시계는 네 시 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9장

'만약 그들이 나를 덮친다면?' 그녀가 생각했다. '드에슈트레슈의 의도가 나를 바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사이도 없이, 그들은 나를 지하 통로로 끌고 갈 것이고, 그곳에서 또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왜 다른 결과가 나왔겠는가? 메달을 손에 쥔 그 강도가 도로테를 붙잡기만 하면, 도망갈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드에슈트레슈를 밖으로 나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온 틈을 타 그를 잡으려던 그녀의 계책은 지나치게 교묘했다. 현실이나 우연의 악의가 그 틈을 찌를 수 있었다. 몇 초를 잃었느냐, 얻었느냐에 승부가 갈리는 전투는 이미 위태로웠다.

도로테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창고 한구석에 쌓인 잡동사니 더미 밑으로 손을 뻗어, 원반을 밀어 넣었다. 그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만큼 적의 도주를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던 순간, 데슈트뢰커가 문턱에 서 있었다. 두꺼운 수염과 안경 너머로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막아섰다.

도로테는 결코 권총을 지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용기와 지혜에만 의지해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순간, 그녀는 그걸 깊이 후회했다. 바로 그녀를 죽인 남자의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눈앞에서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첫 번째 충동은 그를 쏴 죽이는 것이었다.

그의 적의 어린 마음을 간파한 그는, 노파 아시르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비틀었다. 그러고는 그녀 위로 몸을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해… 어디다 숨겼어?"

그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통증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작은 방으로 이끌며, 쌓여 있는 물건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곧바로 원반을 찾아 들었다. 무게를 재어 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다 됐군. 승리의 순간이야. 스무 해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에 더해서, 바로 너, 도로테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모할 만한 보상을 얻게 되었지."

그는 자신의 옷가치를 만져보며 무기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도로테를 팔로 껴안았다. 그리고는 평소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기운을 발휘해, 그녀를 어깨 너머로 메어 올렸다. 도로테의 머리는 앞으로 늘어져 있었다.

"걱정하지 마, 도로테." 그가 비웃었다. "어째, 조금도 저항하지도 않아? 참으로 현명한 아가씨군!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게지…"

바깥으로 나가자, 그는 큰 대문을 지키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다. 한 명은 줄리엣 아시르의 집에서 본 적이 있는 공범자였다. 다른 한 명은 작은 창문의 철망에 얼굴을 바짝 대고 길을 감시하고 있었다.

드에슈트뢰에르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눈을 빛내라, 친구들. 우리 양떼가 털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내가 휘파람을 불면, 곧장 뵈뜨쪽으로 쫓아들어가."

그는 짐을 지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동굴의 습기가 배어든 그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젊은 여자는 코끝으로 맡았다. 그는 그녀의 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힘겨운 손길은 그녀의 살을 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다리에 도착했고, 그 위로 올라서려 했다. 아마도 백 미터쯤 떨어진 곳, 수풀과 바위 틈새 어딘가에 지하 통로의 출구가 열려 있을 것이다. 이미 남자는 입에 피리를 물고 있었다.

도로테는 재빠른 동작으로 그의 주머니에서 살짝 튀어나온 금속 원반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 쪽으로 던졌다. 원반은 땅 위를 굴러가며 제방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이내 물속에 잠겼다.

"젠장, 귀여운 녀석아."

남자는 그녀를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포효했다.

"움직이면 머리를 박살 내겠어."

그는 비탈을 내려가서 강둑의 끈적한 진흙탕을 헤치고 나갔다. 도로테를 주시하면서도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소녀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하인들이 나타날 만한 성벽의 정상 부분을 번갈아 가며 예의주시했다.

분명히 약속 시간으로부터 이미 오 분은 지났고,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냉정함을 잃어버린 드에슈트뢰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그 틈을 자신이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 넌 시간을 벌려는 거지, 내 사랑. 그리고 나서 뭐 할 셈이야? 내가 너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안 돼! 나는 너희 둘, 그리고 그 금화를 다 잡았어. 네 시골 친구 라울이 나타나서도 내가 손을 놓게 하지는 못해. 설령 그가 와도 그는 운이 없는 거야. 내 부하들은 명령을 받았거든. 머리를 몽둥이로 한 대 치라고."

그는 다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승리의 외침을 지르며 일어났다. 손에는 원반이 들려 있었다.

"자, 여기 있어, 사랑스러운 여인아. 확실히 운은 내 편이야. 넌 실패했어. 가자, 사촌 도로테."

젊은 여자는 벽 쪽으로 한눈을 보냈다. 아무도 없었다. 혐오스러운 남자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그녀가 몸을 빼려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크게 웃었다. 모든 저항은 이미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격분한 듯 굳어버린 두 팔을 힘차리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도로테를 어깨에 메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 동작에는 갈망만큼이나 증오가 서려 있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도로테. 라울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에게 작별을 고세요. 만약 다시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은 그에게보다 저에게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될 테니까요."

그는 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부트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서른 초만 더 지나면, 설령 공격을 받는다 해도 데스트레슈는 총을 든 형사들이 모습을 드러낼 벽의 지점에서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지하 터널 입구에 닿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도로테는 이미 패배했다. 라울과 경찰들은 너무 늦게 도착할 뿐이었다.

"네가 여기 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모를 거야." 드에슈트라이커가 속삭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너를 끌어당기는 것도."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지? 울고 있는 거야? 안 그래, 내 사랑. 어차피 언젠가는 멋진 라울의 가슴에 기대어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내가 그보다 더 싫증나게 할 이유는 없지, 그렇지?"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 참! 또 우는 거야? 그만해!"

그는 그녀의 몸을 돌려 어깨 너머로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잡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도로테는 웃고 있었다.

"왜 웃어? 어떻게 너는 웃을 수 있어?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 웃음은 그에게 위험한 위협처럼 느껴졌다. 이 여자는 왜 웃고 있는 걸까? 갑자기 치밀어 오른 분노가 그를 들뜨게 했고, 그는 그녀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앉힌 뒤, 멍청하게도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낀 반지를 내밀어 그녀의 이마를 때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튀어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입마개를 한 채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당신이 정말 멍청하군요!"

"웃으면 네 입술을 물어뜯을 거야, 이 나쁜 년아." 그는 그녀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그는 몸을 굽혀 입마개를 벗겨낸 그녀의 붉은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그런 짓을 감행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존중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당황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겁을 먹고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는 반복해서 물었다. "네가 울어야 마땅한데, 왜 웃는 거야? 왜?"

"저는 접시 때문에 웃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떤 접시라고?"

"메달을 감싸고 있는 접시들 말이야."

"그 접시들?"

"그래?"

"글쎄, 둘 다 도로테 서커스의 접시였어. 내가 그 접시로 공중제비를 돌리던 거지……"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설명할게. 생캉탱이랑 내가 이 둘을 함께 납땜했어. 칼로 마법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고, 오늘 밤 그 접시들을 강물에 던졌지."

"너 미친 거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거지?"

"늙은 아시르가 고문을 받으며 뱉어낸 자백에 강물이 언급되었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 함정에 빠질 거라 확신했어."

"어떤 함정?"

"너희를 여기서 끌어내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네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당연하지! 당신이 물고기 낚시 대회를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했어요. 그 상자가 물속에서 발견되어, 당신 눈앞에 놓였을 때 안에 메달이 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셨죠. 동시에 라울이 떠나가고, 제가 저택에 혼자 있다는 것도 보셨을 테고. 그럼 당신 안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당신은 오셨죠."

그는 말더듬듯 물었다.

"금화… 그 상자 안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상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라울은… 라울을 기다리는 거야?"

"혼자?"

"경찰들과 함께요. 만나기로 했죠."

그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비루한 녀석, 나를 고발했어?"

"네, 당신을 고발했어요."

에스트레허는 그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단 한 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금속 원반을 손에 쥐고 있었다. 칼끝으로 용접 부분을 뚫는 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원반은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야 그는 연못에서 그녀가 펼친 전체 연극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가 이상하게 여겼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느꼈던 불쾌감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도착했다. 맹목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자신 앞에서 그토록 대담하게 준비해 둔 함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단단히 자신을 감싸는 그 그물망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쯤에서 물러납시다." 그는 위태로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성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마치 온몸이 지친 듯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희생자를 재차 공격하기보다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원반은 비어 있다고 치자. 하지만 메달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

"물론이죠." 도로테가 대답했다. 그녀는 시간을 끌 생각뿐이었으며, 시선은 재빠르게 벽 꼭대기를 살피고 있었다.

남자의 눈이 빛났다.

"아, 알고 있군. 그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네가 그걸 안다면, 이제 말해야 해, 우리 애인아. 안 그러면……"

그가 권총을 꺼냈다.

도로테는 농담조로 말했다.

"줄리엣 아시르 때처럼요, 맞죠? 스무까지 세는 거요. 헛수고예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맹세하는데, 천하장사……"

"말장난이군요."

아니, 분명히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로테는 지친 몸이었지만, 얼굴은 피투성이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상황을 붙잡으려 처절하게 애썼다.

그녀는 데스트라이허가 분노에 치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당황해하며 자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또렷이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저주받은 메달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없었다. 그의 주저가 몇 분만 더 이어진다면, 라울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젊은 여자가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숙이며 그 장면을 주시한 걸 보면, 그녀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관심을 끌었는지 알 수 있었다.

노령의 남작이 저택에서 나왔다. 손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평소에 입던 작업복이 아니었다. 대신 양복 재킷을 입었고, 모자도 펠트 모자를 썼다. 이는 그가 평소와 달리 신중하게 차려입었다는 뜻이었다. 즉, 무언가深思熟虑(신중히 생각)했다는 방증이었다.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골리앗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는 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개가 나타나자 목줄을 잡고 방향을 잡은 뒤,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동조자들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그는 몇 마리의 투덜거림을 내뱉으며 지나가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다. 화가 난 그는 결국 개를 놓지 않은 채로 숲속으로 물러났지만, 손가방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도로테도 드에슈트뢰커처럼, 이 노인이 보물을 찾아 나서는 길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비록 미친 듯이 행동했지만, 그는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

중요한 날이 다가오자, 그는 마치 시계를 맞춘 장난감처럼 행동했다. 정해진 날이 되면 짐을 싸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길을 나섰다.

드에슈트뢰커는 공범들을 불렀다.

"짐을 뒤져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훈장도, 단서도 없었다. 그는 잠시 도로테 앞을 서성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섰다.

“내 말에 답해라. 라울은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만약 네가 그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지난 열흘 동안 이어져 온 너희의 사적인 교제를 바로 제지했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너는 그에게서 medal과 보물에 대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군. 너희는 이미 손을 잡은 사이야. 별다른 건 아니야, 내 사랑. 너를 편하게 해 주마. 너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러고 나면 너는 반드시 입을 열게 될 거야. 그러니 대답해.”

"이 medal이 내게 놀랍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네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훔쳤으니까. 넌 뭐라고 생각해?"

"그 medal이 당신에게서 다시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맞아. 하지만 누가 빼앗았는지 알아?"

"라울의 아버지, 조르주 다베르누아에게서요."

그녀는 몸을 떨며 반박했다.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기억나지? 우리 사촌 샤니가 로보리에서 읽어준 그 편지 말이야. 아르곤 공작은 병원에서 보낸 밤, 즉 창문 아래서 두 남자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테이블 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손, 그리고 메달을 훔쳐내는 장면을 묘사했지. 그리고 아래에서 기다렸던 남자, 즉 동료를 도와 그 작전에 함께했던 남자는 바로 조르주 다베르누아였어. 그리고 이 악당인 다베르누아는 바로 그날 밤, 동료를 털어냈단 말이야."

도로테는 분노와 반발로 몸이 떨렸다.

"거짓말! 라울의 아버지라니! 그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가 도둑이라니!"

"그것보다 더한 일이야, 도로테. 이번 작전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 그리고 독을 넣은 남자, 아르곤 공작이 문신 든 팔을 본 그 남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한다 해도, 그는 독을 제공한 쪽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요! 당신이 유일한 범인이죠! 오직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못하겠어? 여기, 그가 노후 백작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즉,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야. 백작의 서류들에서 내가 이 편지를 찾아냈어. 읽어봐."

"나는 마침내 필수적인 금화를 손에 넣었다. 다음 휴가가 되면 그것을 가져오겠다."

"날짜도 봐라! 아르곤 공작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잖아! 이제야 믿겠니? 그리고 라울 같은 약삭빠린 놈 말고는 우리끼리 잘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젊은 소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몸을 가다듬고, 태연한 척하며 데스트레히르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야. 남작에게 가져다 주었던 금화 말일세. 남작이 잠시 전 연인에게 맡겼다가, 결국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알 수 없이 방치된 그 금화

말이야. 그건 네 것이야. 라울은 그 금화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지. 내가 너에게서 그걸 사겠네."

"얼마에?"

"네가 원하는 대로. 만약 원한다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네."

도로테는 즉시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파악했다. 다시금 몇 분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몇 분은 어쩌면 결정적인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녀는 마법 같은 부적(탈리스만)을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일 수 있었겠는가?

데스트라이히는 이미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다가올 공격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순간적인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는 순간, 그는 영원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었다.

"우리 사이의 동맹? 절대 안 돼! 공유라니… 뭐든 좋으니 너의 동료가 되다니, 천만에, 나는 너를 증오해. 하지만 잠시 동안의 합의라면,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

"네 조건은?" 그가 물었다. "빨리 말해라. 내가 네게 조건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동안, 그 기회를 활용하라."

"간단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메달과 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달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 메달을 주마."

"내가 그 메달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명예를 걸고 맹세해 줘."

"맹세합니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다섯 분 전부터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었죠. 제게 단서를 알려 준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눈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하는 모든 말은, 오직 정확한 진실일 뿐이었다.

"말해 봐."

"먼저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가 약속을 이행하는 즉시 저를 자유롭게 해줄 것을, 맹세해 줘."

도둑의 눈이 번쩍였다. 서약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는 그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이 우습게 느껴졌다. 도로테 역시 그 서약이 아무런 효력도 없을 줄 잘 알고 있었다.

"저는 맹세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어 다시 입을 열었다.

"말해라. 네가 무슨 꾀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영 찝찝하군. 그래서 나는 경계하고 있다. 기억해두렴, 아름다운 여인아."

그들 사이의 대결은 가장 치열한 국면에 달해 있었다. 이 싸움이 특별한 이유는 서로가 상대방의 수를 정면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테는 라울이 뜻밖의 지연을 겪은 뒤, 이제 호로 향하고 있으리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다. 데스트라이처 역시 그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도로테가 자신의 모든 행보를 이 즉각적인 개입에 걸고 있다고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작은 변수가 하나 있었다.

데스트라이처는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대문 철창 근처에 붙어 있던 두 동조자가 길을 주시하고 있고, 자동차의 도착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 여자는 라울에게 자동차를 버리고 숨겨진 길을 이용하라고 명했다. 도로테의 모든 희망은 이 작은 디테일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의 설명을 이어갔다. 어쨌든 대화의 시간을 끌고자 하는 그녀의 의도는 변함없었다.

"저는 늘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작은 거의 그 동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데스트라이허가 반박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그가 동전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동전을 품고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있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그는 늘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보았을 거예요."

"아니요. 방금 전까지도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방금 전이라고요?"

"맞아요. 그가 떠날 때였죠. 병들기 전에 스스로 정한 바로 그날, 본능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이 따라 떠났을 때요."

"떠났지만, 메달은 가져가지 않았어."

"메달을 가지고 갔죠."

"짐을 뒤졌는데."

"짐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천하의 미친놈 같으니라니! 넌 그보다 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잖아. 아무것도 못 봤다고?"

"짐만 든 게 아니라는 건 봤어요."

"뭐라고?"

'골리앗'이었죠."

드에슈트레커는 그 짧은 단어와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골리앗," 도로테가 계속했다. "그가 절대 놓지 않던 골리앗, 손이 닿는 곳에 항상 있던 골리앗을 그가 들고 떠났어요. 지금도 들고 있죠. 보세요. 그의 다섯 손가락이 짐승의 목걸이를 꽉 쥐고 있는 걸. 목걸이를 들어보세요!"

이제 다시 한 번 드에슈트뢰허는 의심하지 않았다. 소녀의 진술은 현실이 제시하는 모든 단서와 완벽하게 일치해 보였다. 다시금 도로테가 빛을 가져왔다. 이 빛이 아니면 어둠과 모순뿐이었다.

드에슈트뢰허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행동에 나설 의지가 즉각적으로 솟아올랐고, 동시에 그는 시도 시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모든 예방 조치를 명확히 파악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끈을 꺼내 도로테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매듭을 지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면, 너에게 불행이 닥칠 거야, 내 사랑. 네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면, 그건 네 탓이야. 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놈이니까."

그는 동료를 불렀다.

"여기 봐! 길에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어요."

"눈을 빛내. 3분 뒤면 떠난다. 내 휘슬 소리가 들리면 터널 입구에 모여라. 나는 아이를 데리고 갈 거다."

무서운 협박이었지만, 소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모든 비극은 저 멀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드에슈트뢰허와 남작 사이에서 말이다.

드에슈트뢰허는 돌담을 내려달려 강을 건너, 테라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향해 돌진했다. 골리앗의 머리가 그의 무릎에 기대어져 있었다.

도로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금화 발견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 금화가 목걸이에 들어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연기를 위해 쏟아부은 그 마지막 힘이 헛되지나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총열이 한 분 안에 담장 꼭대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데스트리슈가 나를 이긴 것이다."

그녀는 굴욕을 감당하기보다 죽는 편이 나을 만큼 완고했다. 따라서 이 한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상황이 그녀에게 준 휴식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데스트리슈가 개에게 달려갔지만, 남작으로부터 뜻밖의 저항을 마주쳤다. 노인은 분노에 차 그를 밀어냈고, 골리앗은 악당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포효했다.

싸움은 길게 이어졌다. 도로테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그 양상을 지켜보았다. 라울의 할아버지를 온힘으로 응원했고, 강도들의 에너지와 완고함을 저주했다.

마침내 노령의 남작이 지친 듯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골리앗도 같은 피로감을 느낀 듯했다. 그는 주인의 발치에 누워, 무심한 듯 손길을 받아들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드에스트라이커는 목걸이를 잡았다. 두꺼운 털 밑에서 손가락은 못머리가 박힌 가죽을 더듬었다. 그렇게 고리가 풀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벽 꼭대기에 마른 체구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한 목소리가 외쳤다.

"손 들어!"

도로테는 다시금 미소 지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해방감이 밀려왔다. 장애물 때문에 늦어졌던 그녀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먼저 모습을 드러냈던 생캉탱 근처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총검이 길게 늘어졌다.

에스테리히는 순간 일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번의 외침이 다시 터져 나왔다.

"손 들어! 손 들어!"

소녀가 지목한 두 곳에 새로운 총구가 겨눠졌다. 세 자루의 총이 오직 에스테리히만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총성이 귀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팔을 벌렸다. 공범들은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 누가 그들을 쫓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미로'라 불리는 외로운 언덕 쪽으로 향했다.

큰 문이 갑자기 열렸다. 라울이 돌진했다. 도로테가 알지 못하는 두 남자가 그를 뒤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신고한 대로 파견된 경찰들이었을 것이다.

드레스트레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은 여전히 들어 올린 채였다. 만약 실수 하나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저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실수 덕분에 그는 잠시나마 몸을 움직일 자유를 얻었다. 세 명의 습격자가 그를 에워쌌다. 그들 때문에 드레스트레르는 이삼 초 동안, 자신을 겨누고 있던 하인들에게서 숨어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권총을 겨누어 연달아 네 발을 쐈다. 세 발은 빗나갔지만, 네 번째 총알은 라울의 다리를 맞췄다. 라울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다.

하지만 분노와 폭력적인 반동은 결국无用했다. 습격을 받자마자 드레스트레르는 무장을 해제당했고, 저항할 힘을 완전히 빼앗겼다.

그들은 철제 마차를 그에게 건넸다. 그사이 그는 식물들이 엉킨 덤불 뒤로 거의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도로테의 모습을 눈으로 찾았다. 그의 시선에는 끔찍할 정도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산탕탕과 몽포공이 도로테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 주변으로 바삐 모여들었고,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본 충격으로 당황해했다.

"말하지 마!" 그녀가 그들의 질문을 끊으며 명령했다. "네, 나는 다쳤어. 하지만 별일 아니야. 대위, 말에 올라타 바론 곁으로 달려가.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쓰다듬어 주며 목걸이를 풀어줘. 그 목걸이

안에는, 이름이 새겨진 금속판 아래에 안감으로 된 작은 주머니가 있어.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메달이 들어 있어. 그것을 내게 가져다 줘."

소년이 달려나갔다.

"생캉탱에서는요, 도로테가 계속했다. '경찰들이 저를 본 걸까요?'

'사람들한테 제가 방금 전에 마노를 떠났다고, 그리고 로슈쉬르용의 현청 소재지에서 저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게 해야 해요. 저는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요. 조사만 받으면 시간만 낭비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베르누아 씨는요?'"

"언젠가 그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거든, 꼭 알려줘. 내가 나중에 그가 알게 될 사정으로 떠났다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일에 침묵을 지켜달라고 전해주라고 해. 게다가 그도 상처를 입었잖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는 부트 지역을 뒤져 동범들을 색출할 테니까. 내가 눈에 띄면 안 돼. 성-캉탱, 나를 나뭇가지로 덮어줘. 좋아… 이제 오늘 밤, 너희 네 명이 다 와서 나를 태워주렴. 마차로 나를 실어 나르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며칠 동안 아플지도 몰라. 과로와 지나친 감동의 여파일 뿐이야.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내 아들?"

"네, 엄마."

예상대로 두 경찰은 데스트레히를 만요르에 가둔 뒤, 하인 한 명을 따라 그녀 근처를 지나쳤다.

그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그들은 공범들이 도망친 미로의 출구를 찾아낸 것이다.

"추적은 무의미해. 먹이가 이미 너무 앞서 나갔어."

도로테는 온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몬포콘이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생탕탕탱에게 공격 시간을 미룬 이유를 물었다.

"우연이었지, 그렇지?"

"그래." 그가 대답했다. "경찰이 여관을 잘못 들어섰고, 하인 세 명은 축제에 빠져 늦게 돌아왔어. 모두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고, 차도 고장 났지."

그때 몬포콘이 달려왔다. 도로테가 다시 말했다.

"생캉탱이군. 동전 이름에 도시 이름이, 아니면 성(城) 이름이 새겨져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경우엔 알아보고, 그 단서에 따라 유람차를 몰아."

"대위님, 찾았습니까?"

"네, 어머니."

"다오, 내 사랑."

모두가 목말라 하던 그 동전,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귀중한 부적이라 여겨지던 그 동전을 도로테가 손에 쥐는 순간, 그녀는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지름이 5프랑 주화보다 두 배쯤 컸다. 무엇보다 두껍고, 현대식 동전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거칠게 빚어졌고, 빛깔도 어두워 반짝임이 없었다.

한쪽 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In robore fortuna』

다른 쪽 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칠월 십이일." 도로테가 속삭였다. "기절할 시간이 충분해."

그리고 그녀는 기절했다.

제10장

드디어 사흘이 지나서야 도로테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하고 열까지 오른 그 극한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네 명의 남자 배우들은 나트르 교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몬포콘이 단장의 자리를 대신해 주연으로 나섰지만, 그다지 볼 만한 공연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위'라는 배우가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아 수입은 괜찮았다.

상탕탕은 도로테에게 이틀 더 쉬라고 명령했다. 급할 게 뭐가 있겠는가? 라로슈페리아크 마을은 나트르에서 고작 12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출발 시기를 공연 날짜 여섯 달 전으로 미뤄도 충분했다.

그녀는 남의 말에 순종하는 체했다. 수많은 역경과 격렬한 감정의 여파로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라울 다베르누아를 많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분노와 반발이 섞여 있었다. 최근 몇 주간의 친밀함이 그 젊은이에 대해 불러일으켰던 다정함 때문이었다.

아르곤 공작의 죽음이라는 비극에 라울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의 실행을 도운 에슈트레히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행의 여운이 소녀를 달래 주었다. 타고난 열정과 낙천성이 옛날의 불쾌한 기억과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다시금 모든 힘을 되찾았다. 생에 대한 기쁨, 아이 같은 활기,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까지.

"생캉탱이라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 금양모(황금 양모)를 사러 가는 거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나가는 날들이 얼마나 엄숙한지 알아? 네 날… 세 날… 두 날… 그리고 금양모는 우리 것이 돼."

"생캉탱 남작, 이십 일만 지나면 당신은 단디처럼 차려입게 될 거요."

"그리고 너는 공주처럼." 생캉탱이 대답했다. 그는 친구와의 사적인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 부의 전망이 별로 기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많았고, 어쩌면 싸워야 할 적들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잠시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었다. 드라마의 첫

막이 끝난 것이다.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호기심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신비로운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빌레인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제 강 우안, 강을 내려다보는 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뜨거운 태양이 피-보르뉴를 지치게 만들었다.

드디어 이튿날, 7월 11일이었다. 그들은 나무 기둥에 붙은 표지판을 보았다.

「로슈페리아크까지 20킬로미터」

"오늘 밤 우리는 거기에 묵을 거야." 도로테이가 말했다.

고역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였다.

그들은 길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먼지 쌓인 풀밭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백 미터 앞에서는 한 여성이 구부러진 발을 끌며 아이를 데리고 걷고 있었지만, 한쪽 눈이 먼 피에보르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네 소년과 도로테는 번갈아 가며 노인과 함께 수레 근처에 앉았다.

그는 가난과 궁핍에 찌든 초로의 노인이었다. 헐벗은 옷은 실 조각 몇 개로 간신히 붙어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엉킨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도로테가 그의 삶을 묻자, 그는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한 마디를 내뱉었다.

"불평할 게 뭐가 있소. 우리 아버지, 길가 연마공이셨지. 늘 내게 이 말을 하셨소. '자네 이름이 자크니, 자크, 용기만 있으면 불행할 일이 없네. 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비결을 내가 자네에게 전하네. '부(富)는 용기 안에 있소.'"

도로테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물었다.

"상속 재산이 그리 무겁지는 않군요. 그 비결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네." 남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언도 있었죠. '매년 7월 12일, 라로슈페리아크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라. 그 사람이 자네에게 천 프랑, 백 프랑을 줄 것이오.' 매년 그곳에 가요. 지금까지 받은 건 동전뿐이지만, 그래도 그 생각만 있으면 힘이 납니다. 내일도 갈 거예요. 작년처럼, 내년에도요."

남자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로테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한 시간 후, 그녀는 발이 굽은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를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두 사람은 마침내 그들에게로 다가와 있었다. 도로테는 그 여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자는 파리의 공장 노동자였다. 아이의 발을 고쳐 달라며 라로슈페리아크 성당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 집안에서는, 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다 똑같이 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면 7월 12일에 라로슈페리아크의 생포르튀나트 예배당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아이가 낫는 셈이죠.”

이 두 갈래의 길로 전설은 평범한 한 여인과, 거리의 행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갔다. 하지만 이미 왜곡된 전설이었다. 초기의 진실은 단편적인 조각들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성당이 성채를 대신했다. 산포르튀날이 운명을 대신했다. 오직 날짜만 중요했을 뿐, 연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적인 도움을 바랐던 수많은 가족들이 그랬듯, 이 땅을 향해 순례를 떠났다. 금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행렬은 마을에 도착했다. 도로테는 곧장 라로슈페리아크 성에 대해 물었다.

그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반도에 자리한, 오션에서 불과 9킬로미터 떨어진 폐허뿐이었다.

“여기서 주무시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젊은 여자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았다. 한밤중, 그들이 말썽꾸러기 말썽을 피우기 위해 세운 천막 아래에서, 성크탕탱은 연기와 타는 냄새에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천막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도움을 요청했다. 운 좋게도 그 길에 지나가던 농부들이 달려왔다.

그때가 바로 그 때였다. 그들이 천막을 끌어냈을 때,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도로테와 그녀의 동료들은 아무 탈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한쪽 눈이 먼 피에보르뉴는 반쯤 익은 채로, 마차에 매달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마차의 막대가 그의 상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곱 시가 되어서야, 천막은 나쁜 말을 끌고 출발했고, 피에보르뉴가 뒤따랐다.

교회 광장을 지나던 그들은 현관 아래에서 한 여자와 그 아이,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했다. 이들에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 외에는 별일 없었다. 생캉탱만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유람차 안에서 서로 기대어 잠들었다.

아홉 시 삼십 분에 차가 멈췄다. 그들은 '여관'이라고 적힌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아무로 부인은 걸어서 오든, 말을 타든, 마차를 타고 오든 묵게 해 드립니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 낮은 절벽으로 끝나는 경사지 아래에는 페리아크 반도라는 작은 반도가 있었다. 그곳은 대양으로 다섯 개의 곶을

뻗어냈는데, 마치 한 손의 다섯 손가락처럼 보였다. 왼쪽에는 빌렌 강 하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곧 원정 여행의 끝이었다. 반쯤 어두운 방에서 식사를 했다. 아연으로 된 카운터가 있는 이 방은 카페로 쓰이고 있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피에-보르그를 돌보았다. 도로테는 라 로슈페리아크의 폐허에서 아무루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통통하고 활달하며 수다스러운 농부 부인이었다. 도로테가 다가가자마자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당신도 그 일에 뛰어드는 거요?"

"제가 처음이 아닌가요?" 도로테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늙은 신사와 그 부인이 있답니다. 그 늙은 신사는 몇 해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하룻밤 묵어가기도 했죠. 바로 그 '찾는 이들' 중 한 명이에요."

"무엇을 찾는다고요?"

"누가 알겠어요. 전설 속의 보물이라고 하죠. 현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숲을 헤매고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왜 안 되죠? 페리아크 섬 말입니다. 저는 섬이라고 부릅니다. 밀물 때는 길이 물에 잠기거든요. 이 땅은 사르조에에 있는 수도원의 소유입니다. 수도원은 여기서 두 리쯤 더 떨어진 곳에 있죠. 수도사들은 심지어 그 폐허와 땅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사려나 싶어요. 척박하고 야생이 가득한 땅일 뿐이니까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네, 절벽에서 시작해 바네 도로와 이어지는 자갈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곳은 정말 외진 곳이에요. 버려진 땅이죠. 일 년에 열 명도 여행자를 보기 힘듭니다. 목동 몇몇이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밤 십 시가 되었다. 설치를 끝낸 뒤였다. 생탕탕탱이 따라오자고 졸랐지만, 도로테이는 그를 설득해 아이들을 그에게 맡기고 나섰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눈부신 스카프를 두른 채였다.

큰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승리의 날일까, 실망의 날일까. 어둠의 날일까, 빛의 날일까. 어쨌든 도로테이처럼 항상 깨어 있는 정신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여성에게 이 순간은 달콤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상상력은 천 개의 창문이 열린 신비로운 궁전을 만들어냈다. 그곳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살고, 매력적인 왕자들이 나타나고, 자비로운 요정들이 날아다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선선한 기운을 더했다. 햇살과 어우러진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도로테가 더 나아갈수록 앞 풍경이 또렷이 들어왔다. 다섯 개의 곶과 그 곶들이 뿌리내린 반도였다. 푸른빛이 도는 나무들과 바위들이 엉켜 있는 곳이었다. 그 위에는 반쯤 무너진 탑의 가느다란 실루엣이 나무 꼭대기를 넘어서서 우뚝 서 있었다. 여기저기 회색빛 돌무더기, 즉 유적의 조각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길이 급격히 가팔라졌다. 바네에서 온 도로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해안선과 합류했다. 도로테는 이때 바닷물이 매우 높게 차올라 절벽 기슭에 거의 닿아 있음을 보았다. 잔잔하고 얕은 바닷물이 반도의 시작 부분을 덮고 있었다.

정상에 서 있던 노신사와 부인이 있었다. 과부 아무루가 일러준 그 사람들이었다. 도로테는 깜짝 놀랐다. 라울 다브르노이의 할아버지와 옛 친구 줄리엣 아시르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바론 경! 줄리엣 아시르! 그들이 어떻게 마노르를 빠져나와 라울의 추적을 피하고, 여행까지 해서 이 폐허의 문턱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단 말인가?

도로테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도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듯했다. 그들의 눈은 흐릿했고, 시선은 발길을 막고 있는 넓은 물줄기를 놀란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도로테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두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희망과 환상이 노령의 남작에게 내린 명령은, 그의 생각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을 만큼 강고했다.

그는 극심한 피로와 초인적인 노력을 무릅쓰고, 아주 먼 곳에서 이곳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자신과 똑같이 미쳐버린 또 다른 존재와 함께 말이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단지 작은 물줄기 하나를 앞에 두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라도 된 듯 멈춰 섰다.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거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 역시 침묵을 지켰다. 둘 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살아 있는 인간이라기보다,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인형 같았다. 그들은 모른 채로 왔고, 모른 채로 멈췄으며, 모른 채로 다시 떠날 것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도로테는 더 이상 집요하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무릎 사이에서 고정을 시켰다. 구두와 양말을 벗어 던진 뒤,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섰다. 물은 너무 얕아 그녀의 무릎조차 젖지 않았다.

다리가 끝나는 쪽에 도착했을 때, 그 노부부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놀란 표정으로 뜻밖의 장애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연민이 생겼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도로테이는 그들을 향해 팔을 내밀었다.

노경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줄리엣 아시르는 마치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녕히 계세요."

도로테이가 말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없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며, 혼자서 이 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페리아크 반도의 진입로는 두 개의 습지에 막혀 있다. 아무루 부인은 이 습지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 사이를 지나는 좁은 토지 띠에 유일한 길이 있었다.

그 길은 바위 위를 타고 올라간다. 이어 숲이 우거진 계곡을 넘는데, 낡은 나무 표지판에는 '나쁜 발걸음(Mauvais Pas)'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끝은 관목과 엉겅퀴가 무성한 고원 지대였다. 스무 분쯤 걸어가자, 도로테는 오래된 성곽의 잔해 몇 개를 넘었다.

그 속도를 늦췄다.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시간이 더 많은 정적과 고독을 쌓아두었다. 나무들은 서로를 더 단단히 껴안듯 빽빽하게 서 있었다. 수풀의 그늘은 너무 짙어서 그 어디에도 꽃이 피지 않았다.

과연 누가 이곳에 살았을까? 이 벽들을 세우고, 몇몇은 귀한 종이자 이국산인 이 나무들을 심은 이는 누구였을까?

길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염소들이 다니는 좁은 길이었다. 낮은 나뭇가지들 아래로 몸을 굽혀 걸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중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작은 석벽으로 둘러싸인 여러 구역을 지나쳤다. 무성한 담쟁이덩굴의 커튼 아래로, 옛 건물의 기초 자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목표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격렬해져서, 그녀는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평생 걸어온 끝에 성지가 눈앞에 보이는 순례자처럼.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던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맞아. 주머니에 넣은 작은 가죽 주머니 안에는 성 이름이 적힌 메달과 연도, 그리고 날짜가 적힌 것이 들어 있어. 그리고 이 성의 위치도 있고, 오늘이 바로 정해진 날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추리가 모두 맞고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가 증명해 주겠어?'

'백오십 년, 이백 년. 그것은 끝없이 긴 시간이야. 내가 보았던 조합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바닥에는 서로 엇갈린 벽돌 무늬가 깔려 있었다. 외롭고 맨몸 같은 문이 서 있었고, 그 아치는 매우 높게 솟아 있었다. 도로테가 그 문을

지나자마자, 더 넓은 안마당 깊숙한 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오직 하나였다.

시계 바늘이었다.

그때 그녀의 손목시계는 열한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폐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이 세상의 구석진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이곳에는 무지한 여행자나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목동들만 드나들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곳은 폐허라기보다는 폐허의 잔해였다. 담쟁이덩굴과 가시덤불에 뒤덮여 있었다. 여기는 아치형 문, 저기는 아치형 천장, 더 멀리서는 벽난로 벽, 그 너머로는 별채의 뼈대만 남아 있었다.

과거에 마당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으며 공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유일한 존재들은 멀리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고목들이었다. 특히 널리 퍼진 가지들을 가진, 위엄 있고 장엄한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거나 길의 조각들처럼 서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무너진 건물들의 윤곽만 남아 있었다. 그 사이로 무너진 잔해 더미에 기대어, 한쪽 벽면만이 온전히 서 있었다. 아주 낮은 1층 높이에, 기적처럼 인간의 파괴를 면한 그 시계가 달려 있었다.

긴 두 바늘은 녹슨 화살표처럼 길게 늘어졌다. 로마 숫자로 적힌 시간 표시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다. 시계판 돌 틈새에는 이끼와 고사리가

자라나 있었다. 가장 깊은 곳, 작은 둥근 신전 천장 아래에는 방망이가 치기를 기다리는 종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처럼.

도로테는 시간이 여기서 수세기째 정지해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움직이지 않는 바늘들, 더 이상 두드리지 않는 망치, 그늘진 공간 속에 고요히 잠든 종에 매달린 시간.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리석 판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그녀는 돌더미를 올라가 그 글자를 읽어냈다.

'In robore fortuna!'

'목재에 운명이 있다!'

로보레, 저택, 라로슈페리아크 성, 그리고 동전까지. 어디에나 적혀 있던 아름답고 고귀한 표어였다.

도로테가 맞았다. 동전이 내린 명령은 유효한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 멈춰 선 시계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만남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웃으며 말했다.

"혼자 갈 약속이에요."

그녀의 확신은 뜨거웠지만, 자신처럼 소환된 이들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우연이 겹친 놀라운 연쇄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그 신비한 사건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이 다른 특권자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리라고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전통의 사슬은 다른 가문에서는 끊겼거나, 길손이나 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안 와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지금 열한 시 삼십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육지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부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가까운 곳에서의 소리였다.

도로테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점점 또렷하게 들렸다.

'농부나… 나무꾼이겠지.'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확신했다. 그것은 다른 소리였다. 느리지만 박자 있는 말발굽 소리였다. 말발굽이 길가의 단단한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로테는 낡은 영지의 울타리 사이를 지나 교차하는 벽돌길 위를 다가오는 말의 행발을 따라갔다. 때때 말 타기가 혀를 차며 말을 부추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로테는 벌어진 아치형 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호기심 어린 작은 떨림을 안고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말타이가 나타났다.

말은 아주 작아 보였지만, 그 위의 사내는 유난히 키가 커 보였다. 마치 긴 다리를 땅에 대고 걷는 것 같았으며, 작은 말은 마치 아이가 장난감처럼 그 위에 실려 있는 듯했다.

그의 복장은 체크무늬였다. 짧은 바지와 두꺼운 양말, 면도한 얼굴, 입에 문 파이프, 그리고 태연한 표정. 모든 것이 그가 영국인임을 말해 주었다.

그는 도로테이를 보고는 놀란 기색 없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대로 길을 계속 가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계가 눈에 들어오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삐를 당겼다.

"멈춰, 소년아! 멈춰!"

그는 발끝으로만 몸을 일으키면 되었다. 작은 말이 그 아래로 미끄러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고삐를 뿌리 주변에 동여매고 시계를 확인한 뒤, 시계 바로 옆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치 감시병이라도 선 것처럼 말이다.

'참 말수가 적으신 분이다.' 도로테는 생각했다. '확실히 영국인이군.'

잠시 후,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마땅히 말을 걸어야 할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는 피운 파이프를 다시 불어 붙였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 가까이서 움직이지도 않고 진지하게 서 있었다. 세 시간이나 네 시간이나. 바람이 그의 파이프 연기를 도로테 쪽으로 불어넣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네." 도로테가 혼자 중얼거렸다. "어쨌든 말이지, 그 침묵 많은 신사와 나,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약속을 잡은 사이일지도 몰라. 어차피 어쩔 수 없지. 내가 먼저 인사할까…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이 질문은 그녀를 극도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르곤 공작부인으로 소개해야 할지, 아니면 줄 타는 무희 도로테로 불러야 할지 고민이었다. 지금 같은 엄숙한 상황이라면 정식 작위를 내세워 격식 있게 인사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화려한 의상과 매우 짧은 치마는 그런 장중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줄 타는 무희'라는 호칭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는 동안, 도로테 자신도 그 상황이 얼마나 코믹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그 젊은이도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입을 열려 했고, 동시에 말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그때 한 사건이 그들의 감정을 갑자기 끊어놓았다.

어느 사람이 좁은 길을 따라 안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행인은 얼굴에 털이 없고 매우 창백했다. 턱없이 큰 재킷 아래로 팔 한쪽이 슬링에 감겨 있었고, 모자에는 러시아 군인의 것이었다.

그도 또한 시계를 보고 발이 묶였다.

도로테와 그녀의 동료를 발견하자, 그는 귀까지 갈라질 듯한 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완전히 밀어낸 두개골을 드러냈다.

그때 멀리서 모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총성이 점점 더 격해졌고, 아치의 틈새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울퉁불퉁한 땅을 달렸다. 오토바이는 갑자기 멈췄다. 운전자는 시계를 확인했다.

젊고 튼튼했으며, 여행복을 잘 입은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첫 번째 사람처럼 확실히 앵글로색슨족이었다. 오토바이를 세운 그는 손에 시계를 든 채 도로테에게 다가갔다. 마치 그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도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두 번째 기수가 나타나자, 여윈 마부가 대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는 시계 앞을 둘러싼 군중과 마주쳤고, 놀라 고삐를 세게 당기며 외쳤다.

“천천히, 천천히…”

그는 몸매가 가늘고 얼굴이 친절한 사람이었다. 말을 내려놓자마자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여성 앞에 정중히 인사하듯 다가섰다.

그러나 한 마리의 나귀를 탄 다섯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길로 왔고, 마당 입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눈이 동그래진 채 안경 너머로 경악한 듯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누군가 왔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나이가 서른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검은 모자 위에 검은 모자를 쓰고, 볼수(수염)를 기른 그는 낡아빠진 가죽 서류가방을 팔에 끼고 있었다. 그는 놀란 듯이 계속 중얼거렸다.

"사람이 왔어! 약속 장소에 사람이 왔다고!"

"믿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도로테는 동료들의 탄성과 오가며 하는 말들 사이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이 둘러쌀수록, 그녀는 설명이나 말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은 듯했다. 그녀는 진지해졌고, 무거워졌다.

생각에 잠긴 듯한 그녀의 눈에는 격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사건으로 느껴졌다. 검은 모자와 가죽 가방을 든 그 남자처럼, 그녀도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정말로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모였어!"

그녀가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들어 봐." 그녀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다. "어딘가에서 Angelus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 마을 교회에서."

그들은 모자를 벗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밀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사이,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며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이어줄 것만 같았다.

도로테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11장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그녀의 날카롭게 긴장되었던 신경을 풀어주었고, 그녀를 온화한 감싸안음처럼 감쌌다. 다섯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그들은 이 젊은 소녀의 울음소리와, 그녀를 둘러싼 자신들의 모습에 모두 당황해 보였다. 그러자 도로테는 순식간에 울음에서 웃음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타고난 충동에 이끌려, 자신이 그들에게 공주로 보일지 줄 타는 무희로 보일지 따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광경이 동료들의 당혹감을 더할수록, 그녀는 오히려 더 신이 났다. 판당고, 지그, 부레, 모든 춤이 단 일 분 만에 연이어 펼쳐졌다. 손가락 장구를 치는 흉내를 내고, 영국 민요와 오베르뉴 지방의 경쾌한 선율을 따라 부르며, 무엇보다 라로슈페리아크의 골짜기까지 울려 퍼질 듯한 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다들 왜 웃지 않아요? 당신들 다섯, 다들!" 그녀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넌들 무덤 속 미라 같아 보여. 웃어! 내가 직접 부탁하니까. 나 도로테, 줄 타는 무희, 아르곤 공작 부인인데."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를 향해 말을 돌렸다. "변호사 선생님, 얼굴 좀 더 밝게 만드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녀는 그 남자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손을 세게 흔들며, 자신의 정체를 확신시키려는 듯 말했다.

"당신은 공증인이죠, 맞죠? 유언의 일부를 집행하러 온 공증인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당신은 공증인이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나트 공증인, 델라루입니다."

"나트? 알겠어요. 우리가 일치견을 본 거네요. 그리고 문제는, 맞죠? 금화 한 닢에 관한 것이죠. 각자가 만나자고 부르는 신호로 받은 그 금화요."

"네! 네…" 그는 점점 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금화 한 닢… 그리고 약속 장소…"

"1921년 7월 12일?"

"네… 네… 1921년…"

"정오에?"

"정오입니다."

그가 시계를 보려 했지만, 그녀가 그것을 막아섰다.

"할 말 없습니다, 들라뢰 선생님. 앙젤루 종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엔 정확하죠.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게 정상입니다. 각자 금화 한 닢씩 챙겼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들라뢰 씨를 시계 앞으로 이끌며 젊은이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자, 이분이 들라뢰 씨요. 공증인이십니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다니요? 영어도 할 수 있답니다. 이탈리아어도요. 자바어까지요!"

네 사람은 일제히 반박했다. 프랑스어는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정말 잘됐네요.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라루 씨죠. 우리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그 공증인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공증인이 죽은 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모은 이가 바로 죽은 자이니, 델라루 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미없어요? 정말 우스워요! 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이해요. 제가 아는 모험 중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모험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같은 가족이에요. 사촌쯤 되는 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가족이 재회하듯 함께 있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 네 사람 모두 훈장을 받았잖아! 프랑스 전쟁십자장이야!"

"그러니까, 너희 네 사람 모두 싸웠어? 프랑스에서 싸웠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나라를 지켰지?"

그녀는 모든 이의 손을 꼭 쥐며 다정하고도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미국인도 이탈리아인도 그녀에게 같은 열정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본능적인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그들 두 사람에게 양 뺨에 키스했다.

"자, 미국 사촌이시여. 자, 이탈리아 사촌이시여. 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희 둘도 그래. 나도 너희에게 키스할게. 어때, 약속이지? 우리 사이는 동지야? 친구야?"

이 모든 일은 젊고 생기가 넘치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마주하며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벌어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수년, 아니 수세기 동안(도로테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서로를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네 젊은이가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의 우아함과 넘치는 활기에 이끌렸지만, 동시에 갑자기 서로를 연결해 준 어두운 이야기 속에 그녀가 가져다준 빛에 놀랐기 때문이다.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동정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 없었다. 대신, 거리낌 없는 우정이 갑자기 밀려들어왔다.

누구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누구든 자신이 잘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도로테가 그들을 떼어내 한 줄로 세웠다. 마치 병사들을 검열하듯.

"차례로, 여러분. 실례합니다, 들라뢰 선생님. 제가 호적을 부르겠습니다. 권한도 확인하고요. 자, 1번, 미국인 선생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뭐죠?"

미국인이 대답했다.

"필라델피아의 아치볼드 웹스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아치볼드 웹스터. 아버지에게서 금메달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미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나요?"

"어머니의 아버지로부터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아치볼드 웹스터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확인했다. 마치 무거운 의무를 다하듯, 그 소녀에게 대답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들모아젤. 우리 집안의 오랜 전통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프랑스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특정 메달은 자녀 중 가장 연장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메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 금화가 보물 공유의 권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저를 프랑스로 보냈을 뿐입니다."

"아치발드 웹스터, 메달을 보여주세요."

미국인이 조끼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그 동전은 도로테가 가진 것과 정확히 같았다. 새겨진 글자도, 크기도, 흐릿한 빛깔도 모두 같았

다. 도로테는 그 동전을 델라루 씨에게 보여준 뒤 다시 미국인에게 돌려주고는 심문을 계속했다.

"두 번째 번호…… 영국인이시죠?"

"조지 에링턴, 런던에서 왔습니다."

"조지 에링턴 씨, 런던에서 오셨다고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국인은 파이프를 털어내며 비우고는, 능숙한 프랑스어로 답했다.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였고, 사흘 전 고모부이면서 아버지의 형제인 보호자로부터 이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자신은 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지만 제게는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조지 에링턴. 런던에서 온 당신 말입니다. 메달을 좀 보여 주시오. 좋습니다. 자격은 충분하군요…… 세 번째 번호. 러시아인이겠죠?"

모자를 쓴 남자는 프랑스말을 이해했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깨끗하다고 하기 어려운 작은 종이를 건넸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이랬다.

'쿠로벨레프. 프랑스 전쟁. 살로니카. 프랑겔과의 전쟁.'

"메달은요?" 도로테가 물었다. "좋아요, 친구. 다 됐군요. 네 번째 번호, 이탈리아인 시뇨르의 메달은요?"

"마르코 다리오, 제노바 출신입니다." 그가 황금 동전을 내보이며 대답했다. "이건 아버지 시체에서 주웠어요. 샹파뉴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던 날이었죠. 아버지는 이 메달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곳까지 왔군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게, 아버님의 무덤이 있는 샹파뉴로 다시 내려갔다가, 반사적으로 반느행 열차를 탔을 뿐입니다."

"네, 맞아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통 조상의 명령에 따랐죠. 그런데 그 조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명령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델라루에 씨가 그 비밀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델라루에 선생님,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모두 암호를 알고 있죠. 이제 우리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요?"

법무사 델라루에는 연이은 충격에 아직 정신이 혼미한 채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왜 말라킨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 더구나 나트에서 라로슈페리아크까지 왜 그 먼 길을 오셨습니까? 어서 가방을 열어보십시오. 안에 든 서류를 우리에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저를 비롯해 이 분들 다섯 명은 모두 여기 와서 정체를 밝히고,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소녀의 밝은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정을 불러일으켰다. 델라루 씨조차 그 유익한 영향력을 직접 느끼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는 이제 그 소녀가 그토록 복잡해 보였던 덤불 사이로 뚫어 놓은 길을 따라,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가면 되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드려야겠군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요. 죄송합니다. 이 일이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씻어낸 그는, 공증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위엄을 되찾았다.

그는 땅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용해 만든 듯한 작은 단 위에 명예로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앉았다.

사람들이 원형을 이루었다.

도로테의 지시에 따라, 그는 중요한 듯이 서류가방 입구를 살짝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고, 귀가 자신의 작은 말까지 놓치지 않고 듣는 데 익숙한 남자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둔 연설을 쏟아냈다.

예상과 논리를 모두 벗어난 상황, 즉 정해진 장소에 누군가가 나타날 경우를 위해 준비해 둔 말이었다.

"서두는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곧바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십 사 년 전, 저는 나망의 한 세무사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당시 선배 세무사는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니, 갑자기 외쳤습니다."

"아, 참! 깜빡했네요. 음, 그리 중요하진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요. 친애하는 동료여, 여기 사무실 가장 오래된 사건 파일이 있소. 파일은 사뭇 심심하오. 봉투에 담긴 편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지금 바로 읽어 드리마."

이 편지는 바비에르 씨, 즉 공증인의 손에 안전하게 맡긴다.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1921년 7월 12일 정오, 라로슈페리아크 성의 시계탑 앞에서 이 편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내 손으로 주조한 금메달을 가진 모든 소유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해야 한다.

그렇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다. 내 전임자는 그 연구를 산 사람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페리아크 교구의 오래된 등록부를 조사한 결과, 바르비에(Hippolyte-Jean)라는 이름의 공증인이 18세기 초에 살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그의 연구실은 언제 문을 닫았을까? 그리고 그 dossiers는 왜 낭트로 옮겨졌을까?

아마도 어떤 사정으로 라 로슈 페리아크 성의 영주 중 한 명이 땅을 떠나 가구를 말과 하인들, 그리고 마을의 공증인까지 모두 데리고 낭트로 이사 갔을 것이다.

어쨌든 거의 두 세기 동안, 바르비에 공증인과 그의 후계자들이 굳게 지켰던 편지는 서랍과 서장 깊숙이 잠들어 있었다. 편지를 쓴 자가 요구한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인을 끊을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일 것이다.

델라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의 입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말에 큰 감명을 받은 듯, 델라루는 가죽 서류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어서 말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종종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정말 궁금했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역 마을과 도시들의 기록들을 직접 뒤져보았지만 말입니다."

그때가 왔다.

우선 나는 민사법원장을 찾아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편지가 유언장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면, 아마도 이 법관 앞에서만 열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 생각은 그랬다.

하지만 법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를 합법적인 절차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장난,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921년 7월 12일, 정각 12시에 느릅나무 아래서 만나자는 거죠?"

법원장은 농담조로 말했다.

"가보십시오, 델라루 변호사님. 지시대로 편지를 열어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만약 빈손으로 돌아와도 제가 웃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는 반네행 기차를 탔다. 그다음에는 마차를 이용했고, 끝내 알 수 없는 곳까지 나귀를 타고 유적지로 향했다.

당연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내가 혼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느티나무 아래, 아니 시계 아래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네 명의 젊은이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제네바 출신의 마르코 다리오가 말했다.

"어쨌든 이 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군."

런던 출신의 조지 에링턴이 덧붙였다.

"아마도 보물 이야기는 생각만큼 터무니없는 게 아닐지도 몰라."

도로테가 선언했다.

"델라루 편지가 그 진실을 알려줄 거야."

이제 그 순간이 왔다. 사람들은 공증인 주변을 더 단단히 에워쌌다. 젊은 얼굴들의 활기찬 웃음에는 약간의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그 진지함은 델라루 씨가 모두의 눈앞에 한 장의 큰 사각 봉투를 내밀자 한층 더 뚜렷해졌다. 예전에는 두꺼운 종이를 직접 접어 만들던那种 봉투였다.

봉투는 색이 바래고 윤기가 도는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야만 종이에 그런 빛깔이 스며드는 법이다. 봉투는 다섯 개의 봉인蜡로 닫혀 있었다. 예전에는 아마 붉은 색이었겠지만, 지금은 회보라색 물질로 변해 있었다. 그 위에는 주름이 얽힌 듯 작은 금이 수없이 많이 갔다.

왼쪽 위에는 전수 양식이 적혀 있었다. 바르비에 공증인의 후계자들이 잉크를 여러 번 덧바르며 그 내용을 다시 찍어냈던 흔적이었다.

"봉인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군요." 델라루에 씨가 지적했다. "라틴어 표어 세 단어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인 로보레 포르투나'요." 도로테가 말했다.

"아, 그걸 아셨군요?" 놀란 표정으로 노테르가 물었다.

"당연하죠, 델라루에 선생님. 금화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구예요. 방금 시계 바늘판에서 지워져 반쯤 보이지 않게 된 것도 바로 그 문장이었죠."

"정말요. 이 연결고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노테르가 말했다. "이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고, 그 진위성을 입증해 주네요."

"빨리 열어보세요, 선생님!" 도로테가 재촉했다.

봉인 세 개가 깨졌다. 봉투가 펼쳐졌다. 안에는 네 조각으로 찢어진 큰 양피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조각들은 서로 거의 붙어 있지 않아, 손만 대면 떨어질 듯했다. 결국 조각들을 주워 모아야 했다.

양피지 위아래, 양면에는 굵은 글씨가 가득했다. 자음과 모음이 따로 떨어진 듯한 필체였다. 분명히 지워지지 않는 먹으로 쓴 글이었다. 줄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빽빽했고, 글자도 너무 좁게 써서 전체가 마치 거대한 활자로 인쇄된 오래된 책 페이지처럼 보였다.

"내가 읽어 볼게요." 델라루가 중얼거렸다.

"제발, 초조하지 말고 천천히!" 도로테가 외쳤다.

그는 두 번째 돋보기를 첫 번째 위에 얹어 쓰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 날짜를 적노니, 1721년 7월 12일……"

"두 세기라니!" 공증인이 한숨을 쉬며 다시 읽었다.

"오늘 날짜를 적노니, 1721년 7월 12일. 나의 생을 마감하는 날, 그리고 1921년 7월 12일, 부활의 첫날에 읽히기를 바라며."

델라루에 변호사는 말을 멈췄다. 젊은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아치볼드 웹스터가 말했다.

"이 신사는 미친 사람이었군."

"부활이라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아들딸들이여……"

그는 또다시 말을 멈추고는 말했다.

"내 아들딸들이여…… 그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 델라루에 변호사! 제발 더 이상 멈추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너무 흥미진진해요." 도로테가 간곡히 애원했다.

"그렇지만……"

"아니요, 델라루에 선생님, 해설은 필요 없습니다. 빨리 내용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진가요?"

젊은이 네 명이 즉각적으로 동의했다.

법무사 델라루에는 다시 입을 열어 읽기를 이었다. 원문이 어렵다 보니 그는 주저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내 아들아,

” 파리의 과학아카데미 회의가 끝난 후, 폰테넬 백작이 내게 참석해 달라고 정중히 권했다. 그 자리에 있던 ‘세계의 다수성에 관한 대화’의 저자, 즉 유명한 그 분이 내 팔을 껴안으며 말했다.

“마르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그 일로 매우 엄격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손의 상처, 특히 뿌리째 잘린 네 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실험 중 그 손가락을 증류병 속에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르퀴께서는 소위 알케미스트로 통하시며, 라로슈페리아 성 안에서 장수 약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다고들 하니까요.”

“그걸 찾지는 않습니다.”

폰테넬 씨가 대답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폰테넬 씨. 만약 제가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드릴 수 있다면, 비정한 운명조차 당신의 백 년이 다 차기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갑이니, 앞으로 사십 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네요.”

"저는 말입니다, 폰테넬 씨. 더 오래 사는 게 그리 반갑지 않아요. 새로운 놀라움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찾아올 하루는 오늘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백 년, 아니 천 년 뒤까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손자손녀들의 아이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사라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죠.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제국의 통치 방식이든, 일상생활의 관행이든요. 저는 그 변화를 모두 지켜볼 거예요."

"잘했다, 후작!" 드 폰테넬이 점점 더 신이 나서 외쳤다. "정말 훌륭하군! 그리고 이 놀라운 힘을 주는 건 또 다른 약초즙인가?"

"맞습니다. 인도 여행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 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모든 종교와 계시가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땅이었죠. 그곳의 대제사장들은 저를 몇 가지 큰 비밀에 참여시켰습니다."

"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았소?" 드 폰테넬이 비꼬는 어조로 물었다.

"일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폰테넬 후작께서 아주 잘 말씀하신, 다른 세계들과 교감하는 힘이나, 다시 살아나는 비결 같은 것들은요."

"하지만 후작, 그러시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 폰테넬 씨. 제가 훔쳤죠. 그래서 손가락을 모두 뽑아내는 형벌을 받도록 판결받았어요. 첫 번째 손가락을 잘려 나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용서를 제안했어요. 훔친 약병을 돌려주면 된다고 했죠. 저는 약병을 숨긴 곳을 알려주었지만, 미리 내용을 바꿔 다른 병에 담아 둔 뒤였죠."

폰테넬 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손가락의 대가로 불멸의 힘을 사신 셈이군요. 그 힘을 쓰실 생각이지요, 자작님?"

"제가 모든 일을 정리하는 대로요. 대략 이 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

"1921년이 되면요."

"이 이야기는 폰테넬 경을 아주 즐겁게 했어요. 그가 저와 작별하며, 제 풍부한 상상력의 증거로 자신의 회고록에 실겠다고 약속했죠. 물론 그는 속으로 제 정신나간 행동도 함께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델라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들을 향해 눈빛으로 물었다.

제너의 마르코 다리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러시아 남자는 하얀 이를 드러냈다. 두 영국계 남자는 끝없이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재미있는 농담이군!" 런던의 에링턴이 비웃듯 말했다.

"네, 정말 훌륭한 농담이오." 필라델피아의 아치볼드 웹스터가 번역했다.

도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델라는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다.

"폰테넬 씨가 웃은 건 잘못이었어요, 아이들. 거기엔 상상력도, 미친 짓도 없었죠. 인도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손에 쥐고 있죠. 이제 그 힘을 쓰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작년, 제 아내인 라 로슈페리아크 후작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죠. 네 아들은 저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해외에서 전쟁에 참전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쓸모없고 재미없는 노년을 여기서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출발을 위한 준비는 끝났고, 귀환을 위한 준비도 끝났습니다. 제 평생의 충직한 하인, 조프루와 그의 부인은 제 프로젝트의 고해성사자이자 동지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했죠. 저는 이 시대에 작별을 고합니다."

«얘들아, 라 로슈페리아크 성에서 벌어질 일을 잘 들어두거라. 오후 두 시쯤, 나는 실신할 것이다. 조프리야기가 데려온 의사가 내 심장이

멈췄다고 확인할 테고, 나는 인간 지식의 한계로 볼 때 진짜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관 속에 넣어둘 것이다.

» 밤이 되면 조프리와 그의 아내가 나를 구해내고, 이불에 싸서 가장 오래된 영주 성채인 코크센 성터로 나를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관에 돌을 채워 넣고 뚜껑을 닫을 것이다.»

바르비에 형사는 나의 유지를 실행하고 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다. 그는 내 서랍에서 필요한 모든 지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시에는 네 아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고, 상속 재산의 네 부분을 각각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그는 특별 우편으로 각자에게 새로운 금화 한 닢을 보내야 한다. 이 금화에는 내가 정한 표어와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인 1921년 7월 12일 날짜가 새겨져 있다.

이 메달은 세대를 거쳐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자녀나 손자 중 장자가 이를 물려받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두 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르비에 씨가 이 편지를 보관할 것이다. 내가 다섯 개의 도장으로 봉인한 이 편지는 공증인들을 거쳐 지정된 날짜까지 전달될 것이다.

내 아들딸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1921년 7월 12일 정오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너희는 성의 시계탑 아래 모여 있을 것이다. 그곳은

오래된 코크센 탑에서 수백 보 떨어져 있는데, 나는 이미 두 세기 동안 그곳에서 잠들었다. 내가 안식처로 택한 곳이다. 내가 예상한 혁명들이 가옥들을 파괴하더라도, 이미 폐허와 잔해로 변한 곳만큼은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님이 심으신 도토리나무 가로수를 따라 걸어가세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저 탑이 나올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탑 아치 아래에서 멈추세요. 예전에 들어올리던 도개교가 있던 자리죠. 여기서 한 사람이 왼쪽을 보세요. 문지르개 홈 다음으로 세 번째 돌을 세어봅니다. 그 돌을 부드럽게, 똑바로 안쪽으로 밀어내세요.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을 보세요. 역시 문지르개 근처에서 세 번째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이 밀어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밀면, 오른쪽 벽면 중간 부분이 안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진 부분이 계단의 입구가 되어, 두꺼운 벽 안에 파인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132개의 계단을 올라가라. 그 계단은 내 사후 조프루아가 세운 석고 벽 앞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계단에서 주워 온 철제 피크로 그 벽을 부수라. 그러면 작은 단단한 문이 보일 것이다. 이 문은 계단의 세 장돌을 동시에 누를 때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침실이 나온다. 커튼 뒤로 침대가 놓여 있다. 커튼을 걷어라. 나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놀라지 마라, 아이들아. 아마도 너희가 보는 내 모습은 지난해 왕의 화가 니콜라 드 라르질리에르가 그렸던 초상화보다 훨씬 젊을 것이다. 그 그림은 지금도 내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다.

두 세기 동안의 잠자리와, 거의 뛰지 않는 심장의 고요함이 내 주름을 메우고 얼굴에 청춘을 되찾아 주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너희가 바라보는 이는 노인이 아니다."

"얘들아. 약병은 옆의 받침대 위에 올려두렴. 천으로 감싸고, 밀랍으로 뚜껑을 막아둬. 너 중 하나가 병목을 즉시 부러뜨려.

한 명은 칼끝으로 내 이빨을 벌려주고, 다른 한 명이 약을 부어주게. 한 방울씩이 아니야. 목구멍 깊은 곳까지 흐를 정도로 가느다란 줄기처럼 부어줘.

몇 분 정도 지나면, 생기가 돌아올 거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오르내리며 눈꺼풀이 열릴 테니까."

"아마도, 내 아들딸들아, 너희는 내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너무 밝은 빛을 비추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 귀와 눈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이 약해진 감각으로는 너희를 뚜렷이 보지도, 또렷이 듣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알 수 없다. 잠에서 깬 뒤 정신을 수습하듯, 내 정신이 생각들을 모아야 할 피로하고 불편한 시기가 올 것 같다.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또한 너희는 내 노력을 무리하게 부추기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평화로운 나날과 더 풍부한 식사가 서서히 내게 삶의 달콤함을 되찾아 줄 것이다."

"게다가 걱정 마라. 너희에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 내 가족들 몰래 인도에서 가져온 보석이 있거든. 크기가 보통이 아닌 붉은 골콘다 다이아몬드 네 개야. 나는 그 보석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 뒀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보석을 조금씩 꺼내 쓸 생각이지. 내 신분을 지키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기억이 그 신비로운 장소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비밀을 몇 줄로 적어서, '유언장 부속서'라고 적힌 안쪽 봉투에 넣었지."

이 유언 부속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종업원 조프레와 그의 아내에게조차. 만약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내 비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털어놓는다 해도, 그들이 종종 감탄하며 보았던 네 개의 놀라운 다이아몬드 보물창고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그 보물창고를 찾아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따라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게 안쪽 봉투를 건네야 한다.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당신의 이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 운명이 나를 배신하고 너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너 스스로가 그 봉투를 열어 다이아몬드의 보물창고를 알고 그 보물을 차지해야 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산의 전부는 금메달을 제시하는 내 후손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타인이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나는 침묵에 들어갈 테니, 너희의 방문을 기다리겠다. 금화 한 장의 강력한 호소에 이끌려, 이 땅 끝끝내서부터 모여들 것이 분명하다. 같은 피를 이었으니, 서로 형제자매처럼 지내라. 엄숙한 마음으로 침묵하는 저에게 다가가, 어둠의 세계에 묶여 있는 그의 사슬을 풀어주라."

"나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을 가진 이 날, 1721년 7월 12일, 이 문장을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서명도 내 이름으로 한다. 장피에르오귀스탱 드 라로슈, 보그르발 후작의…"

들라루에 씨는 말을 멈췄다. 종이를 더 가까이서 살펴본 뒤, 잠시 있다가 중얼거렸다.

"서명이 잘 안 보이네요… 이름이 B로 시작하는지 R로 시작하는지… 낙서가 글자를 모두 흐릿하게 만들었군요."

도로테가 천천히 말했다.

"장피에르오귀스탱 드 라로슈, 보그르발 후작."

"그렇군요, 맞아요!" 바로 앞장서며 변호사가 외쳤다. "맞아요… 보그르발 후작이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제 가족 이름 중 하나입니다.”

“가족 이름 중 하나라니?”

제12장

도로테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작의 기이한 편지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바라보던 동료들도, 그녀가 의견을 내놓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런던에서 온 조지 에링턴이 다시 말했다.

"참으로 재미있는 농담이군!"

도로테가 고개를 저었다.

"사촌 형, 정말 농담일까요?"

"오, 미스! 생각해보세요! 부활이라니! 그리고 그 묘약이라니! 숨겨진 보석이라니!"

"그건 그렇고요." 도로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노인은 좀 미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편지는 분명히 진본이라는 점입니다. 두 세기가 지난 지금, 그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약속 장소에 왔죠. 결국 우리는 같은 가족인 셈입니다."

"저도 다시 키스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들렌."

"주님, 할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저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그럼 직접 여쭤볼까요?"

드라뢰가 거절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마들렌, 제 말 잘 들으세요. 장피에르오귀스탱 드 라 로슈, 보그르발 자작이 스물두 살이나 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스물두 살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드라뢰 선생님. 잠자고 지낸 두백 년은 세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스물두 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의 친구 폰테넬 씨도 보그르발 자작의 예언대로, 장수 비약을 먹고 백 살에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마르코 다리오가 물었다.

"결국, 당신도 믿지 않는군요, 미스?"

"아니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끄럽지만, 먼저…"

"무엇을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음, 배가 고파요! 마치 백 년 전에 굶주린 보그레발 후작처럼 배가 고픈 거예요. 당신들 중 누군가…"

젊은이 세 명이 벌떡 일어났다. 한 명은 오토바이로 달려가고, 나머지 두 명은 말로 향했다. 모두 사각주머니에 간식을 가득 싣고 와서 도로테의 발 아래 풀밭에 늘어놓았다. 러시아인 쿄로벨레프는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식탁 대신 삼아 도로테 앞에 큰 평평한 돌을 밀어냈다.

"오, 정말 친절하시네요!" 도로테가 손을 치며 말했다. "가족끼리 먹는 점심이라니요! 마스터 델라루, 우리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Wrangel의 병사님도요."

식사 분위기는 한층 즐거워졌다. 안주 지방의 좋은 와인이 잔을 채웠다. 그들은 성을 마련해 이들을 모은 이 고귀한 신사의 건승을 빌며 잔을 기울였다. 웹스터가 그에게 바치는 축배를 제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이아몬드, 유언 부속서, 신사의 장수, 그리고 부활 같은 것은 모두 헛된 생각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

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사건은 편지 읽기와 함께, 그리고 이 즉석에서 마련된 식사와 함께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이미 이 사건은 충분히 기이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도로테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말요, 이렇게 신나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절대 없었죠!"

그의 사촌 네 명은 그녀를 부르며 부러움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제스처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녀의 말에 웃고 놀랐다.

그들은 단숨에 그녀를 알아차렸고, 그녀 역시 그들을 알아챘다. 다섯 사람이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할 어색한 관계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우아함, 아름다움, 재치,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떠나왔던 매력적인 땅을 대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운 누나처럼, 그리고 정복하고 싶은 여성처럼 동시에 재회했다.

이미 경쟁자였던 그들은 서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 했다.

에링턴과 웹스터, 다리오가 나섰다. 그들은 줄타기, 기적 같은 힘겨루기, 균형 잡기, 경주를 벌였다.

상으로는 그들이 원한 게 딱 하나였다. 토너먼트의 여왕, 도로테의 시선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그 아름다운 눈빛에 깊이 홀려, 그 눈들은 어느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눈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너먼트의 진정한 승자는 도로테였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다른 이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앉아서 보고, 감탄할 일만 남았다.

벽면의 윗부분은 얇고 날카로워, 그녀는 이를 줄타기 밧줄처럼 활용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는 가지에서 가지로 몸을 던졌다. 다리오의 큰 말 위에 올라탄 그녀는, 그에게 고도의 기교를 요구했다. 이어 poni(작은 말)의 고삐를 잡은 채, 두 마리 말 위에서 다양한 곡예를 선보였다. 앉거나, 누우며, 서서 말이다.

그 모든 동작은 단정했다. 우아함 속에 정숙함과 거리두기가 묻어났지, 과시나 애교는 전혀 없었다. 젊은이들은 열광하면서도 경악했다. 곡예사는 그들을 매료시켰지만, 소녀는 그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자아냈다. 그중 누구도 그 존경을 저버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그녀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실상 그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후 세 시가 되어서야 그들은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모두들 소풍 나온 듯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

마르슬루 대위는 안주 소주가 조금 취한 듯했다. 넥타이 매듭을 풀고, 검은 모자를 뒤로 기울어지게 쓴 채, 나귀를 타고 행렬의 선두에 섰다. 그는 마르키 라자르의 부활을 노래하는 가사를 흥얼거리며 앞장섰다.

제네바 출신의 다리오가 마ンド린 반주 소리를 흉내 냈다.

에링턴과 웹스터는 도로테의 머리를 위해 고사리와 들꽃으로 만든 우산을 들어 올렸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시계 뒤로 쌓인 옛 성터 잔해들을 지나 작은 언덕을 돌았다. 그리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늘어선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었다. 길 끝에는 원형 광장이 나왔고, 그 한가운데 우람한 참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델라루 씨는 해설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여기 나무들은 보그르발 백부인께서 심으신 겁니다. 생기가 넘치죠. 정말 경외할 만한 나무들입니다. 바로 이 참나무가 '왕'이죠. 몇 대에 걸쳐 사람들이 이 그늘에서 쉬어 갔습니다. 모두 모자 깊게 숙여 인사하십시오."

그들이 다시 걸어가자, 덤불이 우거진 작은 언덕의 경사면에 다다랐다. 언덕 꼭대기에는 둥그런 흙둑이 둘러져 있었는데, 이는 안쪽 성벽의 흔적이었다. 그 너머에는 타원형의 탑이 허물어진 채 남아 있었다.

"코크생 탑입니다!" 델라루에 교수가 점점 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야말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적이죠! 중세 성채의 터인 셈입니다."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사슴의 숲 후작'을 깨워 드릴 겁니다. 비스킷 한 조각에 마시는 샴페인처럼 가볍게, 후작을 다시 살아나게 해 드리죠."

빈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벽면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오른쪽 부분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만약 후작이 말한 대로 계단과 거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이 부분에만 있을 터였다.

이제 그들 앞에 성문을 막아 서던 거대한 아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이 아치를 향해 도개교가 내려졌던 곳이다.

주변은 가시덤불과 엉킨 덩굴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을 가로막은 장벽을 헤치고, 마르키 드 보그르발이 지시한 석재들이 놓인 아치 안쪽까지 다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쪽 벽면을 향해 두 갈래로 길을 뚫어야 했던 것이다.

드디어 드로테가 말했다. 그녀는 이 작업을 지휘한 사람이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은 결코 이 곳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아치형 천장의 끝부분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성채 내부가 하늘을 향해 벌거숭이처럼 드러난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졌다. 조각된 석재 벽난로 덮개 아래로 네 개의 굴뚫 구멍이 겹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야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마치 고대 로마 원형 극장의 타원형 경기장 같았다.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로는 아치형 천장이 덮여 있었다. 방들의 입구는 어둠 속으로 벌어져 있었고, 좁은 복도들이 그들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고 있었다.

"라 로슈 페리아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죠," 도로테가 말했다. "주변의 결혼식들이 여기서 열리기도 하니까요. 보세요, 바닥에 기름진 종이들과 정어리 통조림 상자가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게, 인도의 아치형 천장 쪽은 아직 치우지 않았다는 거야.” 웹스터가 말했다.

“누가 치우겠어? 저쪽엔 자연스러운 출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처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저런 일을 하겠어?”

그들은 마르키의 말을 검증하려 다시 일을 시작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저 양심에 가책을 덜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은 끝났다’라고 안심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들은 아치형 천장의 벽을 손보기 시작했다.

도로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느긋하게 다시 지휘권을 잡았다.

"자, 사촌들. 미국과 러시아에서 먼 길 왔는데 손만 벌리고 있을 순 없잖아. 조상님께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금메달을 서랍 구석에 처박아둘 권리를 따내야 해. 지네의 다리오, 런던의 에링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세 번째 돌을 들어 올려. 그래, 저 두 개야. 저 홈이 옛날 빗장을 받치던 자리잖아."

돌들은 꽤 높은 곳에 있었다. 이탈리아인 다리오와 영국인 에링턴은 팔을 쭉 뻗어야만 닿을 수 있었다. 도로테아의 조언을 따라 그들은 웹스터와 쿠로벨레프의 어깨에 올라탔다.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에링턴과 다리오가 대답했다.

"그럼,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밀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델라루 씨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두 젊은이는 두 돌멩이에 손을 얹고 힘껏 누르고 있었다.

도로테는 농담조로 말했다.

"자,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선생님들! 마르키의 말은 복음서처럼 정확하잖아요. 오른쪽 돌이 기울어진다고 했죠. 오른쪽 돌이 기울어야 해요!"

"내 돌이 움직이네요. 왼쪽으로요." 영국인이 말했다.

"내 돌도요." 이탈리아인이 선언했다. "오른쪽으로."

"말도 안 돼?" 도로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렇죠, 그렇죠." 영국인이 단언했다. "위쪽 돌도 같이 움직이고, 둘 다 윗부분이 안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던 두 돌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무너졌다. 그 틈새로 어둠 속에 몇 계단인지 모를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인이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 신사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군요. 바로 계단이에요."

그들은 잠시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일어난 일이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보그레발 후사가 예고한 내용의 첫 번째 확인이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언들도 똑같이 정확히 실현될까 봐 의구심을 품었다.

"만약 정말로 계단이 132개라면, 저는 완전히 설득당하겠습니다." 에링턴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델라루 씨가 놀란 듯이 말했다. 그 역시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후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마르퀴가 우리 방문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말이 안 됩니다." 공증인이 투덜거렸다. "제정신입니까, 미모isel?"

젊은이들은 그를 힘겹게 계단 위로 끌어올렸다. 도로테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보아그르발 씨가 준비해 둔 횃불 대신 손전등 두 개가 빛을 비췄고, 그들은 좁은 공간에 나선형으로 감겨 있는 매우 높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다리오가 숫자를 세었다.

용기를 내기 위해 들라루 씨는 '라 투르 프레나드 가르드'의 후렴구를 노래했다. 하지만 서른 번째 계단에 이르러 그는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기가 만만치 않군요, 그렇지 않나요?" 소녀가 물었다.

"네, 네…… 하지만 죽은 사람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더군요."

다섯 번째 계단에 다다랐을 때, 벽의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도로테가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자 라 로슈의 숲이 눈에 들어왔지만, 돌출된 받침돌 때문에 성탑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계속 올라갔다. 델라루 씨가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나중에는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다리오가 숫자를 세었다.

"백…… 백십…… 백이십……"

백삼십이 되자 그가 말했다.

"계단을 막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조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속에 벽돌 세 개가 박혀 있나요?" 도로테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제 피크도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모든 것이 유언장에 적힌 대로입니다." 도로테가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서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는 그 훌륭한 분의 말씀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명령했다.

"웹스터, 벽을 부수시오. 그냥 석고판일 뿐이죠."

첫 번째 충격에 벽이 무너지더니, 단단한 작은 문이 드러났다.

"크레블류!" 주석은 더 이상 불안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되고 있군요."

"아, 하하!" 도로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마스터 델라루, 이제 의심이 줄어드는군요. 곧 문이 열릴 거라고 단언하시겠어요?"

"단언합니다. 그 노인은 정교한 기계 전문가이자 일급 연출가였으니까요."

"죽은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도로테."

주석이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당연하지. 어쨌든 그가 여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있지는 않을 거야! 아니, 절대 살아있지 않아!"

도로테가 한쪽 발을 벽돌 위에 올렸다. 에링턴과 다리오가 나머지 두 벽돌을 꾹 밟았다. 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경첩을 따라 미끄러지며 열렸다.

"성모님이시여!" 다리오가 속삭였다. "우리는 기적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야. 사탄이 나타날까 봐?"

등불 빛에 비친 방은 꽤 넓었다. 창문은 없고 천장은 아치형이었다. 석조 벽에는 장식이 하나도 없었다.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왼쪽으로 가면 천장이 낮은 다른 방이 보였다. 그곳은 마치 작은 안방 같은 곳으로, 거친 못으로 빔에 고정된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다.

다섯 남자와 도로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델라루 대위는 얼굴이 창백해져 보였다.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와인의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미스터리에 대한 불안 때문일까.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다. 도로테는 벽 tapestry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 모험은 후작의 후예들이 기적처럼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의 기이한 유언장을 읽는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낡은 탑의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후작이 잠들게 하거나 죽일 약을 마신 그 침묵의 안식처 문턱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벽 tapestry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침대가 있을 테고, 아마도 한때 그 몸을 감싸던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재 한 줌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렇게 묻는 눈치였다.

'내가 먼저 갈까?'

그들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망설임과 당혹감이 그들을 얼어붙게 했다.

도로테는 한 발짝 내딛었다. 이어 두 발짝.

타피스트리는 손끝에 닿을 만큼 가까웠다. 주저하는 손으로 가장자리를 잡은 도로테는 천천히 들어 올렸다. 젊은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램프 빛이 비쳤다.

방 안쪽 깊숙한 곳, 침대가 있었다.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도 뜻밖이라 도로테는 몇 초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천을 다시 내렸다.

아치볼드 웹스터가 당황한 기색으로 천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는 잠든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마치 그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했다. 다른 이들도 쫓아갔다.

아치볼드는 침대 곁에서 멈춰 섰다. 팔이 공중에 매달린 채였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 남자는 육십 살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기이하게 창백한 얼굴빛, 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완전히 하얗게 변한 피부는 그의 나이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얼굴에는 털이 전혀 없었다. 속눈썹도, 눈썹도 없었다. 연골이 투명할 정도로 얇은 코는 결핵 환자 특유의 모양이었다. 살은 거의 없었다. 턱과 뼈, 볼기뼈, 그리고 처지고 주름진 넓은 눈꺼풀만이 얼굴을 이루고 있었다. 그 얼굴은 벌어진 귀 사이에, 그리고 광대뼈 위로 드러난 거대한 이마와 완전히 벗겨진 두개골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손가락…… 손가락이……" 도로테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 손바닥과 똑바로 맞닿은 자리에서 잘린 것이었다. 유언장이 예언한 그대로였다.

남자는 갈색 양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녹색 자수가 들어간 검은 실크 조끼를 입었고, 바지는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반바지였다. 발에는 얇은 양말만 신었다.

전체적으로 옷은 많이 닳았다. 벌레에 갉인 자국도 여기저기 보였다. 신발은 아예 없었다.

"죽은 게 틀림없어요." 젊은이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정확히 알으려면 몸을 굽혀 가슴, 심장이 있는 곳에 귀를 대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짓을 하려 하지 않았다. 첫 접촉만으로도 그 형체가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치 유령이 흩어지듯.

게다가 그런 실험을 해 보는 게, 성스러운 것을 범하는 일 같지 않았는가? 죽음을 의심하고 시체를 묻는 것, 그 누구도 감히 그러려 하지 않았다.

젊은 여자는 오싹했다. 여성의 신경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델라루 씨가 그녀를 말렸다.

"우리 나가자. 나가는 게 맞아. 이 일은 우리랑 상관없어. 악마 같은 짓이야."

하지만 조지 에링턴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죽은 남자의 입술 앞에 대었다.

잠시 후, 거울 표면이 희미하게 흐려졌다.

"오!" 그가 비틀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아 있는 것 같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젊은이들이 숨을 죽인 채 수군거렸다.

델라루 씨는 다리가 너무 떨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악마 같은 짓이야…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죽은 자가 산다는 생각—분명히 죽었으니까!—은 그들에게 끔찍하고 기괴한 일로 다가왔다.

그런데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그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보다 덜 중요한가?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가 살아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언을, 그것이 논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도로테가 입을 열었다.

"보세요… 보세요. 그의 가슴이 오르내립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아니,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일종의 최면 수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깊은 혼수 상태라든가."

"이백 년이나 지속되는 수면이라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움직여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에 적힌 대로요. 지시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언장에서 말한 약초 추출물로 그를 깨워 봅시다."

마르코 다리오가 말했다. 그는 작은 의자 위에서 천으로 감싸인 물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모양의 작은 병을 꺼냈다. 유리에 단단히 감싸인 그 병은 무거웠다. 둥근 몸통과 긴 목이 특징이었고, 목 끝에는 커다란 밀랍 마개가 꽂혀 있었다.

그는 병을 도로테에게 건넸다. 도로테는 의자 가장자리를 세게 내려쳐 병목을 부러뜨렸다.

"칼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고마워요, 웹스터. 칼날을 열고, 유언장에 적힌 대로 이빨 사이로 뾰족한 끝을 집어넣으세요."

그들은 의사처럼 행동했다.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환자를 대할 때처럼, 하지만 첫 번째로 떠오른 처방전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주저함 없이 치료하는 의사처럼. 어떻게 될지 보자. 중요한 것은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다.

아치발드 웹스터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입술이 수축했고, 대부분 검고 썩은 위쪽 이빨이 아래쪽 이빨에 강하게 달라붙어 칼끝이 길을 찾기 어려웠다. 칼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넣고, 손잡이를 들어 두 턱을 벌려야 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소녀가 명령했다.

그녀가 몸을 굽혔다. 플라스크를 쥐고 있던 오른손이 살짝 기울어졌다. 초록색 샤르트뢰즈 주류의 빛깔과 향을 띤 액체가 몇 방울, 그의 입술 사이로 떨어졌다. 이어 얇은 줄기가 플라스크에서 흘러내렸고, 곧이어 플라스크는 텅 비었다.

"끝났어요."

도로테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 남자를凝視하고 있었다.

도로테이는 속삭였다.

"기다려요. 효과가 즉각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로테이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 아니, 잠이 아니라 죽음에서 돌아오는 거지. 그런 깊은 잠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으니까. 아니, 진실로 우리는 집단 환각에 사로잡힌 게 틀림없어. 거울이 흐려진 것도 아니고, 심장도 뛰지 않아. 아니, 천 번이라도 아니라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

"그때부터 정확히 삼 분 지났습니다." 마르코 다리오가 말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꺼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오 분이 더 지나고, 또 오 분이 흘렀다.

이 여섯 사람이 기다리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바로 보그르발 공작이 예고한 모든 사건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실들이 있었다. 이 사실들을 목격한 이들은 최소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5분입니다." 이탈리아인이 말했다.

몇 초가 더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놀라 몸을 떨었다. 동시에 낮은 탄성이 새어 나왔다. 시체의 눈꺼풀이 움직인 것이다.

그 현상은 곧 다시 일어났다. 너무 뚜렷하고 선명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두 눈이 뜨이려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때 팔이 움직였다. 손가락이 떨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오!" 공증인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제13장

도로테는 남자의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하며 지켜보았다. 그녀처럼 젊은이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이 십자성을 그렸다.

"살아 있습니다!" 델라르 씨가 다시 말했다.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은 움직이지도,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처럼, 어떤 생각도 담고 있지 않았다. 흐릿하고 의식 없는 그 눈은 램프의 빛을 피하는 듯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잠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반면, 생명력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심장이 다시 뛰려는 노력으로 피가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는 듯했다. 팔과 손이 논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다리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졌다. 몸통이 일어서더니,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남자는 앉았다.

그때 그들은 그의 정면을 마주했다. 한 청년이 등불을 들어 그의 얼굴에 빛이 직접 닿지 않게 하자, 등불빛이 침대 위, 알코브 벽면에 걸린 초상화를 비췄다. 마르퀴의 편지에서 언급된 바로 그 초상화였다.

그들은 드디어 확신했다. 이 초상화가 바로 그 남자의 그림이라는 것을.

거대한 이마, 눈구멍 깊숙이 숨어 있는 눈, 돌출된 볼기뼈, 뼈가 드러난 턱, 그리고 벌어진 귀. 모든 특징이 일치했다.

하지만 편지의 예상이 빗나갔다. 초상화 속 남자는 풍채가 좋고 단정해 보였으나, 실제 남자는 심하게 늙고 말라 있었다.

두 번이나 일어나려 했지만 실패했다. 기운이 너무 없었고, 다리가 그의 몸을 지탱해 주지 않았다. 숨도 잘 쉬지 못해 답답해 보였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탓일까,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일까.

도로테는 벽에 붙어 있는 판자 두 장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웹스터와 다리오에게 그 판자를 떼어내라고 손짓한 것이다. 판자는 못 몇 개로만 붙어 있었을 뿐이라 떼어내는 것은 쉽였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원형 창문을 발견했다. 소의 눈처럼 생긴 작은 창, 지름이 서른에서 서른다섯 센티미터를 넘지 않을 정도였다.

시원한 공기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그 공기에 흠뻑 젖은 듯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은 벌린 채로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모든 소동은 유난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충격에 질린 목격자들은 마치 불가사의한 부활의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난 일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죽은 자처럼 보였던 이가 매분 매초를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순간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이 놀랍도록 불가사의한 인형이 관절을 풀고 무너져 내릴 순간을 말이다.

도로테가 발로 땅을 차며 초조해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듯했다. 그리고 자신의 나른함을 털어내려 애쓰는 것 같았다.

도로테는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광경을 떨쳐내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 모습에 동석한 이들 역시 남자의 시선을 거두었다.

도로테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푸르던 눈동자가 점점 짙어졌다. 그것은 평범한 시선으로 볼 수 없는 너머를 응시하는 듯했다. 더 먼 곳으로 나아가 진실을 쫓는 눈빛이었다.

1분, 2분이 흘렀다. 그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시도해 봅시다."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침대로 돌아갔다.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남자는 살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주변 사물과 구별되는 개성을 지닌 살아 있는 존재로 대해야 했다. 그 남자는 이름도 있었다.

주변 정황은 단호하게 말해준다. 이 밀폐된 방에 그가 나타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성공한 실험의 결과였다고.

기적이라는 가설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검토해야 한다. 반면 실험이라는 가설은 아무리 기이해 보여도, 사전에 배제할 권리는 없다.

그렇다면 왜 그를 질문하지 않는가?

그는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의 부름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금화 한 닢을…"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쉽지 않았다. 그 말들은 터무니없고 유치해 보였다. 게다가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기 위해 애썼다.

"우리 집안에서는 그 금화가 대를 이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닿게 되었죠. 두 세기 동안 전통이 이어져 왔고, 당신의 뜻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위엄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소리야,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다!'

그러나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과 닿으면서 따뜻해졌다. 그는 거의 말소리를 듣는 듯, 그리고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문장을 꾸미려던 노력을 접은 도로테는 그를 가엾은 사람, 부활했어도 인간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로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배고프세요? …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 마시고 싶은 것은? … 대답해 주세요. … 무엇이 기쁘실까요? … 저와 제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빛을 받은 노인은 입을 벌리고 처진 입술을 드러낸 채, 표정도 욕망도 없는 무표정하고 멍한 얼굴을 그대로 유지했다.

도로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지사를 불렀다.

"델라루에 선생님, 유언부 추가 조항이 적힌 두 번째 봉투를 그분께 드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종이를 본다면 양심의 가책이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건 본래 그분의 것이지요. 편지에 적힌 대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델라루에 변호사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는 봉투를 도로테에게 건네주었고, 도로테는 노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방법을 본인이 직접 적어두셨죠. 이 내용은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노인이 비슷한 동작으로 답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도로테가 동작을 더 분명히 하자, 노인은 고개를 숙여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이 저절로 벌어지며 봉투를 받기 시작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 봉투를 뜯어야 합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의 비밀이 들어 있죠. 당신에게 그 비밀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다이아몬드의 비밀……. 곧 온갖 부를 뜻하니까요."

그녀는 또다시 갑자기 말을 멈췄다. 마치 뜻밖의 생각이나 지적을 받아 든 것처럼 순간 주저앉은 듯했다.

웹스터가 말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가 종이를 열어 읽고 나면, 과거의 모든 것이 기억 속으로 되살아날 테니까요. 우리는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조지 에링턴도 힘을 실어 말했다.

"네, 미스. 우리는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도로테는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을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램프를 하나 들어 들고는 물러나기도 하고 다가서기도 하며, 절단된 손을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터져 나오는 듯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너무 오래 참았던 웃음이 폭발하듯 거세게 분출했다.

허리를 굽히고 팔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웃었다. 곱고 가벼운 곱슬머리를 가진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는 떨리듯 흔들렸다. 그리고 그 웃음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젊었으며, 그 기쁨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뒤이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반면 델라루 씨에게서만은 그런 해학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탓인지,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에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인데…"

그의 딱딱한 태도는 도로테의 웃음을 더 부추겼다. 그녀는 헛간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기적 같아요! … 아, 주님,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빠져들 수 있는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참아왔거든요. 네, 분명히 진지했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웃고 싶었던 거예요! … 이 모든 게 너무 웃겨요!"

공증인은 중얼거렸다.

"무엇이 그렇게 웃기다는 말이에요? … 후작!"

도로테의 기쁨은 한계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눈물을 글썽이게 한 채 반복했다.

"후작! … 퐁테넬의 친구! … 부활한 후작! … 라자르 드 보그르발! … 당신, 그걸 보지 못했나요?"

"거울이 흐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눈이 뜨이는 것도요."

"응, 응, 알겠어. 그런데 나머지는?"

"무슨 나머지요?"

"입속에는?"

"다가와 봐요."

"무슨 일이죠?"

"입속에……"

"제발 말해 봐요."

"가짜 이가 있었어요!"

델라루아 씨는 천천히 되물었다.

"가짜 이라니?"

"네, 어금니였어요. 금으로 만든 어금니였죠."

"그래서?"

도로테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델라루아 씨가 정신을 차리고, 이 발견이 가진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충분히 주려 했다.

그가 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래서?"

"자, 이제 다 말했어요." 도로테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에도 치아를 금으로 입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만약 남작이 죽기 전에 금치를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가 죽기 직전 이 성, 아니 이 탑 안에 치과의사를 불러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썩어가는 나쁜 치아를 가짜 치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도로테는 델라루 대령을 당황하게 했던 그 부적절한 웃음을 이제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놀랍도록 냉소적이고 재미있는 빛이 서려 있었다.

물론 그 주변에 모여든 네 외국인들도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워 보였다.

침대에 누운 남자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멍하니 숨 쉬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법무사는 동료들을 불러 모아, 침대를 등지는 방향으로 한 무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그럼… 당신 말씀대로, 미스, 이건 장난이라는 말씀이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쾌하게 말했다.

"그런데 마르키스는요?"

"마르퀴는 이 사건의 전모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마르퀴의 모험은 1721년 7월 12일에 끝났죠. 그날 그는 자신의 찬란한 생애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약을 삼켰습니다. 부활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마르퀴의 흔적은 고작 네 가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첫째, 이 방의 먼지와 섞인 재 한 줌. 둘째, 델라루 씨가 우리에게 읽어 준 진위 여부가 확인된, 그리고 흥미로운 편지. 셋째, 어딘가에 숨겨진 거대한 보석들. 넷째, 그가 자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즉 이 방 안에 갇혔을 때 입고 있던 옷들."

"그 옷들은요?"

"우리 남자는 그 옷을 걸쳤습니다. 아니면 다른 옷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마르퀴의 원래 옷은 이미 상태가 매우 나빠졌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이 창문은 너무 좁고, 애초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인데. 대체 어떻게?"

"물론 우리와 같은 길로 들어왔겠지."

"말도 안 돼!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생각해 봐. 길을 막고 있던 가시덤불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울타리에 다른 곳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느냐? 석고 벽이 허물어졌다 다시 쌓인 적은 없었느냐? 그리고 이 방의 문이 우리보다 먼저 열려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남자는 마르퀴의 비밀 조합, 두 개의 돌을 움직이는 방법 같은 걸 알고 있어야 해."

"왜 안 되겠어요? 마르퀴가 자신의 편지 사본을 남겨뒀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초고라도요. 하지만 아니죠… 잠깐, 이거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진실을 우리는 보그르발 백작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가 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느냐고요? 그건 그가 자신의 오래된 하인, 조프레가 실수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충직한 노인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경우까지도 고려했죠. 실제로

조프레는 그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은 세대를 거쳐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일 뿐이죠."

"그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델라루 선생님. 우리와 이 네 젊은이,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도 베오그레발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몇 달째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필수적인 금메달을 되찾으려 싸우고 있죠."

도로테의 말은 큰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덧붙여 설명했다.

"오른주 샤니-로보레 가문, 아르덴느주 다르곤 가문, 바르데주 다베르누아 가문. 이 모든 곳에서 전통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비극과 절도, 살인, 광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감정과 폭력이 끓어오르는 혼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에링턴이 지적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동전을 기다리는 겁니다. 라로슈페리아크 교회 앞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행랑이와 여공인을 봤습니다.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명의 불쌍한 정신이상자도 봤죠. 그리고 8일 전, 저는 금화를 손에 넣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위험한 도둑, 제 가족과 먼 친척 관계인 데슈트라이히를 법정에 넘겼습니다."

에링턴이 계속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기꾼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리오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남자는, 후작이 사후 200년이 지난 뒤에도 맡으려 했던 역할을 대신 수행하러 온 것입니까?"

"물론이죠."

"무슨 목적에서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다이아몬드가요."

"그런데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찾아서 가져오면 되지 않았나요?"

"물론 찾아봤겠죠. 쉬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남자가 조프리만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조프리는 주인으로부터 보금자리가 어디인지 들은 바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보금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보그레발 가문의 후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그는 오늘 1921년 7월 12일,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준비해 온 남작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역할입니다. 불가능한 역할이죠."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가능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십 분만 지나면 우리는 모두 그에게 수수께끼의 답이 적힌 두 번째 봉투를 건네기로 합의했어요. 그 봉투는 아마도 그 일의 진짜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는 유언부속서, 즉 해설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르비에 공증인은 이미 죽었고, 그 후계자들도 사라졌죠.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답은 7월 12일 회의장에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유언부속서는 그 자리에서 가져와야 했고, 논리적으로 그는 그 문서를 건네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죠. 곧바로 그에게 건네려던 참이었어요. 단 한 순간만 더 지나면, 그는 그 내용을 확인했을 테고요.

그 후라면 끝이었죠. 소위 보그레발 후사라 불리는 자는 보그레발 후사의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순간, 소위 '사라짐'을 선택했을 테니까요. 즉,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는 뜻이죠."

웹스터가 물었다.

"왜 그 봉투를 건네지 않았나요? 제가 짐작했나요?"

"짐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의심했죠. 봉투를 건네는 건 사실 실험이었어요. 만약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보인다면, 그건 너무 짧은 시간 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될 테니까요. 그는 받아들였

어요. 손이 초조함으로 떨리는 게 눈에 띄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이 따랐어요. 그의 입속에서 금이 조금 보였거든요."

모든 것이 가장 엄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도로테는 사건의 흐름,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치 복잡한 문양과 색조의 조화가 가장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자수 공예를 보여주는 듯했다.

네 명의 젊은이는 혼란에 빠졌다. 그 누구도 소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치발드 웹스터가 말했다.

"당신은 그 사건 전모를 지켜본 것 같군요."

"네," 다리오가 대답했다. "부활한 마르키스가 당신들 앞에서 모든 연기를 펼쳤죠."

"놀라운 통찰력과 무서운 논리예요," 런던의 에링턴이 감탄했다.

웹스터가 덧붙였다.

"그리고 어떤 직관인지요!"

도로테는 평소처럼 미소로 화답하지 않았다. 사건들이 그녀에게 불쾌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리부터 두려워하던 다른 일들이 예고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일일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침묵 속에서 델라르 후작이 갑자기 외쳤다.

"아니, 저는 당신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스."

드라뢰 부인은 한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던 의견을, 일단 거절했던 만큼 더 굳게 붙잡는 타입이었다. 후작의 부활이 갑자기 그에게 옳지 않을 수 없는 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전혀 동의 못 합니다! 당신은 근거 없는 추측만 쌓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그를 옹호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그녀가 물었다.

"뭐, 그의 초상화 말입니다. 라르질리에르가 그린 보그레발 후작의 초상화와, 의심할 여지 없이 닮았잖아요."

"누가 그 그림이 후작의 초상화라고 했나요? 오히려 바로 우리 이 남자 자신의 초상화일 수도 있죠. 남과 닮았다고 해서 꼭 초상화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낡은 액자는요? 오래된 캔버스 말입니다."

"액자는 그대로 놔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캔버스도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가짜 후작을 그리도록 살짝 손봤을 뿐이라고요."

"잘랐던 손가락은요?" 델라루에 변호사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외쳤다.

"손가락 하나쯤 잘라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변호사는 격분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천 번이라도 아니라고. 이익이라는 미끼가 얼마나 달콤하든, 자기의 몸을 저렇게 훼손할 리가 없어. 아니, 아니, 네 추론은 성립하지 않아.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놈이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고? 저런 표정 하나 없이 멍청해 보이는 놈이? 도저히 불가능해. 그는 약하고, 비겁한 인간이야…"

이 논리는 도로테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가장 어둡고 복잡했던 상황의 실마리를 정확히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단서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했다.

"당신이 맞아요. 저런 인간은 자기 몸을 훼손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 손가락을 잘라낸 사람? 공범이라도 있는 거야?"

"동반자라기엔 부족해. 지휘자야. 이 사건을 꾸민 건 그 녀석이 아니야. 이 연극의 연출가도 그건 아니지. 그 녀석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거친 외모를 이용해 뽑힌 평범한 악당 하나에 불과해. 실은 줄을 조종하는 이는 보이지 않지.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무서운 존재야."

공증인은 오싹해지며 몸을 떨었다.

"그분을 아시나요?"

잠시 후, 그녀가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그 사람과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음모의 두목은 제가 법정에 넘긴 사람, 방금 말씀드린 드에슈트라이히일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동조자들—수명이 있었죠—이 그가 시작했던 일을 이어받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드에슈트라이히가 모든 것을 준비해 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는 이 일을 수년간 쫓아왔고, 이런 교묘한 계략은 그의 속임수와 교활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경계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위험한 상대입니다."

"위험해…… 정말 위험해……" 노테르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일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보석 관련 건은 유언 부속서를 열어서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제 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의 임무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델라루에 선생님." 도로테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되받았다.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모든 징후가 예감하게 하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뚜렷이 그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 위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무서운 일이네요." 델라루에 선생님이 신음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작은 방, 즉 알코브(침실의 한쪽 공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통과 머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자를 심문해 봅시다. 그 조연 배우가 혼자서 그 자리에 있을 리 없잖아요. 누군가 그 자리를 맡겼지만, 다른 이들은 감시하고 있어요. 드에스트레슈의 요원들이요. 그들은 무대 뒤에서 이 연극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말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심문해 봅시다. 실패할 경우 우리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그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그는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역할을 용서받기 위해 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죠. 그는 늘 강자 편에 서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를 보세요."

남자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반쯤 구부정한 채 앉아 있는 그라면, 균형을 잃고 넘어져야 마땅했는데도 말이다.

"에링턴, 웹스터. 조명을 비추라."

갑자기 전등 두 개가 빛을 뿜어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아!" 도로테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끔찍한 실상을 가장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섯 사람은 모두 어딘지 기이한 광경에 놀랐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던 몸통과 머리가 미세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눈구멍 깊은 곳에서 눈동자가 튀어나오듯 둥글게 드러났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두 전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형의 빛에 맞춰, 마치 보석처럼 번쩍였다.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비명을 지르려는 듯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머리가 가슴 위로 처졌다. 몸통도 함께 끌려 내려갔다.

순간, 검은 상아 손잡이가 달린 단검이 보였다. 날의 절반이 목 아래쪽, 오른쪽 어깨에 박혀 있었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천천히, 그 남자는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한꺼번에 구부리며 쓰러졌다.

제14장

극적인 반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 목격자들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혼란도 빚지 않았다. 그들의 공포를 지배하고, 말을 막으며, 움직임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살해의 비현실적인 실행 방식이었다.

마르퀴의 부활이라는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로 인해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적, 즉 불가해한 죽음의 기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죽음이 문턱을 넘었으리라 느꼈다. 죽음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 남자에게 다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때렸다가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살해의 도구는 시체 속에 남긴 채였다.

유령 말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유령 말고는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

"에링턴." 도로테가 말했다. 그녀는 동료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계단에 아무도 없지? 다리오, 창문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웹스터와 쿠로벨레프, 알코브 벽을 살펴봐."

그녀는 몸을 숙여 피 흘린 칼을 들어 올렸다. 시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 죽은 사람이었다. 칼과 옷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에링턴과 다리오가 보고했다. 계단은 비어 있었다. 창문은 너무 좁았다.

그들은 러시아인, 미국인, 그리고 도로테와 함께 합류했다. 다섯 사람은 벽을 꼼꼼히 살폈고, 손으로 두드려 보며 틈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도로테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구는 없습니다. 저쪽으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대체?"

서기장이 주저하며 물었다. 그는 의자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겸손한 어조로 그 질문을 던졌다. 마치 자신이 도로테의 모든 설명을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내놓을

모든 설명을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고 후회하는 듯한 태도였다.

위협이 닥쳐왔음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 어두운 사건의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었던 도로테였다.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듯한, 실수할 수 없는 여성으로 비쳤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리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곧 닥쳐올 공격들로부터 그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테는 무언가 진리가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그리고 형체 없는 것이 곧 선명하게 드러나려 하고 있음을 흐릿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후에야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 왜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녀는 진실을 직감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자신의 지성이 위험을 일러주었더라도,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잠시 동안 눈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위협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 몇 분 동안, 그녀는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 위험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을 때, 어디부터 피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처럼, 그녀는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쓸데없는 말에 시간을 낭비하며, 상황의 실용적인 면에만 매달렸다. 아마도 자신의 말 중 하나가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델라루 변호사, 여기 죽은 사람이 있고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법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미룰 수도 있겠네요…"

"미루다?" 그가 말했다. "그건 내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페리아크에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 무리가 눈에 띄는 동료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페리아크로 가는 길은 반드시 감시하고 있어야 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델라루 씨가 어눌하게 물었다.

"그렇소."

그녀는 망설이며 답했다. 이때 그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불확실성이 그녀에게 지옥 같은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리의 핵심적인 단서가 하나 빠져 있다는 깊은 불안을 느꼈다. 네 명의 단호한 남자들의 보호를 받는 이 탑 안이라 해도, 그녀는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는 적의 법칙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의 뜻대로 조종당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델라루에 변호사가 탄식했다. "저를 여기 가두어 두실 수는 없습니다. 제 사무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가시면 됩니다, 델라루에 변호사님. 하지만 그전에 제가 돌려드린 유언부속서의 봉투를 저희에게 건네주십시오. 그 봉투는 변호사님 눈앞에서 열겠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까?"

"당연하지요. 후작의 편지가 명확합니다. '만약 운명이 저를 배신하고 제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직접 봉투를 열어 그 숨겨진 장소를 확인하고 다이아몬드를 압수하시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후작이 이미 죽었고,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개의 다이아몬드를 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 다섯 명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도로테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방금 내뱉은 말들이 서로 어색하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개의 다이아몬드'와 '다섯 명의 소유자'. 사용된 단어들의 모순이 너무도 뚜렷했다. 젊은이들은 그 점에 깜짝 놀랐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 델라루 씨조차도 충격을 받았다.

"아, 맞다. 정말 그렇구나. 너희가 다섯 명이지. 왜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 네 개의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너희는 다섯 명이야."

다리오가 해명했다.

"아마도 저희가 네 명의 남자와 네 명의 외국인이라는 점에만 집중했기 때문일 거예요. 당신 같은 프랑스 여성은 세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쪽에 있어. 너희가 다섯 명이야." 델라루 씨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웹스터가 물었다.

"자, 당신네는 다섯 명이지. 그런데 편지에 따르면 후작은 아들을 네 명만 뒀고, 유산으로 금화 네 개를 남겼어. 네 개, 정확히 네 개란 말이야."

웹스터가 반박했다.

"네 개를 유산으로 남겼을 수도 있지만, 다섯 개를 남겼을 수도 있잖아."

그는 도로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뜻밖의 이 사건이 그녀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어줄까? 도로테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다섯 번째 금화, 다른 네 개와 똑같이 생긴 것이 나중에 다른 금화들을 본떠 만들어져, 사기성 수법으로 우리 중 한 사람에게 추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금화들을 비교해 보자고. 자세히 살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어."

웹스터가 먼저 자신의 동전을 내놓았다.

그녀가 가진 동전들은 어느 것 하나 특이한 점이 없었다. 마르키의 명령으로 주조되고, 그가 직접 검수했다는 네 개의 원본 동전 중 하나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마르코 다리오, 쿄로벨레프, 엥글턴의 동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수거해 하나하나 검토했던 델라루에 씨는 손을 뻗어 도로테에게 건넸다.

도로테는 가슴옷 주름 사이에 끼워 넣었던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흔들고 뒤집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숨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녀의 말에 놀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공증인이 물었다.

"분실하신 건가요?"

"아니요,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잃었다면 주머니도 함께 잃었을 테니까요. 보세요. 주머니 안에는 동전 한 닢만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증인이 물었다.

마르코 다리오가 다소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미스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물론입니다, 다리오 씨." 델라루에 씨가 말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미스가 허락 없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전이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였고, 그중 하나가 행방불명되었을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로테이는 차분하게 되물었다.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전이……"

그녀는 곧이어 이렇게 말하려 했다.

"이 주머니 안에 없다면, 누군가 훔쳐갔다는 뜻이죠."

말은 끝내지 못했다. 도토레는 갑작스러운 불안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런 비난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문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엄격한 해결책과 함께 그녀의 앞에 드러났다.

'네 개의 금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내게서 훔쳐졌다. 그러니 이 네 남자 중 한 명이 도둑이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녀를 순식간에 다른 시각으로 몰아넣었다. 뜻밖이고도 무서운 확신이 들었기에, 그녀는 기적처럼 자신을 억

눌렀다. 그녀가 비극적인 상황의 실체를 깊이 생각하기 전까지, 주위에서 어떤 의심도 사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공증인의 추측을 받아들인 채,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은 맞아요. 델라루 선생님 말씀이 옳을 것 같아요. 그 메달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어떻게요?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잃어버린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신이 다른 데 있는 듯 말했다. 곱슬거리는 머리칼이 벗겨진 이마에는 걱정스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다.

델라루 선생님과 네 명의 외국인들은 수군거렸지만, 그 말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젊은 여자의 주의를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좁은 빛만이 도로테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매우 창백했다. 너무 창백해서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감정의 격랑에 휩싸인 자신의 표정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감정의 근원은 그녀가 간신히 도달한 진실이었다. 그 진리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흩어진 단편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치 덩어리처럼 그녀의 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걷힌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앞에 선 자신을 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녀는 침묵과 정적을 고수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몇 초 사이에도 모든 질문과 답변, 모든 논리와 증거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전날 밤, 페리아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다. 말차레가 불에 타버릴 뻔한 그 밤.

누가 그 불을 지폈을까?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들 중 한 명이, 그 혼란을 틈타 말차레 안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는 그녀가 잠자던 구석과 벽에 걸어둔 작은 가죽 지갑을 뒤졌을 것이다.

메달의 주인, 즉 도둑은 재빨리 라로슈페리아크의 유적지로 돌아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반도에 부하들을 배치했다. 1921년 7월 12일, 그 운명의 날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해 두었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잠든 후작의 역할을 맡은 공범과 함께 총연습을 진행했다. 최후의 경고와 성공 시의 보상, 실패 시의 위협이 오갔다.

정오가 되자 그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태연하게 시계탑 앞에 나타났다. 유일한 신분증인 메달을 제시하고, 유언장의 낭독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탑 안으로 올라가는 길. 마르퀴의 부활.

단 한 순간만 더였다면, 도로테는 유언부속서를 다시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달성되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드에슈트라이허가 꾸민 거대한 음모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계획의 실행은 물론, 우연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예상치 못한 행동들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용기, 동일한 확신, 동일한 기력, 동일한 방법론적인 결단력이 발휘되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어떤 전투는 지휘관이 현존할 때에만 승리를 거둔다.

그가 바로 거기 있다. 그녀는 미쳐버릴 듯이 생각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동반자가 그를 배신하고 우리 편에 합류하려던 찰나, 그를 죽여버렸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다. 그는 바로 거기 있다.

수염과 안경을 벗고, 머리를 깎고, 팔을 석고로 고정해 러시아 병사로 위장했다. 말도 않고 행세도 바꾸며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으니,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틀림없이 데스트리셔다.

지금 그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 망설이고 있다. 내가 위장을 눈치챘는지, 아직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으로 정체를 드러내 권총을 들고 우리에게 유언비어, 즉 보석을 건네라고 협박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도로테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만약 그 자리에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면, 그는 주저 없이 적에게 달려가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인 그녀에게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는 무서웠다.

그리고 데스트리슈가 권총으로 세 번만 쏘아도 쓰러질 세 젊은이들을 걱정하며 더욱 두려워했다.

그녀는 얼굴을 가렸던 손을 치웠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네 명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데스트리슈는 다른 이들 한 명과 함께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아다니며,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목표는 명확했다. 문까지 달려가 적의 진로를 막고, 정면으로 마주 서서 그와 세 젊은이 사이에 가로놓이는 것이었다. 방 벽에 막혀 도망칠 길이 없다면, 그는 단단하고 결의 있는 세 남성의 의지에 굴복할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다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움직였다. 숨도 죽일 수 없는 미세한 동작이었다. 이제 문까지 단 삼 미터. 그녀는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 못으로 박힌 무거운 문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전 소지가 사라진 일이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듯 말했다.

"저번 날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다시 챙기지 못했나 봐요."

그 순간, 그녀는 힘껏 몸을 쏘아 올렸다.

이미 늦었다. 그녀가 몸을 웅크리던 그 찰나, 에스트라이처가 경고를 외치며 문 앞에 뛰어 나와 두 손에 권총을 쥔 채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는 아무 말도 따르지 않았다.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세 젊은이들은 저절로 깨달았다. 가짜 남작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위협에 직면한 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곧 정신을 차리고는, 맞설 준비를 하며 다시 앞으로 나섰다.

도로테는 데스트레슈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그들을 막아섰다.

그들 앞에 서서 몸을 낮춘 그녀는, 강도가 총을 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도는 그녀의 가슴 정면을 노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반면 강도는 오른쪽 팔을 쭉 뻗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두 번째 권총을 놓지 않은 채 자물쇠를 찾고 있었다.

"제발 물러서요, 미스!"

웹스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는 순간 저에게 총을 맞습니다."

강도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쪽 문을 살짝 열고 벽에 몸을 붙인 뒤, 재빨리 도망쳤다.

세 젊은이는 묶여 있던 개들이 풀려나듯 뒤쫓았지만, 무거운 문짝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제15장

한두 분 동안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지 에링턴과 웹스터는 낡은 자물쇠를 고집하듯 붙잡고 있었다. 안쪽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고물이라 제대로 돌지 않는 자물쇠였다. 화가 난 그들은 상대를 방해할 뿐, 서로의 발만 걸치게 했다.

마르코 다리오가 격분해 외쳤다.

"제발 좀 하세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슈트라이히가 맞죠, 미스? 우리가 말했던 그 남자요? 동료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메달을 훔쳤다고요? 성모님, 어서 하세요!"

도로테는 그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생각해보죠.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네 사람 모두 계단으로 내달렸다. 도로테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제발요…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날카롭고 길게 이어지는 호루라기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도로테는 원형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가 동료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야… 그들은 이미 그 근처에 있을 텐데. 그럼 왜 이 신호를 보낸 걸까?'

그녀도 뒤따라 나가려던 찰나, 치마자락을 잡히는 듯했다.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총을 겨누고 서 있는 드에슈트레와 그 일행 앞에서 델라루 씨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은 채 도로테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나를 시체와 함께 내버려두려 하지 마!"

"그리고 그 도둑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동조자들도 있고!"

도로테가 그를 일으켰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우리 친구들을 도와야 해."

"도와준다니?" 그가 분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런 놈들을?"

도로테는 그를 아이를 끌 듯이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들은 어찌어찌 계단 절반쯤 내려갔다. 델라루 씨는 흐느끼고 있었고, 도로테는 중얼거렸다.

"왜 그 신호를 보낸 거지?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점점 하나의 생각이 그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생캉탱, 몽포콩에 남아 있는 네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 생각은 그녀를 너무도 괴롭혔다.

내려가는 길의 사분의 삼 지점쯤 되었을 때, 그녀는 멈춰 섰다.

올라갈 때 눈여겨보았던 벽의 구멍이 바로 그곳이었다.

노인과 한 여성이 젊은이 세 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야?"

델라루 씨가 헛소리를 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도 안 들려."

그녀는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그녀는 좁은 복도로 들어가 기어 다니며 구멍까지 다가갔다. 하지만 오후보다 더 면밀히 살펴보니, 오른쪽 벽돌 장대 틈새에 무언가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이 보였다. 앞에는 들나뭇가지가 그 모습을 가리고 있었다.

그것은 밧줄 사다리였다. 벽에 박힌 갈고리가 사다리 한쪽 끝을 고정하고 있었다.

'완벽해.' 그녀가 생각했다. '에스트레허가 이 출구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위급할 때는 탈출이 쉬워. 이 탑의 이쪽 면은 내부 출입구와 정반대 방향이니까.'

하지만 델로 대위의 탈출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신음을 터뜨렸다.

'절대 안 돼. 저기로 내려간다니?'

'에이, 괜찮아요. 열 미터도 안 되잖아요. 층 두 개 정도고.'

'그건 자살이나 다름없어.'

"칼로 찌르는 게 더 낫습니까? 에스테르슈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유언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 손에 쥐여준 건 바로 당신이에요."

겁에 질린 델라루는 조건을 달았다. 다리가 약해지기 전에, 도로테가 먼저 내려가 사다리가 안전한지, 마디가 빠진 곳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도로테는 사다리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다리를 벌리고 앉아, 그녀는 위쪽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리고 양쪽 로프를 잡아당겨 최대한 팽팽하게 당겼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길었다. 델라루는 마지막 마디에 다다를 때까지 온몸의 용기를 짜내야 했고, 결국 실신할 뻔했다. 땀방울이 그의 온몸을 거스름없이 흘러내렸다.

도로테가 단 한마디로 그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다.

"들려요… 당신도 들리지 않나요?"

델라루 씨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자들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곧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옆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울창한 수풀을 지나, 성채와 외로운 참나무가 있는 네거리 사이를 잇는 본래의 길로 나섰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심이 된 델라루 씨가 위협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 자식들아! 마을 첫집에 다다르면 바로 근위대 주둔지로 사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총과 낫, 포크, 뭐든 든 농민들을 동원해서 막아내죠. 당신은 어떡하실 셈입니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계획이 없다니요!"

"네, 제가 조금 무작정 행동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아, 보셨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 아이들 때문에요."

델라루 씨는 경악하며 외쳤다.

"뭐라고?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여관 놔두고 왔지."

"얼마나 많데?"

"네 명."

공증인은 깜짝 놀랐다.

"네 명이라니? 그러니 당신은 기혼 여성이오?"

"아니에요." 도로테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노인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요. 다행히 생캉탱은 바보가 아니니까."

"생캉탱?"

"네, 우리 아이들 중 맏이예요. 영리한 녀석이에요. 원숭이처럼 총명하죠."

델라루에 씨는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에게 중요한 건, 악마의 좁은 길을 지나기 전에 쫓아오는 자들을 피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달려요, 달려요!" 그가 말했다. 숨이 턱턱 막혀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재촉했다.

"그리고 보세요, 미스. 두 번째 봉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그 종이를 내 품에 간직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 지갑에 넣었다. 그때 그들은 시계탑 마당에 도착했다. 더 이상 힘겹게 걷던 드라뢰 부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와 말 두 마리 옆에 얌전히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를 보고는 기쁨의 비명을 지렀다.

"미안합니다, 미스."

델라루 씨가 안장에 올랐다. 당나귀는 먼저 뒤로 물러났다. 이 행동에 델라루 씨는 격분하여 주먹과 지팡이로 당나귀의 머리와 배를 내리쳤다.

당나귀는 갑자기 항복하듯 앞으로 뛰어나가 화살처럼 달아났다.

도로테가 외쳤다.

"델라루 선생님, 조심하세요. 공범들이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도로테의 외침을 들은 공증인은 순간 등 뒤로 몸을 젖혔고, 절박하게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동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도로테는 이미 첫 번째 성벽의 유적을 넘어선 뒤여서, 멀리서야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도로테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에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드에슈트뢰에의 휘슬 소리는 해안과 반도 입구에 숨어 있던 공범들에게 보내진 신호였다. 그들은 그곳의 접근로를 지키고 있었다.

'어쨌든,' 그녀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가 지나가지 못해도, 델라루 씨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생캉탱은 이미 경고를 받았을 테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을 거야.'

바다는 짙푸르고 잔잔했다. 양옆으로 펼쳐진 바다는 두 개의 만을 이루었고, 그 끝에는 해안 절벽이 둥글게 굽이쳤다. '메바빠'(Mauvais-Pas, 나쁜 길)는 어두운 틈새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로테

는 평원을 덮고 있는 나무들 사이로 그 틈새를 바라보았다. 좁은 산책로는 때때로 모습을 드러냈다. 도로테는 두 번이나 델라루 씨의 실루엣을 분별해냈다.

그녀가 드디어 나무 줄기에 다다르려던 순간이었다.

앞쪽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아마도 길에서 가장 가파른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명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도로테는 데라루를 구해야 했다. 그는 분명 공격을 당한 희생자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몇 분을 질주해도, 그토록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바람에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궤도에서 벗어나 숨을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격렬하게 달리는 당나귀와 그 위의 기수를 피했다. 기수는 배를 땅에 붙인 채, 팔을 꼬아 당나귀의 목을 꼭 안고 매달린 채였다.

머리가 반대쪽으로 축 늘어져 있던 데라루는, 도로테의 모습을 보지조차 못했다.

도로테는 불안했다. 만약 그녀가 '나쁜 길목'을 건너지 못한다면, 생캉탱과 그 동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언덕 하나 너머에서 두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공범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델라루 씨의 길을 막아섰고, 이제부터는 짐승을 몰이듯 그녀를 조종할 참이었다.

도로테는 즉시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낙엽이 쌓인 오목한 땅바닥에 몸을 숨겼다.

공범들은 말 없이 지나갔다. 철갑신발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폐허 쪽으로 사라졌다. 도로테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도로테는 즉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쁜 길'을 무사히 건너, 반도와 본토를 잇는 좁은 땅줄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물가에는 다브르누아 남작과 그의 친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도로테는 언덕을 다시 올라 아지트 쪽으로 급히 향했다. 아지트에 다다르기 직전, 그녀는 소리쳤다.

"생탕탕!… 생탕탕!"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집 앞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과수원을 지나 창고도 살펴봤다. 그리고는 즉시 마차 문에 손을 댔다.

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있는 것은 아이들의 가방과 평상시 쓰던 물건들뿐이었다.

"생탕탕! 생탕탕!"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주저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카페 역할을 겸하던 작은 방에는 아부르의 아연 카운터가 놓여 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벤치와 의자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채운 잔 세 개와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로테가 불렀다.

"아무르 부인……"

그녀는 신음 소리를 들은 듯해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카운터 뒤, 허리를 구부린 채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벽지의 판자들에 묶여 있는 아부르 부인이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손수건이 막혀 있었다.

도로테가 그 손수건을 벗겨내며 물었다.

"다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바다 쪽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명을 빼고요. 가장 어린 아이요."

"몽포콩?"

"주님, 그가 어떻게 된 거죠?"

"그가 납치당했어요."

"두 남자였습니다. 두 남자가 여기 들어와서 물을 달라더군요. 아이는 우리 곁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창고 뒤 과수원 깊숙이에서 장난치고 있었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제 목을 잡는가 하면, 다른 한 남자는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너의 머리를 조여죽이겠다. 다른 애들은 어디 있냐?'"

"저는 아이들이 바닷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대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 노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맹세해라.'"

"'맹세합니다.'"

"'너도 말해, 꼬마야. 형제자매는 어디 있냐?'"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도 제 말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이도 잘 알았지만요."

"저기 바위 틈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묶어 두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 우리가 곧 돌아올 테니까. 만약 우리가 돌아왔을 때 네가 여기에 없으면, 너는 큰일 난 거야, 어멈.'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는 그중 한 명이 재킷에 말아 감싸 안고 있었죠. 그게 다예요."

도로테는 온몸이 하얗게 질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생트캥탱은요?"

그는 아마 반 시간쯤 뒤에 돌아왔을 거야. 몬포콘을 찾으러. 결국 그는 나를 찾아냈지. 나는 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

"아,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내 줄을 자르려 했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지. 남자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그는 벽난로 위에 걸려 있던 큰 총을 가

져갔어. 총알은 없었지만, 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샤스포' 총이었지. 그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지.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갔을까?" 도로테가 물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들이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부터 얼마나 지났니?"

"최소 한 시간은 지났을 거야."

"한 시간이라니…" 도로테가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여관 주인이 자신의 묶음을 풀어도 된다고 승낙했다.

해방되자마자 여관 주인은 도로테에게 대답했다. 도로테는 구원을 청하러 페리아크로 보내고 싶어 했다.

"페리아크요? 이십 리나 되는 거리잖아요. 제발, 여보시요. 제겐 그 힘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로테는 그 조언을 고민할 새도 없었다. 그녀는 폐허로 돌아가 싸움을 걸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계획한 공격은 실제로 일어났다. 하지만 한 시간 일찍, 즉 신호가 울리기 전에였다.

몽포콘 납치는 사전 조치였다. 두 남자는 마보파에서 대기하다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작전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도로테는 이 납치가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

그 싸움에는 다이아몬드 도둑질만 있는 게 아니었다. 더 중요한 전리품이 있었다. 그것은 드에슈트뢰가 그토록 치열하게, 그토록 사나운 집념으로 쟁취하려던 것이었다.

지금 몬포콘은 그의 손안에 있었다. 승리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그는 반드시 도로테를 굴복시켜야 했다.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다.

몬포콘의 확실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녀는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시련을 견디든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 괴물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잘 알고 있었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쥐고 나를 조종하네."

그녀는 길 건너편에 작은 돌멩이들이 원형으로 놓인 것과 잘린 나뭇가지들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다. 그것은 생캉탱이 남긴 신호로 보였다.

아이들이 나보와 파스로 향하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 바다로 이어지는 습지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숨어 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몬포콘을 위협하는 위험들만 가득했고, 오직 납치자들을 따라잡는 일만 생각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도에 들어섰다. 악의 고개도 무사히 넘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드디어 고지에 올랐다.

그때, 또 다른 총성이 들렸다.

ruin들 사이에서 쏜 총성이었다. 누구를 향해서였을까? 델라루 씨를 노린 것인가? 아니면 세 젊은이 중 한 명을?

'아!' 그녀가 생각했다. 불안한 마음에. '그 세 친구를 두고 온 게 아니었나? 네 명이 함께였다면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힘도 못 쓰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다.'

도로테가 성의 외곽 담장을 지나쳐 들어갔을 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끝없는 정적이었다. 마치 그 정적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그리 넓지 않았다. 길이는 길어야 3분의 4리, 너비는 몇 백 미터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마도 아홉이나 열 명의 남자가 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진 적도 없었다. 오직 새들의 지저귐과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떨어지는 낙엽의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마치 사물 자체가 침묵을 공모하는 듯했다.

"무서워요." 도로테가 속삭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걸까요? 서로가 맞서기 전에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태라든가요. 한쪽에는 에링턴과 웹스터, 다리오가 있고, 다른 쪽에는 드에슈트르레와 그 일당이 있죠."

그녀는 시계탑 마당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두 마리의 말 옆에 묶인 나귀를 다시 보았다. 나귀는 덤불잎을 뜯고 있었다. 고삐는 땅에 놓여 있었고, 안장은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땀에 젖은 털이 윤이 났다.

들라루 씨가 어떻게 된 걸까? 그는 외국인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 그의 탈것은 그를 떨어뜨려 적의 손아귀에 내버려둔 걸까?

이렇게 매순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도로테는 겁쟁이가 아니었다. 전쟁 중 야전병원에서 최전선을 누비며, 그녀는 많은 남자들보다 훨씬 빨리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익숙해졌다. 폭격이 쏟아지는 시간에도 그녀는 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여주인이었다. 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 즉 미지의 존재들에게는 남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극도로 예민한 감각은 위험을 정확히 감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녀는 그 위험을 깊이 느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이길 수 없는 힘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몽포콩을 구출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큰 나무들이 늘어선 길로 들어섰다. 외롭게 서 있는 참나무가 있는 사거리도 지나, 코크생 탑이 솟아 있는 언덕을 향해 올랐다.

고독과 침묵은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깊은 침묵이었다. 너무도 비정상적인 고독에, 도로테이는 혼자라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엿보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발걸음을 뒤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위협에 노출된 것 같았다.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곧 적에게 미리 준비해 둔 함정에 빠질 것만 같았다.

그 느낌은 너무 강렬했다. 도로테는 자신의 본성과 직관의 정확함을 잘 알기에, 그 느낌을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함정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드라마의 모든 정황과 그녀의 직관, 그리고 사색이 그녀를 코크생 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누군가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테는 아치형 입구 앞에서 멈춰 섰다.

그 반대편, 성채의 광활한 중앙 통로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는 적들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가 몇 발자국만 더 내딛는다면, 그들은 그녀를 사로잡을 것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드라루 씨가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협박에 굴복하여 두 번째 봉투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것이라고도 확신했다. 바로 그 두 번째 봉투였다. 그 봉투 없이는 보그레발 후작의 유명한 보석이 결코 발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두 분이 흘렀다. 그녀가 상상한 적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사건의 논리 자체가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니 그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의도 없이 보이는 미세한 동작을 취했다. 자세로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그녀가 명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녀는 지갑을 열 수 있었고, 봉투를 집어 들었다.

손으로 봉투를 구겨서 작고 단단한 공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팔을 치마에 붙인 채,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뒤에서 거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졌다. 그것은 중세의 낡은 철문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다. 홈을 따라 미끄러지며, 단단한 나무 격자로 된 문을 닫았다.

제16장

도로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포로가 되어 있었다.

'맞았어.' 그녀가 생각했다. '저들이 이 전쟁터의 주인이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른쪽에는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 아마도 그곳으로 도망쳐 밧줄 사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몽포콘 납치 사건은 그녀에게 싸움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우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맹수들이 우글리는 투구장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비록 혼자이고 친구가 없었지만, 그녀는 매우 평온한 기분을 느꼈다. 걸으면서 그녀는 치마 옆으로 얇게 말아 둔 종이를 흘려보냈다. 종이는 바닥으로 굴러가 돌멩이와 먼지 사이에 사라졌다.

그가 아치형 통로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다.

두 팔이 쑥 올라왔다. 두 남자가 권총을 겨누고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손도 대지 마, 알았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손 좀 대면 쏜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흉측한 두 사내였다. 물병을 입은 선원들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들이 마뉴르 저택에서 드에스트레슈를 따라다녔던 두 인물임을 알아챘다.

그녀가 물었다.

"아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 분명 네가 데려간 거잖아."

그들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한 남자가 총구를 겨누는 사이, 다른 한 남자가 그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내가 처리할게."

그때, 도로테가 눈치채지 못했던 세 번째 인물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벽에는 덩치 큰 담쟁이 뿌리가 그를 숨겨두고 있었을 뿐이다.

에스트레슈였다.

그는 여전히 러시아 병사의 분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전과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도로테는 그에게서 로보레와 마노아뷔트의 에스트레슈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다시금 오만한 표정과 악의 어린 눈매를 되찾았다.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이 잘려 나간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의 뒷머리가 납작하게 다져진 것과, 턱이 원숭이처럼 튀어나온 것도 알아차렸다.

그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을 음미하는 듯도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 앞에서의 어색함, 혹은 공격을 주저하는 듯한 태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을 뒤에 깍지 낀 채 거닐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어나갔다.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기는 없나?"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두 동료를 불러 동료들과 합류하라고 명한 뒤, 다시금 안절부절못하며 오가기를 반복했다.

도로테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자신과 연결될 만한, 사람다운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저속함과 천박함, 그리고 간사함뿐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야 했다.

성채의 폐허들이 만들어낸 좁은 싸움터. 그녀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악당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지휘관은 가장 잔인한 자였다. 감시받고, 노림받으며, 무력한 상황에서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날카로운 지혜뿐이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걸린 것이기도 했다.

이미 한 번, 마노로오뷔트 성의 성벽 안에서 그녀는 같은 처지에 같은 적을 두고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적조차도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경계하는 순간, 적의 힘은 이미 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지금 그에게 있어 성공은 확실했고, 즉각적이며 완전한 것이었다. 그의 태도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 특유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입을 연다.

"참으로 예쁘지 않느냐, 그 아이를. 왕족이 먹어야 할 고기 같은 여인이지. 아쉽군, 나를 미워하다니."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물론 그건 증오겠지, 하겠지, 도로테?"

도로테가 한 발짝 물러섰다. 그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 알지. 네 아버지 이야기지. 하긴, 네 아버지는 이미 많이 아팠어. 지금쯤이면 죽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지."

도로테가 말했다.

"그럼 방금 그 동조자는요? 가짜 후작 말입니다."

그가 비웃듯 웃었다.

"저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제발. 안타깝게 여길 만한 인물이 아니야. 너무 비겁하고 은혜를 모르는 놈이었거든. 정체가 드러나자 네가 추측했듯이, 나를 배신할 준비까지 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요, 도로테. 놀라울 정도로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말요! 저는 하인 조프레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와 혈연이 있다고 믿는 저로서 수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던 것을, 당신은 몇 분 만에 파악했어요. 주저함도, 실수도 없었죠. 마치 내 손에 모든 카드가 쥐여 있는 것처럼,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도로테, 지금 당신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이지?"

"알고 있어요."

"네가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가 외쳤다. "정말, 네가 빌어대는 소리를 기대했는데……. 네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바닥을 기는 모습을 상상했어. 그런데 대신, 눈을 내리깔지 않고 나를 거의 도발하는 듯한 시선. 도발적인 태도라니."

"저를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 계산을 정리하자. 두 가지가 있군. 도로테의 건이야." 그가 미소 지었다. "그건 아직 말하지 말자. 마지막에 하기로 하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건. 지금쯤이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네가 필수 문서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지. 더 이상 방해는 충분해!"

"델라루 씨가 총을 이마에 대고, 두 번째 봉투를 네게 건넸다고 자백했어. 그걸 내게 줘.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몬포송에게 불행이 닥치겠군."

도로테는 놀라움조차 느끼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지금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대결이 맨oir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곳에서는 구조를 기다렸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상대가 그런 인물인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승자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어느 순간엔가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일 테니까.

‘끝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집요하게 생각했다. 끝까지, 아니 마지막 15분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분의 마지막 15초까지도.

그녀는 적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령조로 말했다.

“여기 고통받는 아이가 있잖아. 먼저 그를 풀어줘.”

“오, 오!” 그가 비웃는 듯 말했다. “소녀가 지시를 내리시다니, 무슨 권리로요?”

“곧 당신이 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확실한 권리로요.”

“누구의 권리로, 영주님?”

“제 세 친구의 권리로요. 웹스터, 에링턴, 그리고 다리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그분들은 스포츠에 익숙한 거친 사내들이오. 그 용감한 챔피언들을 믿는 당신의 판단이 옳소.”

그는 도로테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성탑 내부가 만들어낸, 돌들로 어지럽혀진 경기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오른쪽, 반대쪽 입구를 이루는 균열 옆, 그리고 덩굴식물이 덤불 위에 드리워진 커튼 뒤에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앞쪽이 아치형으로 된 이 방들은 옛 감옥이었을 것이다. 기초석에는 여전히 고리가 박혀 있었다.

세 구획에는 웹스터, 에링턴, 다리오가 묶여 있었다. 입은 단단히 봉해졌고, 끈으로 꼼짝 못 하게 묶여 고리까지 단단히 고정된 채 미라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이들을 감시하는 총잡이 세 명도 있었다.

네 번째 구획에는 가짜 후작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다섯 번째 구획에는 델라쥬 씨와 몽포콩 대위가 있었다. 아이는 담요에 감싸여 있었다. 얼굴 아래를 가리고 있던 천조각 위로, 눈물이 고인 그 불쌍한 눈이 도로테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도로테는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반항의 말도, 욕설도 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부수적인 사건인 양, 그녀는 행동했다.

"자, 에스테리히가 비웃듯 말했다. '네 변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 부대는 또 어떻고?'

포로들을 감시하는 동무가 셋. 수평선을 주시하며 감시병으로 서 있는 이가 둘. 나는 안심해도 되겠지?

하지만, 아름다운 아가씨. 왜 그들을 떠났소? 당신은 그들과 이어주는 고리였는데. 혼자 남은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씩 잡혔소. 성곽 아래로 빠져나오는 길에서요.

누구든 몸부림쳤지만, 오래가지 못했소. 내 부대원들은 굶힌 데 하나도 없었소.

델라루 씨를 좀 고생했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버리니, 모자에 총알을 한 발 쏴서 내려오게 했소. 몬푼은… 음, 정말 온순한 천사였지만 말이오.

결국, 네 챔피언들은 이미 무력해졌소. 이제 네게 남은 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그건 너무 적지."

"이쯤에서 그치세요. 다이아몬드의 비밀은 저와 저 혼자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의 묶음을 풀고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르키 드 보그르발의 봉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헛, 제안을 보니 기개가 있군. 정말로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세 친구를 위한 조건으로요?"

"봉투를 주세요."

"묶음을 끊으세요."

그가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봉투를 주세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원해요. 그 봉투가 필요해요…"

"안 됩니다." 그녀가 점점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가슴에 핀 작은 주머니를 찢어냈다. 주머니 끝이 살짝 밖으로 드러나 있던 것이다.

"아! 그걸 네가 넣었다고 공증인이 말했군. 금화처럼." 그가 승리의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제 내가 알게 되겠군."

하지만 주머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실망한 그는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도로테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맞아, 네가 나를 속이려던 거지. 네 동료가 구출되면 나는 끝장이었어. 즉시 봉투를 내놓아!"

"이미 찢어버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 그가 외쳤다. "그런 걸 어떻게 찢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비밀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다시 한 번 말했다.

"내가 읽은 후에 찢었어요. 제 동료들의 묶음을 풀어주시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봉투를 당장 내놓아… 아, 내가 당장 당하고 있다는 줄 아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물어보마. 봉투!"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한쪽 감옥으로 달려가 아이의 이불을 벗겨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은 채, 멀리 던질 짐처럼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봉투를 가져와! 안 그러면 벽에 머리를 박아 죽여!"

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야수 같은 표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동조자들은 그를 보며 웃고 있었다.

도로테는 승낙의 의미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는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그녀 앞에 섰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이었다.

"봉투를 가져오라고!" 그는 다시 한 번 명령했다.

도로테가 설명을 시작했다.

"입구 천장 아래쪽,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돌멩이들이 널브러진 바닥 한가운데에 작은 공 모양의 것이 있을 거야."

그는 동조자 한 명을 불러내어 그 지시를 반복했다. 남자는 뛰어갔다.

"제시간에 했군."

도적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제시간에."

"봐, 나를 자극하지 않았어야 했어."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왜 저런 도전적인 태도야?"

도로테의 차가운 침착함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든 듯했다.

"그래, 대체 왜?"

"눈을 아래로 내려, 미친놈아!"

"내가 여기서 주인이 아니야? 네 친구들의 주인이요, 네 주인이요. 그래, 바로 너의 주인이라고."

그는 이 말을 두세 번이나 되풀이했다. 마치 혼잣말처럼, 도로테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과 함께.

그때 동료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는 몸을 돌렸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됐어."

"확실해? 정말 확실해?"

"아, 천만다행이군. 드디어 승리다."

드스트레슈는 구겨진 봉투를 펼쳤다. 그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들며,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천천히 뒤집어 보았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봉인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가 곧 알게 될 그 거대한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군."

그는 봉투를 뜯어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위에는 세 줄, 많아야 네 줄의 글씨만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읽은 드스트레슈는 깜짝 놀란 듯했다.

"오호! 오호! 이건 정말 대단하군. 내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 노인이 옳았어. 이 숨겨진 곳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곳이었어."

그는 또다시 조용히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결심을 꾀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가 다시 감방 쪽으로 돌아와 세 경비원에게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해. 줄이 단단하잖아? 그럼 배로 가서 출항 준비를 해."

공범들은 망설였다.

"뭐야, 그건?" 두목이 물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보물은요?"

도로테는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눈치챘다. 의심이 가득한 눈치였다. 보물을 나누기 전에 드에슈트레히를 먼저 놓아주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될 것 같았다.

"보물?" 그가 외쳤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혼자 먹어 치울 줄 아냐, 바보들아? 너희는 약속한 몫을 받을 거야.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풍성한 몫을!"

그는 세 사람을 거칠게 쫓아냈다. 혼자 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둘러라! 아, 참. 파수 서 있는 동료 두 명을 부르라. 너네 다섯이 그 가짜 남작을 옮겨라. 바다에 던져버릴 거다. 눈치도 못 채게."

"가라."

동조자들은 잠시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확고한 권위를 행사했다. 불만을 토로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결국 명령에 따랐다.

"여섯 시."

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일곱 시에 내가 합류한다. 밤이 시작될 무렵에 상륙할 수 있게 말이다. 준비는 다 돼 있어야 해. 선실 정리하고… 아마도 승객이 한 명 더 생길지도 몰라."

다시 도로테를 바라보며, 동료들이 떠나는 틈을 타 그는 천천히 말했다.

"승객? 아니면 여승객이지, 도로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기다려 왔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에 후작의 봉투와 문서를 쥐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켜면서, 그는 다시 한 번 지시 사항을 읽었다.

"훌륭해!" 그가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일류야! 지옥 끝에서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아, 이 후작이라니!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는 종이를 길게 말아 라이터 불꽃에 대었다. 종이에는 불이 붙었다.

그 불꽃으로, 그는 의연한 척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죄수들을 향해 돌아서서, 팔을 뻗은 채로 기다렸다. 바람이 불자, 문서의 흔적은 약간의 재만 남긴 채 흩어졌다.

"봐요, 웹스터. 에링턴, 다리오. 거기서 끝이에요. 할아버지의 비밀은 이제 이 재 몇 줌 밖에는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어리석으셨군요. 세 분이나 함께했는데 말입니다. 기다리던 보물은 지키지도 못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감탄하던 예쁜 사촌 여동생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참으로 아쉽군요. 성채의 작은 방에는 여섯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제 목을 잡아당겼다면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참사였죠. 당신들에게는 불운이었고, 그녀에게도 불운이었네요."

그가 권총을 들어 보였다.

"필요 없을 거야, 그렇지?" 그가 말했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 끈들이 목을 더 조여오는 걸 너도 알잖아.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냥 질식사할 거야. 알아서 잘해. 이제부터는 네가 내 거야, 도레테. 따라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광장 너머로 갔다. 그들은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를 지나, 벽만 남은 방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총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는 그곳이 옛 경무실이라고 가리켰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잘될 거야. 너의 구애자들은 우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었어. 봐, 잔디 벤치가 있네. 앉으세요, 제발."

그녀는 팔을 교차한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기다리더니 중얼거렸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내어준 자리를 차지한 뒤, 입을 열었다.

"우리 세 번째 만남이군, 도로테. 처음에는 로보레 테라스에서 내 제안을 거절했지. 그건 이해가 가. 너는 내 정보의 정확한 가치를 알지 못했고, 나는 너에게 그저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권위 없는 모험가로 보였을 테니까."

그런 마음은 매우 고결했다. 샹니의 사촌들이 그 말에 속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귀걸이 도난 사건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너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지. 기대하던 큰 기회를 위해 가장 위험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거였어.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나를 고발한 직후에 바로 저택으로 달려갔다는 점이야. 그곳에는 아마도 수수께끼의 열쇠가 있었고, 나는 또다시 너의 계략에 부딪힐 운명이었지.

젊은 다베르누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메달을 훔치는 일. 바로 네가 맡고 실행한 임무였어.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네. 네가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에스트라이처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탈옥, 위장 화재, 메달 회수, 유언장 추가 조항 장악. 결국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지.

지금 이 순간, 네 개의 붉은 다이아몬드는 내 것이야."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라도, 일 년 후라도 상관없다. 내 것이니까.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 세기 동안 헛되이 찾았지만 결국 실패한 것을, 이제 다른 이들이 찾아낼 이유는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막대한 부자가 되는 거야. 수백만, 수천만 프랑. 그 돈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 수도 있어. 그게 내 계획이야. 단, 도로테가 내가 내 사람들에게 예고한 그 승객이 되어주기로 동의한다면."

"답장을 한 마디만 해라. 응인지, 아니인지."

도로테는 어깨를 으쓱였다.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그가 말했다.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해본 거야. 큰 수단을 쓰기 전에."

그는 이 협박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도로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는 참으로 차분하군." 그는 불안한 기색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둘뿐이야. 네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수단은 몬포콘의 생명과, 사슬에 묶인 이 세 남자의 생명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차분한 거지?"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이미 망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거예요."

"별 소리 하지 마."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돌이킬 수 없이 망한 거죠."

"왜 그런 거지?"

"방금 전 여관에서 몬포콘이 납치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나머지 세 하인을 가장 가까운 농장들로 보냈어요. 그들은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농부들을 데려올 거예요."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농부들을 모아 군대를 이루는 동안, 나는 이미 멀리 도망쳐 있을 거야."

"그들은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늦었어, 내 사랑.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내手下들에게 너를 끌고 가라고 했을 거야."

"당신의手下요? 아니…"

"누가 나를 막았겠어?"

"당신은 그들을 무서워해요. 호위사처럼 굴지만 말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혼자 남아서 훔친 비밀을 이용하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동맹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가 고개를 저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야, 내 사랑! 연극일 뿐이지. 넌 죽은 자보다도 더 창백해. 네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알고 있잖아. 한 시간 안에 내가 이곳에서 쫓겨날지, 아니면 내 부하들이 나를 배신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게나 내게나 중요한 건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지. 그리고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해 넌 의심하지 않겠지, 도로테? 그렇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날카로움으로 말을 잘라 말했다.

"첫 순간부터 나는 바보처럼 속았지. 줄타기 무희, 곡예사, 공주님, 도둑, 떠돌이 예인단원…… 당신 안에 나를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어. 난 늘 여자를 경멸해 왔어.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못했지. 하지만 당신, 도로테. 당신은 나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무서워하게 만드네. 사랑일까? 아니. 증오야.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병이지. 나를 태우는 독, 그리고 반드시 떨쳐내야 할 독, 도로테."

그는 그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눈은 차갑고 열에 타 있었다. 그의 손은 소녀의 어깨 주변을 맴돌며, 곧바로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포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벽 쪽으로 물러서야 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낮게 말했다.

"장난은 이제 그만, 도로테. 너의 집시 같은 마법에 나는 지쳤어. 네 입술의 맛, 그거야말로 나를 고쳐줄 약이지. 그 다음엔 내가 도망쳐서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건 그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이해했지?"

그는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힘껏 얹었다. 그 충격으로 도로테는 몸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응시했다. 경멸 가득한 태도로, 끝까지 그를 도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긴장시켰다.

단 한 순간도, 그녀가 속으로 떨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해되니? … 이해되니?"

남자는 그녀의 팔과 목을 쥐어짜며 비명을 섞어 중얼거렸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걸 알겠지? 구원도 없다. 이건 패배의 대가야. 오늘 나는 복수한다. 동시에 너로부터 해방되기도 해. 우리가 헤어지면, 비로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녀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후회는 없다. 이 사건의 결말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그는 점점 더 젊은 소녀의 어깨를 누르며, 비웃음 섞인 기쁨으로 말했다.

"네 눈이 흐려지고 있구나, 도로테! 그걸 보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네 눈이 두려워하고 있어… 도로테, 네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정말로 승자의 보상이야. 나 앞에서 놀란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해. 그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도로테, 도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잊을 수 있다고? 미친 소리야. 네 입술에 키스하는 건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게, 노예처럼, 그리고 사랑받는 여주인처럼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지."

그녀는 벽에 닿았다. 남자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녀는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다.

"아! 내 입술을 줘. 당장. 알아듣지 못했어? 안 그러면 몬포콩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금처럼 네게서 떼어내서 돌리겠어? 어서 순종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 머리를 망쳐버릴 테니……"

도로테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도들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떨렸다. 동시에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가 곧장 아이에게 달려들까 봐,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녀를 무릎 꿇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 끝이 났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도로테는 상상도 못 할 광경을 목격했다.

남자 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반대편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성곽의 좁은 틈새, 즉 창살 구멍에서 총구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도로테는 기억해냈다. 생캉탱이 여관에서 장전할 탄알이 없는 낡은 총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드에슈트뢰히의 시선을 끌 만한 동작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생탕탕의 계략을 그녀는 이미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위협하는 듯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드에슈트뢰히가 그 위협을 자신에게 겨눈 것으로 보자마자,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상황을 조율해야 했다.

드에슈트뢰히가 단숨에 알아챌 것이 분명했다. 마치 도로테가 스스로 보듯, 이 총이 장난감 소년용 총처럼 무해해 보이는 반면, 녹이 슬고 상태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도로테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깨달았다. 자신을 추스르고, 적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몇 초간이라도 좋았다. 이미 침착함과 절제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녀의 생사는 물론, 몽포콘의 운명까지도 그녀의 결단력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강인함 속에 운명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무의식중에 입 밖으로 새어나갔다. 마치 자신을 지켜줄 기도를 외우듯, 낮은 목소리로 말이다.

그 순간, 상대의 꽉 조르던 손길이 느슨해졌다.

그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믿었던 그 여인이, 평온한 어조로 그 오래된 격언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격언을 수없이 고민해 본 바 있었다. 하지만 그 격언이 이토록 평온한 어조로, 이토록 절박한 순간에 그녀로부터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그토록 평온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하얀 이빨 사이로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방금 전까지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던 눈은 이제 가장 평온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마노오aux뷔트 연못가에서 들었던 도로테아의 놀랄 만한 웃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오늘도 또 웃으려나?"

"나도 같은 이유에 웃는 거야. 당신은 이미 끝났어."

그는 농담을 섞어 보려 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맞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 미쳤군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가 더 이상 '너'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눈치챘다. 그리고 그 놀랄 만큼의 평정심, 그리고 두 장면의 완벽한 일치 속에 자리한 승리를 확신한 그녀는 다시금 말했다.

"당신은 꼼짝할 수 없어요. 상황은 저택 때와 똑같아요. 그때 라울과 아이들이 도움을 부르러 나갔죠. 그러자 갑자기,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총구가 당신을 겨누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을 데려왔죠. 저택 때처럼, 총을 든 채로 그 사람들이 서 있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거기 있어요. 총구가 당신을 향해 조준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요." 강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있어요." 그녀가 점점 더 조급한 어조로 단언했다. "내 아이들의 신호를 들었어요. 그들은 성곽 둘레를 돌아갈 시간이 없었죠. 그들은 바로 그 벽 뒤에 서 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해요!" 그가 외쳤다. "당신이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녀는 명령했다. 더 이상 어떤 위험도 자신에게 닥치지 않을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너' 호칭을 써가며.

"돌아봐. 너의 가슴을 향해 총구가 겨눠져 있는 걸 볼 거야. 내게 단 한마디만 시키면, 그들은 곧장 쏠 거야. 그러니 제발 돌아봐!"

그는 몸을 피했다. 복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도로테의 눈은 명령했다. 타오르는 눈, 거스를 수 없는 눈. 그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는 그 눈의 뜻에 굴복하고 몸을 돌렸다.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사분면이었다.

도로테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강도에게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의 확신으로 외쳤다.

"손 들어! 불쌍한 녀석아, 안 그러면 개처럼 쏴 죽일 거야. 손 들어! 저기 있는 자들아, 쏴! 자비 없이 쏴! 손 들어!"

드에슈트레히는 소총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들었다.

순간 도로테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앗겼다. 도로테는 흔들림 없이, 손끝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은 채 정면으로 조준했다.

그리고는 눈빛이 악의에 번득이는 가운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바보야. 내가 이미 넉넉히 말했잖아. 넌 이미 끝났다고."

제17장

사태는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은 역전되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불안정했다. 도로테는 그런 남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오래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놀랄 만큼 대담한 수를 써서 그의 마음에 착각을 심어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악당을 붙잡으려 무모한 시도를 계속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웹스터, 얼링턴, 마르코 다리오가 구출될 때까지 그를 제압해 놓는다면, 비로소 확실한 체포가 가능했다.

그녀는 군대를 거느린 사람처럼 위엄 있게 구사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한 명은 여기서 총을 겨누며 움직임을 주시하고, 나머지는 죄인을 구하러 가라. 말 달리면서! 성루 둘레를 돌아서 들어가라. 입구 왼쪽, 조금 더 안쪽에 있다."

나머지 부하들은 카스토르와 폴룩스였다. 만약 생캉탱이 1870년형 소총을 도적에게 정확히 조준한 채 구멍 밖으로 내밀어 둔 채로 그냥 누워 있으라고 판단한다면, 그도 함께 갈지 모른다.

"저희가 가요. 들어가요… 찾고 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조금씩, 그녀는 그의 얼굴이 풀려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소총의 총열을 살펴봤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소리도 들었다. 그 발소리는 농부들이 떼를 지어 지나갈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곧 그녀는 그 도적이 다른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칠 것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노에 이를 갈며 팔을 내렸다.

"속았군!" 그가 말했다. "이건 애들이고, 이 소총은 그냥 낡은 녹슨 쇠조각일 뿐이야. 아, 너는 정말 대담하구나!"

"제가 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여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쏠 뿐, 단순히 죽이기 위해 쏘지는 않아. 법정에 서라고? 그게 너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수 있겠어? 차라리 내 혀를 잘라내고 천천히 태우는 편이 낫지. 그 비밀을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어. 그건 내 거야. 내가 원할 때 가져갈 거야."

"앞으로 한 발짝만 내딛으면 쏜다."

"알겠어. 네가 이겼군. 내가 갈게."

그가 귀를 기울였다.

"저쪽 애들이 수군거린다. 웹스터 일당을 찾은 모양이야. 그들을 풀어주는 동안이면 나는 이미 사라졌지. 잘 가. 또 만나."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 내가 마지막 말을 하겠어. 보석은 우선이고, 연애 문제는 그 다음이지. 두 가지를 섞은 게 실수였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보석을 얻지 못할 거야. 내가 확신하지 못했으면, 당신이 떠나는 것을 허용했겠어?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망했어요."

"망했다? 왜?" 그가 비웃었다.

"내 생각이 있어."

그가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더 또렷한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방을 뛰쳐나와, 몸을 웅크린 채 수풀 사이로 달아났다.

도로테가 그 뒤를 쫓아나와 총을 겨눴다. 갑자기 그를 쓰러뜨리겠다는 결의가 서렸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총을 내리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할 수 없어. 정말 할 수 없어. 게다가 무슨 소용이겠어. 아버지의 원한은 어쨌든 풀릴 테니까."

그녀는 친구들 쪽으로 걸었다. 친구들을 풀어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밧줄이 얽힌 그물이 너무 복잡해서였다. 먼저 일어난 웹스터가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어디에?"

"이미 떠났다." 그녀가 말했다.

"뭐?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놓쳐 버렸어?"

에링턴이 이어졌고, 다리오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격분한 상태였다.

"도망쳤다고? 정말로? 대체 어디로?"

웹스터는 도로테에게서 총을 빼앗았다.

"죽일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래. 용기가 없었다."

"저런 개자식들! 살인자라고? 절대 놔두지 않겠다. 내일 모레면 끝장이다."

"도착했나, 친구들?"

도로테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공범들도 있다. 다섯, 여섯 명은 될 거야. 데스트뢰허까지 합치면 더 많지. 총을 들고 있어."

"좋아!" 미국인이 말했다. "리볼버 총알이 일곱 발이니까."

"그래, 봐야지."

세 젊은이는 쫓아나갔다. 도로테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몬포콘이 울부짖으며 그녀의 치마를 붙잡았다. 다리는 여전히 묶인 채였다.

"엄마…… 엄마…… 가지 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이제 오직 그 아이 생각만 했다.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안아주며 달래주었다.

"울지 마요, 가엾은 대위님. 다 끝났어요. 그 흉악한 남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생탕탕탕탱에게 감사했나요? 그리고 카스토르와 폴룩스, 두 동무에게도요. 그들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사랑?"

그녀는 세 소년을 다정하게 껴안았다.

"맞아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 생탕탕탱! 총을 들고 온 그 발상, 정말 영감이네요! 당신은 정말 단단한 녀석이에요, 내 친구! 와, 내가 다시 한 번 꼭 안아줄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곁까지 올 수 있었는지 말해 봐요. 여관에서 출발할 때 돌멩이를 떨어뜨린 자국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왜 습지를 돌아왔나요? 절벽 아래 해안가를 따라 성터로 가려고 했나요?"

"네, 엄마," 생탕탕탱이 대답했다. 도로테의 칭찬에 가슴이 설레었고, 그녀의 키스에도 마음이 뭉클했다.

"그건 불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아니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았죠. 모래 위에 작은 보트가 있었는데,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쳐 바다로 밀어냈어요."

"너희 세 사람이 모두 그 용기를 냈다는 거야? 노를 젓는 힘까지? 최소 한 시간은 걸렸을 텐데!"

"한 시간 반쯤 걸렸어요, 엄마. 바다에는 암초가 많아서 우리를 계속 밀어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여기 근처, 성탑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드에슈트뢰의 목소리를 알아챘죠."

"아! 내 아이들!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이번에도 키스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성토랭의 뺨을, 카스토르의 이마를, 선장의 광대뼈를 가리지 않고 키스로 적셨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노래했다.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야 더 이상 자신의 손목을 잡은 야만인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안도스러운지! 그 야만인의 끔찍한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갑자기 멈췄다.

"델라루 씨도 잊었네!"

그는 감옥 구석, 높은 풀숲 뒤에 쓰러져 있었다.

"돌봐요! 얼른, 성토랭, 밧줄을 잘라요… 주님, 기절했네요… 델라루 선생님, 정신을 차리세요. 안 그러면 그냥 갈 거예요."

"저를 두고 가다니!" 공증인이 갑자기 깨어나 부르짖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적군이…"

"적군은 도망쳤소, 델라루 선생님."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놈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두목이 제 모자를 총알로 뚫어놓았잖아요!"

당나귀는 결국 유적지 입구 근처에서 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강도가 단 한 발의 총알로 저를 모자를 벗겨놓은 거예요.

"죽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몸속이 아파요. 타박상도 생겼고요."

"괜찮을 겁니다, 델라루에 선생님. 내일이면 다 낫습니다. 확신합니다. 생캉탱, 델라루에 씨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몬포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계획 없이 떠난 그들의 원정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공격 계획도 없이 무작정 떠난 그들은, 만약 강도들이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또다시 각각 잡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젊은이들은 드에슈트뢰의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을 몰랐다. 성벽 너머의 반도 지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거대한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어 길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다시 만나게 되었다.

각각은 작은 길들의 미궁에서 길을 잃었고, 자신도 모르게 성루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도로테는 방향 감각이 더 뛰어나 실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작은 길은 피워내고,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을 본능적으로 선택했다. 게다가 곧 발자국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해안과 망루 사이를 오가던 무리가 정기적으로 밟아 온 길이었다. 이제 더 이상 오해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앞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길은 분명히 꺾여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거친 바위 덩어리가 방향

을 바꾸게 만든 것이었다. 바위들은 가파르고 조각조각 나 있었지만, 그들은 우회하는 것이 꽤 길어 보였기에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다리오가 더 민첩했고, 앞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쳤다.

"저기 보입니다! 다들 해안가에 있어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웹스터가 권총을 쥐고 달려왔다.

"맞아요, 저도 봐요! 저쪽으로 달려가 봅시다.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저쪽은 암반이 받치고 있는 절벽 끝자락이었다. 그곳은 해안가에서 약 40미터나 높은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화강암 기둥이 서 있었는데, 마치 바다를 향해 열린 문처럼 그 사이로 푸른 대양의 물결이 내려다보였다.

"조심해요! 몸을 낮추세요!" 도로테가 명령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나머지들도 바위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선미에서 150미터 앞, 대형 모터 어선의 갑판에는 다섯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다.

도로테와 친구들을 본 남자 중 한 명이 급히 몸을 돌렸다. 총을 어깨에 메고 방아쇠를 당겼다.

거친 화강암 조각이 에링턴 발 옆으로 튀어 올랐다.

"멈춰! 다시 쏜다!"

도로테는 동료들을 제지했다.

"그다음에 뭐 할 건가요? 절벽이 수직으로 내려앉았어요. 공중으로 뛰어내릴 생각은 아니죠?"

"아니요. 하지만 길로 돌아가서 빙돌아 갈 수 있어요." 다리오가 제안했다.

"움직이지 마라. 미친 짓이다."

웹스터가 분개했다.

"나 권총을 가지고 있어."

"저들은 소총을 들고 있잖아. 게다가 우리가 도착하기엔 너무 늦었을 거야. 비극은 이미 끝났어."

"어떤 비극?"

"봐."

그들은 그녀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지 못했다. 총알로부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서는 도로테가 '비극'이라 부르던 장면이 펼쳐졌다. 마치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연을 강제로 지켜보듯, 그 광경은 저 멀리서 펼쳐졌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그 비극적인 공포를 깨달았다.

큰 보트가 고요한 작은 만을 이루는 자연적인 부두 옆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여자와 다섯 남자가 아무 힘도 없는 시체 위에 몸을 굽혀 있었다. 시체는 붉은 양모 띠로 묶인 듯했다.

멀리서 봐도 가장 사나워 보이는 그 여자는, 그 여섯 번째 대상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몇 마디 욕설만이 젊은이들의 귀에 들어올 뿐이었다.

"도둑놈!… 찌질한 놈!… 아, 거부하다니!… 기다려 봐!"

"내가 무슨 수를 쓰는 놈인지, 오림프, 너에게 가르쳐 주마. '박쥐'라고 불리우는 자를."

그녀는 이미 준비된 작전을 지시했다. 갱단원들이 무리를 풀자, 젊은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포로인 남자의 목에는 긴 밧줄이 감겨 있었고, 그 다른 끝은 돛대의 주포크를 넘어가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그 밧줄을 잡아당겼다.

무력한 몸이 세워졌다. 잠시 동안, 마치 춤을 추게 될 인형처럼 서 있었다. 그러자 부드럽게, 덜컹거림 없이, 그는 바닥에서 한 미터쯤 들어 올려졌다.

"드에슈트뢰에!"

젊은이 중 한 명이 러시아 군모를 보고 중얼거렸다.

도로테는 떨리는 몸으로 로보르 성에서 적과 마주쳤을 때 내린 예언을 떠올렸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네, 드에슈트뢰에 말이야."

"그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인가?"

"다이아몬드를 빼앗으려는 거지."

"하지만 그에게 다이아몬드는 없어."

"없지. 하지만 그들이 그가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순 있어. 그들의 계획을 나는 이미 눈치챘어. 그들의 얼굴에 서린 사나운 표정과, 드에슈트뢰에의 명령으로 폐허를 떠날 때 서로 주고받았던 눈빛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 그들은 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야.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덫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

저 멀리, 실루엣은 돛대 위에 단 한 순간만 매달려 있었다. 인형이 다시 내려졌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들어 올려졌다. 그러자 '박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말할 거야? … 약속한 보물은요? … 그건 어떻게 했어?"

도로테 옆에서 아치볼드 웹스터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뭐요?" 도로테가 물었다. "방금 전에는 죽이려 했더니, 이제 구해 주자고요?"

웹스터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더 이상 무감각하게 있을 수 없었다. 절벽은 가파랐지만, 모래가 흘러내린 틈새들이 있었다. 웹스터는 총을 든 남자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다리오와 에링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용없는 시도였다. 공범들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여자는 엔진을 걸었다. 세 젊은이가 해변의 모래를 밟았을 때, 보트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방향을 틀고 있었다. 미국인은 권총으로 일곱 발을 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고, 뒤따라오던 도로테에게 말했다.

"역시… 역시… 우리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눈앞에서 이 무리들이 도망쳐 버렸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로테가 말했다. "가장 큰 죄인은 이미 처벌받았잖아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오르면, 그들은 그를 다시 뒤질 거예요. 주머니가 완전히 비어 있고, 그가 비밀을 지킬 것임을 확신하면,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서 바다에 던질 테죠. 지금 선창에 누워 있는 가짜 후작의 시체처럼요."

"그리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요? 드에슈트레처의 처벌이요?"

"그를 정말 미워하시나요?"

"그가 제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다리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저들은 다른 데 가서 매달리면 되지. 우리한테는 오히려 나을 거야. 그 무리가 잡혀 법정에 서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겠지. 그게 우리한테 이로운 일이겠어? 보그레발 후작은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잖아."

에링턴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우리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비밀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으니까요."

배는 멀리 북쪽, 브르타뉴 쪽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같은 날 밤 9시쯤이었다.

아멜루 부인에게 마들렌 델라루를 맡긴 뒤였다. 그는 그저 좋은 밤을 보내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일만 생각했다.

게오르그 에링턴과 마르코 다리오도 아멜루 부인에게 침묵을 당부했다. 그녀가 당한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은 말들을 수레에 매달았다. 생탕탕이 한 쪽 귀가 잘린 말 '피 보르뉴'의 고삐를 잡고 함께했다.

그들은 '모바 파'의 자갈길을 따라 '라 로슈 페리아크' 폐허로 돌아갔다.

도로테와 아이들은 다시 그들의 집을 차지했다. 세 젊은이는 성루의 감옥 방에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치볼드 웹스터가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가 돌아온 것은 정오였다.

"사르조에서 왔습니다. 수도원 승려들을 만나 봤죠. 라 로슈 페리아크의 유적을 그들에게서 사들였습니다."

"세상에! 그 곳에서 평생을 보내실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조르주 에링턴, 다리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조용히 일하려면, 역시 내 집이 최고죠."

"아치볼드 웹스터 씨. 외모만 봐도 부자신데,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목을 매시나요?"

"저는 우리 조상인 보그레발 후작의 모험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다이아몬드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요. 도로테, 도와주실 건가요?"

"음, 아니요."

"뭐라고요? 왜요?"

"저는요. 범인이 벌을 받으니 이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당신은 남으시는 겁니까?"

"네. 저는 쉴 필요가 있고, 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7월 24일 아침에 떠납니다."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우리도요?"

"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벤데의 오래된 저택입니다. 7월 말경, 보그르발 영주의 다른 후손들이 그곳에 모일 예정입니다. 다베르누아와 샤니-로보레 가문의 사촌

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하거든요. 그 후로는 자유롭게 이곳으로 돌아와…… 골콘다의 보석들과 함께 묻히시면 됩니다."

"저도 함께요, 도로테이아 사촌."

"나는 안 돼."

"그렇다면," 웹스터가 말했다. "나는 내 폐허를 되팔겠습니다."

이 며칠은 세 젊은이에게continuous한 환상이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은 아무 방법도 없이, 하지만 열정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다만 그 열정은 도로테가 수색에 동참하지 않을수록 급속도로 식어갔다.

사실 그들은 도로테와 다시 합류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을 때는 도로테가 차려둔 마차 옆으로 모여들었다. 마차는 거대한 참나무 그늘 아래,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늘어선 길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이어진 오후는 그다지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새벽이 다다를 때까지 밤을 새우고 싶을 만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날씨는 완벽했다.

누구도 그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나뭇가지에 못질해 둔 경고문도 무시하지 않았다.

『사유지. 늑대 함정 주의.』

일곱 명은 오직 둘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네 명의 소년은 이미 그들의 열렬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놀이를 나누었고, 일곱 사람 모두 '경이로운 도로테'라 부르던 그녀에게 흠뻑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빼앗고 눈부시게 만들었다.

7월 12일, 그 고통스러운 하루 동안의 민첩함, 탑방에서 보여준 냉정함, 여관으로 달린 발걸음, 드에슈트레이히르와의 치열한 몸싸움, 그리고 그 용기와 낙천성.

그녀가 보여준 모든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놀라움에 찬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도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설명을 해 주었고,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 생활, 유랑 생활, 그리고 로보레 성과 마노르오뷔트에서의 사건들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로테가 아르곤 공국의 공주이면서 동시에 서커스 단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신사 출신의 딸이면서도 뱃사공과 줄타이처럼 거칠고 자유분방한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네 소년들에게 보여주는 다정하고 섬세한 배려는 그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의 애정 어린 눈빛과 세심한 행동 속에서 어머니 같은 본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날, 제네바 출신의 마르코 다리오가 그녀를 따로 불러들여 고백을 했다.

"저는 당신을 자매처럼 사랑할 언니가 두 명이나 있어요. 오래된 저택에 살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귀부인처럼 멋진 풍채를 뽐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날, 에링턴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꺼냈다. 어머니는 그녀를 딸처럼 맞이하면 얼마나 기쁠지, 그 마음을 전한 것이다.

여섯째 날은 웹스터 차례였다.

일곱째 날, 두 사람은 거의 싸움판으로 치달았다.

여덟째 날,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왜 저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거죠?" 그녀가 통통 튀는 웃음소리로 물었다. "제 인생에는 저 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명의 아들 말고도요. 친척도 있고, 사촌도 있고, 다른 구혼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택하세요."

아홉째 날, 그들의 압박에 밀린 그녀는 선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당신들을 한 줄로 세우고,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의 뺨에 입을 맞출 거예요."

"언제?"

"8월 첫째 날."

"맹세해 봐."

"맹세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보석을 찾지 않았다. 에링턴이 지적했듯, 그리고 몬포송이 그보다 앞서 말했듯,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던 보석은 바로 도로테 herself였다. 그들의 조상 보그르발 백작이 그들에게 준비해 둔 가장 놀라운 보물은 바로 그녀였다.

24일 아침, 도로테가 출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라로슈페리아크의 폐허를 떠나 보그르발 백작의 부에 작별을 고했다.

"그래도, 도로테 사촌, 좀 찾아볼 걸 그랬어요." 다리오가 말했다. "당신만이 두 세기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몸을 움직였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훌륭한 조상이 직접 어디에 재화가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셨소. 'In robore...' 그의 결정에 따르자고."

그들은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갔다. 빌렌 강을 건너 나ント로 가는 길에 올랐다.

마을마다 들르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소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도로테의 서커스'가 공연을 열었다. 세 외국인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도로테가 퍼레이드를 하고, 도로테가 '삐에-보르뉴'를 타며, 도로테가 줄타기를 하고, 도로테가 관객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얼마나 맛깔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이었는가!

그들은 나트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다. 도로테는 델라루 씨를 만나고 싶었다. 감정의 기복에서 완전히 회복한 노무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가족을 소개해 주고, 점심 식사까지 권했다.

드디어 달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집을 나서, 오후 중반에 만노아오뷔트 성에 도착했다. 도로테이는 마부들과 함께 마차를 대문 밖에 세우고, 세 젊은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은 텅 비어 보였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밭일하러 나갔나 보다. 하지만 열린 창문 너머로, 만노아 성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다가가자.

남자의 거칠고 저속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로테이는 그 목소리가 바로 이자쟁이 비르팽 씨의 것임을 알아챘다. 그는 분노에 찬 어조로,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다.

"돈을 내야 합니다, 라울 씨. 여기는 할아버지께서 서명하신 매매 계약서입니다. 1921년 7월 31일 오후 5시까지, 지폐나 국채로 30만 프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너가 제 것이 됩니다. 지금 오후 4시 45분입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도로테는 그 뒤 라울의 목소리와 오크타브 드 샤니 백작의 목소리를 들었다. 샤니 백작은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타협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폐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후 4시 48분입니다."

아치볼드 웹스터가 도로테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다.

"라울…… 그 사람, 우리 사촌 중 한 명이야?"

"다른 한 명은?"

"채권자야."

"수표라도 건네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왜?"

"그는 매너를 원하거든."

"게다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도로테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착한 아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오후 4시 50분에 여기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랐다. 현관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반응했다. 라울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샤니 경은 달려왔다.

그녀가 손짓으로 두 사람을 멈추게 했다.

테이블 앞에는 보이랭 씨가 있었다. 그는 증인으로 데려온 두 친구와 함께 가죽 서류가방을 펼치고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채, 손에 시계를 쥐고 있었다.

"5시입니다." 그가 승리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도로테가 정정했다.

"당신의 시계로는 5시일지 모르겠지만, 벽시계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3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요?" 사채업자가 물었다.

"좋아요. 삼 분이면 이 작은 청산과 당신을 쫓아내는 데 충분하죠."

그녀는 들고 있던 여행용 파제론을 살짝 열었다. 안주머니에서 큰 노란 봉투를 꺼내 찢더니, 천 프랑 지폐 뭉치와 증권 더미를 꺼냈다.

"세어 보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테고, 우리는 곧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죠."

그녀는 부드러운 손동작으로 그를 안마당 쪽으로 밀어냈다. 두 증인도 함께였다.

"실례합니다, 친애하는 신사. 저희는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입니다. 이종사촌들인데, 이백 년 만에 만났거든요. 이제 둘이서 있고 싶어요. 화내지 않으시죠? 아, 참요. 영수증은 다베르노이 씨에게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시계가 다섯 시를 치네요. 안녕히 계세요. 모든 분께 안부 전합니다."

제18장

도로테이가 세 남자를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자, 라울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안 돼.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너 나한테 상의했어야 했어."

"무엇에?"

"이 빚을 갚는 일에."

"화가 내지 마세요, 라울." 도로테이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비오랭 씨를 물리치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

"생각은 다 끝났어." 라울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일은 무효야."

"제발, 라울.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내일까지 결정을 미뤄 주세요. 내일까지면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샤니 경에게 키스를 건넸다. 그러고는 세 명의 낯선 이들을 향해 다가와 소개를 시작했다.

"손님들을 모셔왔습니다, 마담. 런던에서 온 우리 사촌 조지 에링턴, 제네바에서 온 마르코 다리오, 필라델피아에서 온 아치발드 웹스터 말이죠. 마담께서 이 곳에 오실 거라 알고, 가족이 모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라울 다베르누아 백작과 오타브 백작, 그리고 그의 부인을 소개했다. 힘차고 친절한 악수가 오갔다.

"완벽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모였으니,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죠."

"라울, 나는 드에슈트뢰를 다시 만났어. 내가 예언한 대로, 그는 곧장 처형되었지. 하지만 그로부터 한 시간 뒤, 그의 동조자들이 그의 머리를 산산조각 냈어."

"신문들도 그 이야기를 다뤘어. 드에슈트뢰와 생김새가 비슷한 남자의 시체가 배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 남자는 권총 총탄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해결된 셈이야."

"또 하나. 라울, 나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너의 할아버지와 줄리엣 아지르를 만났어. 라울……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선, 우리 삼촌 세 명에게 급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들은 금주법의 치명적인 적들이니까."

라울은 찬장 문을 열고 셰리와 비스킷을 꺼냈다. 그는 잔에 음료를 따르는 사이, 도로테는 로슈페리아크로 향했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빠르고 불완전했으며, 다소 비약도 있었다. 사건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대부분 코믹한 풍경을 연출했다. 샤니 백작과 백작부는 그 상황을 매우 즐겼다.

"그럼요," 백작부가 이야기를 끝마친 도로테에게 물었다.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건 삼촌 세 분의 일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물어보세요."

젊은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은 한쪽 구석에 서서 도레테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다. 마치 자신들만의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사색은 백작부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샤니 백작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에게 공통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들 모두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다.

샤니 백작부인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에링턴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다.

"도레테 사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말하세요, 에링턴."

"자, 그렇다면 이 삼십만 프랑은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죠? 그게 바로 당신이 알고 싶은 거죠, 맞죠?"

"맞습니다."

도로테가 영국인 남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제 모든 저축이에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로 번 돈이죠."

"제발, 그런 농담은…"

"설마 그 설명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 드릴게요."

그녀는 반대쪽 귀에도 입을 대고,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도둑질한 거예요."

"오, 사촌이시여.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로요, 조지 에링턴. 제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건, 혹시 그 돈을 '찾았'던 건 아닌지 하는 거예요."

"페리아크의 유적지에서요?"

그녀는 손을 치며 환하게 웃었다.

"잘했어! 그들이 알아챈 거야! 그래, 런던의 조지 에링턴. 나는 그걸 찾았어. 나무 아래, 낙엽과 자갈 더미 밑에서."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고귀한 조상, 보그레발 후작이 지폐와 6퍼센트 채권을 숨겨 두었던 곳이지."

다른 두 사촌들도 앞으로 나섰다. 매우 초조해 보이는 마르코 다리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진지하게 말해 주세요, 도로테이 사촌. 저희를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 다이아몬드는 잃은 걸로 봐야 할지, 찾은 걸로 봐야 할지. 이 질문은 저희 일부, 아니 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그 다이아몬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게 만드니, 정말 그런 건가요?"

그녀가 말했다.

"왜 그런 추측을 하죠?"

"우선, 다이아몬드 하나를 팔아 얻은 돈으로 볼 수 있는 그 뜻밖의 현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이 보물 사냥을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어떻게요, 도로테? 수개월에 걸친 전투와 승리의 끝에, 드디어 목표에 다다랐다는 순간에 갑자기 손을 놓고 버린다니요. 조금의 노력도, 조금의 탐색도 없이요. 아니, 아니요. 당신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도로테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촌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를 찾았지만,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기적을 저지른 셈이군요?"

"당신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웹스터가 유쾌하게 말했다.

백작부인도 그들 곁에 합류했다.

"모든 걸요, 네, 도로테. 다 해결됐어. 당신의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성공한 게 분명해."

그녀는 고개를 저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 곁에 모여들었다. 호기심에 찬 눈빛도, 초조한 시선도 섞여 있었다.

백작 부인이 속삭였다.

"성공하신 거죠?"

"네." 도로테가 대답했다.

그녀는 정말로 성공한 것이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온갖 각도에서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던 난제를, 그녀가 해결해낸 것이다.

"그런데 언제였죠? 어느 순간이었나요?" 조지 에링턴이 놀라며 물었다. "우리를 떠나신 적 없잖아요."

"아, 그건 훨씬 전 일이죠." 도로테가 말했다. "로보레 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옥타브 백작이 깜짝 놀라 외쳤다.

"처음 몇 분 만에, 적어도 보물이 숨겨진 곳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문장(家紋)을 통해요."

"가문의 문장 때문이었나요?"

"당연하잖아요. 너무 명백해서, 저는 그토록 우매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물을 숨기면서 그런 단서를 남긴 자를 저는 순진하다고 비난했으니까요. 하지만 보그레발 후작은 옳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 시계나 봉인 wax에다 그 문장을 새겨 넣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후손들에게 그 문장은 이미 죽은 글자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백작 부인이 반박했다.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왜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숨겨진 곳의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그 단서를 건넨 것은 바로 금화였습니다. 제가 유적지에 도착한 지 세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다리오가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인 로보레 포르투나… 인 로보레 포르투나…"

다른 이들도 그 세 단어를 외쳤다. 마치 묘한 주문처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마르코 다리오 씨, 라틴어를 아시나요? 에링턴 씨, 웹스터 씨는요?"

"충분히요." 다리오가 대답했다. "이 세 단어의 뜻을 읽어내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죠. '포르투나'는 운을 뜻하고……"

"이 경우라면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그녀가 덧붙였다.

"맞습니다." 다오가 번역을 이어갔다. "다이아몬드는 '인 로보레'……"

"마음의 굳건함 안에 있죠." 에링턴이 웃으며 말했다.

"기품과 힘 속에 있구요." 웹스터가 덧붙였다.

"그렇군요. 세 분에게 '로보레'라는 단어는 라틴어 '로부르'의 아블라티브 형태로, 그저 그런 뜻으로만 들리나요?"

"당연하죠." 세 사람이 대답했다. "로부르…… 힘…… 굳건함…… 에너지……"

그녀는 경멸하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저도 라틴어를 거의 당신만큼 압니다. 하지만 시골 여자인 저에게 더 큰 장점이 있어요. 시골을 거닐다가 '루브르'라는 이름의 참나무를 보면, 옛 프랑스어 '루브르'가 라틴어 '로부르(힘)'에서 유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힘, 곧 참나무를 뜻하는 말이죠.

그 생각이 7월 12일, 당신과 함께 교차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참나무 곁을 지날 때 떠올랐습니다. 참나무 길 입구에 있는 그 나무 말이에요. 그 순간, 나무와 은신처가 연결되었죠. 그리고 우리 조상이 끝없이 되뇌던 이 말을 번역해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루브르 참나무 속동에 숨겼다.'

보시다시피, 별것 아닙니다."

그는 매혹적인 유쾌함으로 연설을 마치고는 입을 닫았다. 세 젊은이는 그녀를 경외감과 당혹감에 싸여 바라보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눈에는 친구들을 놀라게 한다는, 그 무엇인가 특별한, 그녀 안에 숨어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내 보였다는 순진한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달라요." 웹스터가 속삭였다. "당신은 다른 종족의 사람이에요. 다른 종족의……"

"용감한 프랑스인의 종족이죠. 모든 프랑스인들처럼 상식이 풍부하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웹스터는 세 사람 모두를 짓누르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니요…… 다른 무언가예요."

그는 그녀 앞에 허리를 굽혀 입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스쳤다. 에링턴과 다리오도 같은 존경의 제스처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감정을 감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번역을 이어갔다.

"포르투나, 운명…… '인 로보레, 뤄브르 안에서'……"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뤄브르의 가장 깊은 곳, 뤄브르의 심장부'라고 해야겠지."

그 나무는 키 1미터 50센티미터 지점에 고리 모양의 살이 불거진 자국이 있었다. 나무 줄기에 난 상처가 아물며 남은 흔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찾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그르발 후작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해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 박아두었을 거라는 것을.

더 이상 할 일은 시도를 해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첫날 밤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 사촌들 세 명이 잠든 사이, 성-캉탱과 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듬거리며 드릴과 톱, 손드릴을 다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장애물에 부딪혔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구멍을 더 넓혔다. 하나씩 꺼내 보니, 호두알만 한 구슬 네 개였다. 그 구슬에 붙은 때를 닦아내자, 네 개의 다이아몬드가 드러났다.

이것이 세 개다. 네 번째는 델라루 씨에게 맡겨두었다. 그는 신중하게 보석상을 통해 정밀 감정을 받은 끝에, 내일까지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게다가 그 착한 아저씨는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요. 보석상 말로는 네 다이아몬드 네 개를 합치면 무려 66캐럿이라고 해요. 정말 66캐럿이죠. 그리고 각각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녀는 세 친구에게 골콘다의 세 붉은 다이아몬드를 건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돌들이었다. 크기는 모두 같았고,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특이했다. 과거에 그랬듯 서로 마주 보는 면으로 다듬어졌다.

에링턴, 웹스터, 다리오에게 그 돌들을 만지고 바라보는 일은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두 세기 전, 베오그레발 후작이 바로 그 나무에 돌들을 맡긴 적이 있었다. 그 나무 아래서 그는 아마 책을 읽고 쉬곤 했을 터였다. 후작은 부활에 대한 환상적인 꿈에 사로잡혀 죽었다.

두 세기 동안 자연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해냈다. 지능과 섬세함으로 고른 그 작은 감옥 주변에는 벽이 쌓이고, 또 벽이 쌓여 점점 더 두꺼워졌다.

두 세기 동안 수많은 세대가 그 전설적인 보물 곁을 지났다. 그들은 아마도 희미한 전설에 이끌려 그것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노인의 증손녀가 해독할 수 없는 비밀을 밝혀내고, 가장 신비롭고 어두운 보석함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건넨 것은 조상이 인도에서 가져온 보석들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보관해 두세요. 후작의 세 아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세 가문은 모두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보석이 배당됩니다. 네 번째 보석은 프랑스에 남은 네 번째 가문의 후손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옥타브 백작은 매우 놀란 기색이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저는 우리가 프랑스에 남은 세 명의 상속인, 곧 당신과 라울, 그리고 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마다 보석상이 추정한 가치가 수백만 프랑에 달합니다. 우리 세 사람의 권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제 권리는 무효입니다."

옥타브 백작이 단언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관한 약속이나 협정이, 당신을 제 아버지와 라울의 아버지와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폐기된 협정이야!" 라울 다베르노아도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언장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 메달 네 개, 다이아몬드 네 개. 우리 삼촌과 당신, 도로테, 그들만이 마르키의 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당신도요, 라울. 당신도요! 우리는 함께 싸웠잖아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마르키의 직계 후손이셨어요. 메달의 부적도 가지고 계셨죠."

"그 메달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어."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그걸 손에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불가능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건져 올린 원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은 단지 드에스트레슈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지. 그럼 어때?"

"할아버지가 페리아크 곶에서 저와 줄리엣 아지르를 만나고 돌아오신 후, 어느 날 과수원에서 울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금메달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저에게 건네며 살펴보라고 하셨죠. 메달에는 당신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모든 표시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앞뒤 양면 모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죠. 당연히, 도로테, 그 십자가가 메달의 가치를 모두 없애 버렸답니다."

젊은 여자는 이 놀라운 고백에 매우 놀란 듯했다. 그녀는 딴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정말요? … 당신이 보셨다는 거예요? …"

그녀는 창가 중 하나로 다가가, 몇 분 동안이나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서 있었다.

모험의 마지막 가림막이 걷혔다.

사실은 금화 두 개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중 하나는 가짜였다. 장 다르곤의 것이었으나, 드에슈트뢰에게 도둑맞았고, 라울의 아버지에게 다시 찾았으며, 결국 노령의 남작에게로 보내졌다.

다른 한 개는 진짜 금화였다. 이 금화는 노령의 남작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신중함 때문이든 탐욕 때문이든, 이 사실을 아들과 손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쳐버린 그는, 자신이 개 목걸이에 숨겨둔 부적에서마저 쫓겨났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졌던 다른 금화, 즉 드에슈트뢰가 찾아내지 못했던

금화를 들고, 줄리엣 아지르에게 맡겨둔 그 금화를 가지고 그는 보물을 찾아 떠났다.

도로테는 이 진술이 불러일으킬 모든 결과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자신이 소유라고 믿었던 금화를 건넸다. 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 라울의 유산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자의 아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녀는 그 행위가 관용과 자비로운 결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훔친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돌려준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라울이 아버지의 죄를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녀가 창가에서 방 중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가는 마치 눈물로 젖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내일은 진지한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모인 것을 기뻐하고, 이 만남을 축하해요. 라울, 오늘 저녁 식사 초대해주실 거죠? 아이들도요?"

그녀는 다시금 모든 기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수원의 큰 대문까지 달려가 소리를 질렀고, 소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 대위는 샤니 경에게 달려가 안겼다. 생탕탕탱은 그의 손을 입에 대었다. 카스토

르와 폴룩스의 코가 부어올라 있었다. 최근 싸움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다.

백작 부인은 목에 걸고 있던 네 줄의 카르넬리 목걸이를 빼앗아, 모두에게 건넸다.

저녁 식사는 거품 나는 시드르와 샴페인으로 채워졌다. 밤새도록 도로테는 모든 사람에게 활기차고 다정하게 보였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듯했다.

아치발드 웹스터가 그녀에게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내일, 8월 1일이면 그녀는 청혼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제발 좀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민적 기록의 오류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는 무시하고,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편지에는 제가 1901년 4월 30일에 태어났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 저는 딱 스무 살에 세 달 정도 된 셈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나요? 스무 살에 세 달이라니…… 기다릴 여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소. 당신은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오."

"좋아요. 그럼 지키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 중에서 고르겠소? 우리 사촌 라울도 후보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겠지, 추측하건대."

"그중 한 명을 뽑아야 하죠. 결국 한 사람만 선택될 테니, 저는 오늘 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네 젊은이에게 먼저 키스를 건넸다. 이어 백작과 백작부인에게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는 대위를 품으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혔다.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는 말했다.

"자,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들은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헤어졌다.

다음 날 아침, 라울과 오크타브 드 샹니,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외국인이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농장 종업원이 한 통의 편지를 가져왔다.

라울은 편지 봉투의 필체를 보고는 고통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아, 그녀로부터 온 편지네. 지난번처럼. 그녀는 떠났어."

그는 백작과 백작부인과 함께 로보레를 떠났던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봉투를 찢어 열더니,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맹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은 어제 알게 된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라울이 7월 12일 약속 장소로 저를 소개했을 때, 라로슈페리아크 성 시계탑 앞이었죠. 그때 저는 무심코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믿었던 그 부적은 사실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진실의 증거들을 공개할 수 없는 깊은 사정이 있지만, 적어도 당신은 저와 똑같은 확신과 평정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걸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에링턴, 웹스터, 다리오, 그리고 당신 라울, 여러분은 보그레발 후작의 진정한 상속인입니다. 그의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 네 번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웹스터는 내일 바로 낭트로 가서 델라루 씨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30만 프랑어어치 수표를 건네며 다이아몬드를 받아올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그가 서명했던 영수증과 함께 필요한 지시 사항을 델라루 씨에게 보내겠습니다.

"라울, 솔직히 말해. 어제 진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조금 슬펐어. 음, 많이 울지는 않았지만, 몇 방울의 눈물은 흘렸지…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 재물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 돈에는 너무 많은 추

악함과 끔찍한 일들이 따라다녔거든. 나는 어떤 일들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돈은 감옥과도 같아. 나는 감금된 채 살고 싶지 않아."

라울, 그리고 내 세 새 친구여. 여러분은 어제 마뉴아르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연인으로 고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요청했지.

나도 비슷한 농담으로 답해도 될까? 이미 선택은 끝났어. 내가 마음속으로 고른 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나는 네 아들 중 가장 어린아이에게 먼저 헌신할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거지.

미워하지는 말아 줘, 친구들. 지금까지 내 마음은 오직 어머니의 마음일 뿐이야. 그 아이들을 위해만 나는 다정함과 걱정, 사랑으로 뛰고 있어. 내가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가난한 몽포콘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내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바른 삶이 필요하지.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이고 방랑자야. 우리 이동 마차보다 더 나은 집은 없어.

나에게 큰길을 다시 걷게 내버려 둬.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다시 만나죠. 샤니의 사촌들이 로보레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전 주 화요일로 날짜를 정해 놓으시죠. 거기서 만나요. 괜찮으시죠?"

"안녕, 친구. 진심 어린 우정을 보낸다. 마지막 눈물도 함께 보낸다……. 인 로보레 포르투나. 운은 마음의 단단함 속에 있다."

"모두에게 포옹을 보낸다."

편지를 읽은 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옥타브 백작이 입을 열었다.

"참 이상한 여자야. 생각해보면, 그녀 주머니엔 네 개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천만에서 천이백만 프랑이 들어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도로테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행복이 떠나가고 있었다.

라울은 시계를 꺼내 본 뒤,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그들을 가장 높은 언덕으로 이끌었다.

지평선 너머, 초원을 가로지르는 흰색 도로, 곧 소뮈르로 가는 길 위에서, 도로테의 서커스는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세 명의 젊은이가 생탕탕탱이 이끄는 '삐에-보르뉴'라는 말 옆을 걸으며 따라갔다.

그 뒤로는 한 여성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파란 실크 스카프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스카프 끝자락은 바람에 나부꼈다. 바로 도로테였다. 아르곤 공작부인, 그리고 줄 타는 무희.